

6.15주간

주체91(2002)년

6.15Weekly

제32호 (1월 25일~1월31일)

노작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아리랑

이북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 호소지지 환영

한민전 대변인 담화

≪미군, 모든 피난민 사살 명령≫
방미중인 이회창의 매국배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언동
한총련 합법화 위한 사회단체 간담회 열려
4대제일주의는 이북의 기상(1 ~ 4)
2002년 전위당의 신년메시지는 있다
≪구국의소리방송편집국≫이 제기한 ≪새롭게 풀어야 할 이론실천적 문제≫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6.15WEEKLY

제32호 (1.25~1.31)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북조선노동당 도, 시, 군 위원회 위원장연석회의에서 한 보고
1947년 9월 6일

동지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는 것은 민족의 일치단결을 보장하며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하여 우리 당이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대한 정치적 사업입니다. 우리 당은 민주주의적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것을 새 조국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하였으며 인민정권을 수립하고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과정에 통일전선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여왔습니다.

우리는 작년 7월 북조선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대표회의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를 결성함으로써 북조선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중앙으로부터 시, 군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사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북조선의 모든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기치 하에 굳게 결속되어 인민정권이 제시한 제반 시책과 결정을 지지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 달성된 민주건설의 위대한 성과들은 우리 당의 민족통일전선정책이 정당하며 각급 당 단체들과 당원들이 민전을 강화할 데 대한 당의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줍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옳게 진행되고 있다 하여 이에 만족하여서는 안됩니다. 아직 일부 지방 당 단체들과 당원들은 우리 당의 민족통일전선정책에 대한 옳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한 데로부터 우당들과의 사업에서 일련의 편향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당들과의 사업을 잘 할 데 대하여서는 지난 3월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중요하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당 단체들과 당원들은 우당의 당원들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덮어놓고 배척하는가 하면 민주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놓고 우당들과 진지하게 협의하고 공동보조를 취할 대신 불필요한 마찰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당 단체들과 당원들은 우당의 일부 당원들이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고있는 것을 보고도 묵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는데 지장을 주는 유해로운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치정세와 민주건설의 방대한 과업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제가 패망하고 우리 조국이 해방된지 2년이 된 오늘까지도 우리 나라는 분열된 상태에 있으며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위한 위업 앞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문제에 관한 모스크바3국외상회의 결정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있으며 소미공동위원회 사업을 파탄시키려고 온갖 비열한 행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제는 남조선반동들을 부추겨 우리의 민주건설을 파괴하며 북조선의 민주주의적 정당들 사이에 불신과 이간을 조성시키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처하여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어야 하며 그 기치 하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 민주역량을 더욱 굳게 결속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북조선에서 민주개혁의 역사적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며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책동을 분쇄하고 하루속히 전 조선에 통일적인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과업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모든 당 일군들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는 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우리 당의 민족통일전선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당들의 구성에 대하여 잘 알고 그에 맞게 우당의 당원들과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당들은 그 구성으로 보아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건설에서 우리 당과 얼마든지 통일전선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자산계급의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소시민, 기업가, 상인, 종교인, 부농 기타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구성이 복잡하지만 민주당의 대다수 당원들은 조선을 예속하고 식민지화하려는 미제의 책동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선이 또다시 식민지로 되면 자기들이 일제 때와 같이 민족적인 차별과 멸시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로 되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민주당과 통일전선을 강화하여야 하며 민주당의 당원들이 건국사업에 적극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물론 민주당에 들어있는 일부 기업가, 상인들은 국영경제가 장성 강화되면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심으로부터 민주건설에 참가하는데서 주저하거나 동요하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 중에는 인민정권이 실시한 민주개혁을 반대하고 우리의 민주건설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들어있는 교인들 중에도 내외반동들의 악선전과 우리 인민정권의 종교정책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앞으로 자기들이 인민들에게서 완전히 배척 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동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절대다수의 민주당원들은 우리 인민정권의 민주주의적 시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튼튼히 결속하여 민주건설에 적극 참가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청우당은 다수가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우당에 망라된 농민들은 토지개혁의 혜택에 의하여 땅의 주인으로 되었습니다. 그들은 민주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민주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청우당과도 손잡고 나가야 합니다.

청우당의 상층에는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민족의 번영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고 자기들의 지도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민들이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저애하면서 불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우당의 상층에 끼어있는 이런 자들 역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노동당원들은 청우당의 당원들과의 사업을 잘 하여 그들이 진보적 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부강한 새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독교단체성원들에 대하여서도 옳은 인식을 가지고 그들을 민전에 결속시켜야 합니다.

기독교단체의 상층에 있는 목사, 장로들 중에는 민족적 양심을 가진 좋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미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그들에게 매수된 자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미제는 기독교를 조선침략의 도구로 이용하였습니다. 미제는 우리 나라 각지에 예배당을 지어놓고 기독교와 숭미사상을 퍼뜨렸습니다. 그리하여 북조선만 보더라도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황해도 일대를 비롯하여 각지에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기독교단체의 상층에 인민정권의 시책을 반대하는 자들

이 일부 있으나 기독교단체에 속하여 있는 대다수의 교인들은 인민정권의 시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지난날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민주개혁의 혜택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므로 민전에 결속될 수 있으며 민주건설의 한 길로 우리와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각급 당 단체들과 당원들은 종교인들의 구성상태, 그들의 처지와 사상동향을 잘 알고 종교인들의 건국열의를 높여주며 양심적인 목사나 장로들이 애국애족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융성과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하여 적극 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하층종교인들을 각성시켜 그들 자신이 반동적인 장로와 목사들의 매국배족적인 행위를 적발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당과의 통일전선사업에서 하층통일전선과 상층통일전선을 옳게 결합시키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통일전선사업에서 상층통일전선과 하층통일전선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당들과의 통일전선을 실현함에 있어서 상층통일전선이나 하층통일전선의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치는 경향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 당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조직을 통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 상층과의 통일전선을 이룩한 조건에서 그것을 공고히 하면서 하층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의 각급 당 단체들과 당원들은 우당의 하층당원들과의 연계를 밀접히 하고 그들에게 우리 당의 정책과 인민정권의 시책을 잘 해설해 주어야 합니다. 우당의 당원들에게 우리 당의 정책과 인민정권의 시책을 해설할 때에는 그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그리고 알기 쉽게 하여야 합니다. 우당의 당원들에게 농업현물세제에 대하여 해설한다고 하면 북조선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현물세제는 일제 때의 공출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과 농업현물세제가 농민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농촌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며 새 조국 건설을 촉진하는 우월한 시책이라는 것을 그들이 똑똑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 단체들은 당원들이 우리 당의 정책과 인민정권의 시책을 우당의 당원들에게 올바로 인식시키기 위한 해설선전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게 할 뿐 아니라 우당의 당원들과 힘을 합쳐 그것을 철저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당 상층과의 사업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당 상층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 당의 당원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거나 하층당원들이 노동당원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당의 상층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당 상층의 일부 사람들이 민주건설을 시비하고 방해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발로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일률적으로 법기관과 내무기관들에서 취급하게 하지 말고 단결의 견지에서 심중히 따져보아야 하며 통일전선을 강화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우당 상층의 일부 사람들이 인민정권의 시책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데로부터 그것을 시비하였다면 그들에게 인민정권의 제반 시책을 해설해 주어 그들 자신이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인민정권을 지지해 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통일전선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우당 상층의 일부 불건전한 사람들의 그릇된 행위에 대하여 무원칙하게 대하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당의 상층 속에서 발로되는 비행에 대하여서는 그 당 자체 내에서 투쟁하여 극복하게 하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보아 민전 내에서도 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의 정당한 시책을 고의적으로 반대하고 민주건설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자들에 대하여서는 응당 법에 따라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당의 하층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면서 상층과의 사업을 잘하여 우당의 당원들이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더욱 굳게 결속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각급 당 단체들에서 사회단체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들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을 망라한 대중단체로서 광범한 군중을 우리 당의 주위에 묶어 세우는데 있어서나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 단체들이 사회단체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당의 주위에 튼튼히 결속할 수 있으며 민족통일전선사업을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각급 당 단체들은 민청, 직맹, 농맹, 여맹을 비롯한 사회단체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광범한 군중을 우리 당 주위에 굳게 단결시켜야 하며 사회단체들이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통일전선 내에서 우리 당의 독자성을 철저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해방된 조국 땅에 인민이 주인으로 된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근로대중의 선봉부대입니다. 우리 당의 정책은 각계각층의 애국적 인민들의 요구와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민족통일전선 내에서 우리 당의 독자성을 견지하여야 각계각층의 인민들을 결속하는 사업도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하는 사업도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통일전선 내에서 우리 당의 독자성을 지키자면 우리 당 자체를 조직 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하여야 당의 위력과 영향력을 높여 통일전선 내에서 독자성을 지키고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건국사업에서 나서는 어려운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이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되고 영향력이 높아지면 우당들이 우리 당을 더 신뢰하고 따르게 될 것이며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각급 당 단체들은 당 대열이 양적으로 급속히 장성된 현실적 요구에 맞게 당원들의 정치사상수준을 높여 당 조직을 질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당 단체들은 당원들이 조직생활을 잘하고 당 규율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당 정책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사업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우리 당원들에게 우리 당의 통일전선정책을 정확히 인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급 당 단체들은 당원들에게 우리 당의 통일전선정책을 정확히 인식시켜 그들 속에서 우당의 당원들에 대한 계급적 분석을 바로하지 못하거나 우당 단체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옳게 처리하지 못하여 각계각층 인민들의 단결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당원들이 각계각층의 인민들을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결속시키고 민전을 강화하는 사업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각급 당 단체들과 당 일군들이 우리 당의 통일전선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함으로써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는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달성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2. 기이한 인연

≪세기와 더불어≫ 제4권 제11장 혁명의 분수령



…

원정대가 돈화현쪽에 있는 목재소를 치려고 밤새껏 강행군을 하던 때였으니 아마 1936년 초에 생긴 일이였을 것이다. 날이 훤히 밝아올 무렵에 우리는 행군을 중지하고 대도로 옆의 어떤 지주집에 여장을 풀었다. 큰 도성을 둘러치고 포대까지 가지고 있는 만만치 않은 집이였다. 위만군이 조직된 후이고 또 일본사람들이 사설무력을 허용하지 않는 때여서 그 집에 가병만은 없었다.

지주집은 두채로 되여 있는데 한채에는 대원들이 들고 다른 한채에는 지휘부 성원들과 후방부 일군들이 들었다. 우리는 대문앞에 머슴군 차림을 한 대원 3명을 교대로 파견하여 주변을 감시하게 하고 나머지 대원들은 쉬게 하였다.

오후 4시쯤 되었을 때 보초소로부터 마차 1대가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지주집쪽으로 접근해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조금 후 마차가 지주집 앞에 멎어섰는데 그 안에서 웬 귀부인이 병사 1명의 부축을 받으며 내려와 잠깐 몸을 녹이다가 가겠다고 하면서 지주집으로 곧추 들어왔다.

문밖을 내다보니 눈보라가 날리는 마당에 여우털을 댄 외투를 두벌씩이나 껴입은 미모의 젊은 여성이 서있었다. 그 호화로운 옷차림에 눈이 뒤집힌 우리 동무들이 벌써 마당에 쓸어나와 행식이 지나치게 현란한 정체불명의 여인을 에워싸고 검문을 들이대고 있었다.

웬 여자냐고 내가 묻자 나어린 보초는 ≪사령관 동지, 수상한 여자입니다.≫라고 무슨 큼직한 고위급특무라도 잡은 것같은 기세로 우쭐해서 대답하였다. 보초는 그 여자에게서 날카로운 시선을 떼지않고 있었다.

젊은 중국여인은 사색이 되여 아무말도 못하고 온몸을 와들와들 떨고만 있었다.

나는 그 여자의 몸수색까지 하려드는 보초병을 엄하게 꾸짖고 나서 명령하였다.

≪보초동무, 부인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방으로 들여보내시오.≫

여인은 방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조심스레 떨고 있었다.

나는 중국말로 그 여자를 안심시켰다.

≪부인, 무서워 말고 몸을 푹 녹이시오. 어린 보초병이 잘못보고 좀 하대한 것 같은데 양해하시오.≫

나는 여인에게 차를 권하고 나서 그가 몸을 녹일 수 있게 화로

불도 가까이에 밀어놓았다.

≪부인이 어떻게 보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고장 사람들이 ≪고려홍군≫이라고 부르는 인민혁명군입니다. 부인은 ≪고려홍군≫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좀 들어보았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우리 ≪고려홍군≫은 일본사람들이 소문을 내돌리고 있는 것처럼 인민의 생명 재산을 침해하는 ≪비적≫의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 혁명군은 항일구국을 목적으로 하는 인민의 무장력입니다. 우리는 조중 양국을 침해한 일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싸울 뿐이지 인민들의 생명 재산은 털끝만치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인도 마음을 푹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인은 감사의 표식으로 두 손을 합장하였다. 그러나 그 표정에서는 아직도 불안과 공포, 반신반의의 감정이 복잡하게 교차되고 있었다.

나는 부인이 긴장을 풀 때까지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는 부인이 위만군 병사를 데리고 다닌다고 해서 죄를 묻거나 처벌하지 않습니다. 부인이 어떻게 되어 병사의 호위를 받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묻지도 않겠습니다. 인민을 해치지 않고 혁명군을 해치지 않는 이상에야 우리가 무엇때문에 지나가는 길손들을 모욕하고 학대하겠습니까. 우리도 주인장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이 집에 잠깐 들려 피곤을 풀던 손님들이니 다른 생각일랑 말고 불이나 뜨뜻하게 쪼이다가 가시오.≫

여인은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그으며 조심스레 고개를 쳐들었다. 나를 바라보던 그 여자의 눈에 문득 경악에 가까운 빛이 어렸다. 녀인은 두 손을 가슴에 포개여 얹고 안타깝게 입술을 감빨고 있었다.

≪왜 그러십니까? 아직도 내 말이 채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라… 사실은 대장님의 얼굴이… 전 대장님이 본래부터 인자한 분이라는 걸…≫

여인은 맥락이 닿지 않는 말을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또다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바로 그때 호송병을 심문하던 오백룡이 범잡은 포수상으로 문가에 나타나서 중국 귀부인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조선말로 넌지시 보고하였다.

≪장군님, 호송병의 말에 의하면 저 여자는 위만군 12연대장의 아내라고 합니다. 큰 고기가 저절로 그물에 걸려든 셈이지요.≫

≪백룡동무, 너무 우쭐해서 그러지마오. 큰 고기인가 작은 고기인가 하는건 이제 두고봐야지.≫

말은 그렇게 하였으나 사실 나는 위만군 연대장의 부인이라는 말에 퍼그나 놀랐다. 연대장이라면 간단한 자리가 아니었다. 위만군의 군사등급으로서는 위로는 네 번째이고 밑으로부터는 13개나 되는 사닥다리를 톺아올라야 따낼 수 있는 벼슬이었다. 위만군 1개 연대의 관할구역이 몇개 현을 포괄하는 경우도 있었으니 그것을 총괄하는 지휘관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가 하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 당시 액목현에는 교하에 본부를 둔 위만군 혼성 제9여단 산하의 12보병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적군와해를 하나의 중요한 전략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던 당시의 환경에서 위만군 연대장의 부인을 만나게 된 것은 흥미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물론 연대장의 아내라고 하여 조금도 낯색을 달리하지 않았다.

≪그러니 부인, 위만군 연대장의 아내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큰 형벌이라도 내릴 줄 알았습니까?≫

여인은 몹시 민망스러워하는 낯빛으로 손을 비비였다.

≪무슨 그런 말씀을… 못 보지 않았는지… 실례이지만 성함을 김성주라고 하지 않는지?≫

이 뜻밖의 질문을 받고 이번에는 내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간도에서 수백리 떨어진 북만땅에서 우연히 만난 위만군 연대장의 아내가 내 아명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벌써 무심히 스쳐 지날 수 없는 비상사건이다. 어데서 본 적도 없고 만난적도 없는 생면부지의 귀분인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 수 있단 말인가. 놀라움과 동시에 그 수수께끼를 파헤치고 싶은 호기심이 부쩍 동하였다.

≪참, 액목땅에 와서 아명을 들으니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나는 김성주이기도 하고 **김일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인은 어떻게 나를 압니까?≫

연대장의 아내는 모닥불이라도 뒤집어쓴 것처럼 얼굴을 붉혔다. 나는 부인의 얼굴에서 말하고 싶어하면서도 터놓기 주저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성주선생님이 길림에서 청년학생운동을 지도할 때 저는 거기서 여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선생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반갑습니다.≫

얼굴을 쳐들고 처음으로 나를 쳐다볼 때 여인의 눈동자에 비끼던 그 생동한 열정의 빛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는지 나는 비로소 이해하였다. 어쨌든 액목과 같은 백사지에서 길림시절의 여자중학교 학생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희한한 일인가. 길림이라는 그 한마디의 말은 불현듯 내 가슴속에서 향수에 가까운 짜릿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나는 나를 몇해동안 비끄러매 두었던 그 도시에 깊은 정을 두고 있었다.

부인은 내 얼굴에 피어오르는 옛시절의 추억을 읽자 한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성주선생님도 길회선철도부설반대 깜빠니야가 벌어지던 1928년 가을을 잊지 않으셨겠지요? 그 가을에 길림은 얼마나 들끓었습니까. 잘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저도 그때는 학생시위운동에 참가했습니다. 성의회마당에서 성주선생님의 연설을 듣던 일이 눈앞에 선합니다…≫

지난날 시위대열에서 구호를 웨치던 길림여자중학교 학생, 그러나 오늘은 여우털 외투로 몸을 감싸고 호송병의 호위를 받으며 친정집 나들이를 다니는 연대장 부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소리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심한 격세의 느낌을 받으며 연대장의 아내를 새삼스럽게 뜯어보았다. 어제까지 반일을 하던 여성이 오늘은 친일의 열차에 오른 것이다. 무엇이 이 여자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자기 민족의 운명에 대한 절망으로 하여 생겨난 타락이겠는가. 그러나 나는 길림시절을 회고하는 그 여성의 절절한 표정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반일을 하던 그전날에 대한 미련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생각하였다. 더구나 그는 우리 앞에서 눈물로 자신을 회개했고 수치를 무릅쓰고 여학생시절을 추억하였다. 이 여자가 무엇 때문에 나를 보는 순간 그리도 놀라고 전율을 일으켰겠는가. 그것은 양심앞에서 느낀 공포였을 것이다.

≪성주선생님, 왜 말씀이 없으세요? 저를 용서해주세요. 선생님이 연설을 하실 때 주먹을 들고 호응했던 그 소녀가 글쎄… 이렇게 군복을 입고 고생하는 성주선생님을 보니… 감개무량하고… 저는 부끄럽습니다.≫

부인의 눈에서는 다시금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부인, 진정하시오. 자기를 너무 비하하면 안됩니다. 그런 절망, 그런 자포자기의 세계에 빠지기에는 시국이 너무도 준엄합니다. 안팎의 정세는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중화의 모든 아들딸들과 지성인들을 항일구국의 광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연대장의 아내가 되었다고 해서 항일을 못한다는 법이

야 옳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자 여인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쳐들었다.

≪그렇다면 저의 처지에서도 항일을 할 수 있는 출로가 있단 말입니까?≫

≪있지요. 부인이 남편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 그가 혁명군을 토벌하지 않게만 하여도 그것은 곧 항일을 위해 공헌하는 것으로 됩니다. 털어놓고 말해서 위만군 연대장이면 작지 않은 벼슬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벼슬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자기가 중국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데 있습니다.≫

≪저의 남편도 연대장이기는 하지만 그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이도 민족적 양심만은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주선생님 말씀대로 남편을 잘 설복해서 유격대토벌에 부하들을 내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말을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연대장이 친일로부터 반일로 방향전환을 한다는 것은 그 수하의 부하들도 애국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에 부인과 부인 남편되는 분의 재생의 길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날 간도에서 위만군 장교로 복무하던 사람들이 친일로부터 항일로 방향전환을 한 사실들에 대하여 이것저것 소개하면서 여인에게 신심을 주었다.

여인은 오늘 성주선생을 만나게 된 것은 하늘이 나에게 준 복이다, 선생의 말을 듣고 나니 생각되는 바가 많다. 선생이 오늘 나에게 길림시절의 넋을 되찾아주고 우리 부부를 재생의 길로 인도해준 셈이다. 내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중화민족의 딸답게 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나는 그에게 우리가 만든 선전물과 송경령, 장내기 등이 상해에서 발표한 항일구국 6대강령도 보여주었다. 1차 북만원정때 녕안에 있던 주보중의 산막에서 오평이 보여준 바로 그 6대강령이었다.

연대장의 아내는 시계를 들여다보고는 품속을 뒤지더니 흰 종이에 싼 물건을 내앞에 내놓았다. 그것은 중국지페였다. 아편을 팔아 마련한 돈이라면서 군자금으로 써달라고 하는 것이였다.

우리는 그의 성의가 고마웠으나 받을 수가 없었다.

≪그 돈은 도로 간수하시오. 나는 오늘 잃었던 반일학우를 다시 얻었으니 그것만해도 큰 재산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연대장의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다.

우리는 헤어지기 전에 저녁상을 푸짐히 차려 위만군연대장의 부인에게 접대하였다. 그 여인이 지주집을 떠나가면서 나에게 대준 성명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요행 남아있는 것은 ≪지≫라는 성뿐이다. 아쉽게도 나는 그 여자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얼마 후 우리는 위만군연대장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당신들은 세상에 더없이 고귀한 사람들이다. 나의 아내에 생명을 보호해주고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애국의 길을 걷게 한 당신들을 나는 결초보은의 각오를 가지고 도와줄 결심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문의 편지였는데 필치가 아주 비장하였다. 그 연대장의 이름도 ≪장≫무엇이라고 하였는데 기억이 삭막하다.

그후 우리는 음력설 준비를 하느라고 액목현성 근처에 군수관을 파견하였다. 그는 언 돼지고기를 비롯하여 설음식 준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들을 구입하느라고 시가지에까지 들어갔다가 과업을 채 수행하지 못한채 현경찰에 붙잡혔다. 이 소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위만군 연대장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연대장은 경찰서에 인민혁명군은 군대가 관계하는 것만큼 군수관을 넘겨달라고 하였다.

처음에 군수관은 위만군 연대장이 자기를 데리고 가서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연대장은 아내를 시켜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군수관을 귀빈으로 환대해 주었다. 그는 김사령부대가 자기 아내를 잘 도와주어 감사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어떤 정황에 놓이든지 당신들을 토벌하지 않겠다, 목숨을 걸고 담보하는 것이니 내 말을 믿어도 좋다, 당신네 부대를 만나면 공중에 대고 총을 세 방 쏘겠으니 그럴 때에는 우리 부대인줄 알고 못본척 하고 지나가라, 내 죽더라도 김사령의 은혜만은 잊을 수 없다, 김사령한테 충심으로 되는 나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였다.

군수관에게 말한대로 위만군 연대장은 그후 우리와의 약속을 잘 지켰다.

우리가 삼과송부락에 머물고 있던 그 당시 관지부락쪽에는 일본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액목현쪽에는 위만군 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두 부대가 다 토벌을 다니기는 하였지만 12연대장이 지휘하는 위만군 연대는 우리 부대와 마주칠 때마다 일부러 교전을 피하곤 하였다. 우리도 일본군대만 골라가면서 쏘았다.

그 당시 일본군과 위만군을 구별하는 중요한 표식의 하나는 철갑모였다. 철갑모를 쓰면 일본군이고 안쓰면 위만군이라는 것이 빨찌산의 어느 부대에서나 다 통하는 공식이었다. 그런데 나중에는 위만군까지 철갑모를 쓰고 전투장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철갑모를 쓴 사람은 일본군으로 알고 무조건 쏠테니 유격대와 싸우지 않으려거든 철갑모를 벗으라고 하였다. 그런 경고를 받은 다음부터 위만군은 우리한테 접근하면 철갑모를 벗고 자기네가 만주군이라는 것을 알렸다.

빨찌산은 철갑모를 쓴 자들이 대열앞에 있으면 앞을 치고 뒤에 있으면 뒤를 치군 하였다. 일본군은 ≪빨찌산이 신통히도 우리만을 골라 친다.≫고 비명을 질렀다. 우리는 위만군이 토벌에 나올 때 오발 등의 방법으로 빨찌산들에게 신호를 보낼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들은 이 약속도 곧잘 지켰다. 오발도 못할 때에는 수십명씩, 수백명씩 한데 모여서 ≪지지가가≫, ≪지지가가≫ 하고 떠들어대는 방법으로 자기네 위치를 알려주군 하였다.

장연대장은 우리에게 후방물자도 적지않게 보내주었다. 그는 이따금씩 마차에 돼지고기와 언교즈를 가득 싣고 토벌을 간다고 하면서 주둔지역을 떠나서는 부하들을 시켜 우리 부대와의 접선장소에 가져다 놓게 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빨찌산도 없는 왕청같은 곳에 부대를 데리고 가서 몇시간씩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병영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우리 부대가 관지부근의 어느 마을에 주둔해 있을 때 일이다. 하루는 지휘관들 몇 명이 나한테 몰려와 설 명절을 앞둔 대원들의 기분상태를 보고한 다음 부락에 나가서 메밀이나 감자가루를 구해다가 명절날 국수라도 누를 수 있게끔 식량공작을 하게 승인해달라고 제기하였다.

나는 인민들에게 끼칠 부담을 고려하여 그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마후에는 부대에 철수명령까지 내렸다. 그때 그 마을인민들은 김사령부대와 함께 설을 쇠게 되었다고 하면서 명절준비를 굉장히 하였다. 자칫하다가는 우리 부대의 명절음식 때문에 마을사람들의 몇 달분 농량이 거덜날 수 있었다. 우리가 부대를 이끌고 마을을 급작스레 떠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인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그 명분 때문에 정작 철수를 단행하기는 하였으나 대원들은 그때 사실 한 사람처럼 볼이 부어 있었다.

황니하자막바지에 거처를 옮긴 원정대는 목재소 노동자들이 사용하던 산전막을 손질하고 거기서 설 명절을 쇠였다. 명절이라고 하였지만 우리 모두에게 차례진 것은 한 사람당 한 그릇밖에 안되는 좁쌀밥뿐이었다. 대원들이 그 밥을 먹고 얌얌해할 때 위만군 연대장이 보내준 돼지고기와 교즈가 도착하여 우리를 기쁘게 해주었다.

우리와의 친교가 깊어지게 되자 그 연대장은 나중에 원정대

앞으로 무기도 보내주고 정보자료까지 제공해 주었다. 한 여인에게 비껴진 우리의 진정은 이처럼 진폭이 큰 결초보은의 메아리를 자져왔다. 위만군연대장은 만주국이 자기에게 준 연대장모자를 그냥 쓰고 있으면서도 과감한 연공실천으로 역사와 인민앞에서 장공속죄하였다.

위만군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하층병사대중을 전취하는데 기본을 두면서 중하층장교들과 일부 양심적인 상층장교들까지도 전취하여 극소수의 악질장교들을 고립시키고 타격할 데 대한 적군와해방침은 그 연대장과의 사업에서도 크게 은을 낸 셈이었다.

이것은 예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소득이었다. 우리와 단 한차례의 접촉도 해보지 않은 연대장이 자기 아내의 교양을 받고 반혁명의 하수인으로부터 연공애국인사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고 보면 길림여자중학교 출신의 연대장부인이 남편의 개심을 위해 적극적인 사상전을 벌인 것같다. 그 여자가 아주 훌륭한 여자였다.

위만군 연대장은 얼마후 화전지방으로 이동되었다. 나는 그를 위증민에게 인계하였다. 그때부터 우리는 오래도록 연대자의 소식을 모르고 지냈다. 그러다가 1941년에 와서야 화전에서 위증민의 활동을 보좌하던 곽지간을 통하여 한토막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곽지산은 화전에 있는 위만군 12연대와 13연대가 조만간 열하쪽으로 조동되게 되었다는 것과 그 두 연대의 연대장들이 열하로 이동하기 전에 항일혁명군에 편입할 의사를 표명해왔다는 것을 전해주었다. 그러나 화전에는 그 당시 두연대를 동시에 수용할 만한 부대도 없었고 두 연대장의 용단을 두고 책임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간부들도 없었다. 곽지산이 우리를 찾아온 것은 그 대답을 받아가기 위해서였다. 위증민이 전사한 다음부터 2군소속의 군정간부들은 부대의 활동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처리와 관련된 결론을 우리한테서 받아가곤 하였다.

나는 위만군이 열하고 조동되어가기 전에 그들을 조속히 의거시킬 데 대한 긴급한 임무를 주어 곽지산을 화전으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간이 늦은 탓으로 두연대를 의거시키기 위한 거사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연대장은 화전에 있을 때 양가성을 가진 새 연대장에게 자기 연대를 인계하였다. 그는 후임 연대장에게 부대를 인계하면서 반일의 길을 걷도록 교양하였으며 인접부대였던 13연대장에게도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반일혁명을 도와나서도록 권고하였다.

그후 나는 열하쪽으로 조동된 위만군 제12연대와 제13연대의 후일담과 관련된 자료는 어데서도 얻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최근에 대일작전시의 위만군의 붕괴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서 그 부대들이 결정적인 시기에 일제에 반기를 들고나선 것을 알게 되었다.

적군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양심적인 벗은 수천수만의 벗을 얻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일무장투쟁 초시기부터 ≪적군 속에 혁명의 포대를 쌓자!≫라는 구호를 내들었다. 적군속에 포대를 쌓는다는 것은 적군속에 우리의 진지를 쌓는다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적군와해공작을 목적으로 적군속에 우리의 혁명역량을 조성한다는 뜻이다.

당시에는 적군와해공작을 대적정치사업이라는 말로 통용하였다. 총탄으로 적을 잡는 것과 대적정치사업으로 적을 와해시키는 이 양자는 항일투쟁을 위한 두가지 전략적 노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느 시대, 어느 싸움, 어느 편을 막론하고 적과의 투쟁은 항상 이 두가지 선상에서 진행되어왔다. 하나는 무력에 의한 싸움이요, 다른 하나는 정신과 사상선전에 의한 싸움이다.

일제의 소위 치안숙정에서도 치표공작, 사상공작, 치본공작등 세가지 방침을 내놓았는데 이것도 총체적으로 보면 무력을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소비공작과 선전선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상공작의 두 측면인 것이다. 적들도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신적으로 와해시키려고 발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적정치사업을 위해 적군속에 혁명조직을 꾸리는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을 때 적지않은 사람들은 이에 잘 호응해 나서지 않았다.

목숨이 아깝다고 적군와해공작방침을 반대하여나선 졸장부는 물론 한 사람도 없었다. 일부 사람들이 이 방침에 흔연히 호응해 나서지 못한 주되는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계급적 선에서의 탈퇴로 본 데 있었다.

우리는 노동자, 농민의 군대요, 상대는 부르죠아군대이니 적아는 수화상극이다, 물과 불이 서로 의좋게 이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까지도 다 알 수 있는 명백한 이치인데 적군 속에 혁명조직을 꾸린다는게 될 말인가고 하면서 머리를 내저었다.

맑스주의고전들을 한배낭씩 지고 다니는 축들은 적군속에 혁명조직을 꾸린다는 것은 일종의 계급협조와 비슷한 우경적인 탈선이라고 비평하였다. 그것은 불상용적 모순관계에 있는 계급적 원쑤들과의 제휴를 꾀한다는 것이겠는데 고전에는 적군와해에 대한 명제가 없다고 우겼다. 지금 청년들이 들으면 코막고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겠지만 고전의 명제가 없이는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던 당시로서는 이런 일면적인 립장이 상당한 정도로 득세하였다.

계급투쟁이 심했고 계급적 원쑤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 있은 때여서 누가 그런 입장에 선다고 해도 그것을 무슨 큰 탈선으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계급적 원쑤에 대한 증오의 감정으로부터 혁명을 시작하였다고 만난을 극복하였으며 따라서 계급이라는 이 명사 앞에서는 자그마한 양보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다가 맑스주의 창시자들이 계급투쟁론에 대한 교조적인 해석의 후과로 하여 적지 않은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사랑하는 감정보다는 증오하는 감정이, 포섭하고 용서하는 도량보다도 징벌하고 규탄하는 비타협성을 혁명가의 특질로 보면서 사상정신적으로 미숙한 청년들을 협애한 일간으로, 문자그대로 인정사정 없는 ≪홍호자≫로 만들어 놓았다. 사실상 맑스주의혁명은 이런 폐단으로 하여 진통을 겪었고 공산주의자들의 영상에 검은 그을음을 끼게 하였다. 계급옹호와 계급적 비타협성의 구호밑에서 계급의 이익 일면만을 고창해온 좌경분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혁명에 등을 돌려대고 적의 진지로 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문제는 선행고전에 적군와해에 대한 명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혁명의 근본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노선과 방침을 세우려고 하지 않은데 있었다.

자기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혁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 우리는 맑스주의 고전을 연구하는데서도 먼저 비타협성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단결에 대한 사상부터 얻어내려고 애썼다.

우리가 적군 속에 능히 혁명역량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노동자, 농민의 자제들인 절대다수의 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은 물론, 일부 상층장교들 속에도 우리 혁명을 동조하고 착취사회의 수난자들을 불쌍히 생각하는 양심적인 인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을 모두 혁명의 편에 돌려세우고 우군으로 전취한다면 적들은 그만큼 와해되고 우리의 혁명역량은 수배로 장성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총포탄을 쏘지 않고 계급적 원쑤들을 섬멸하는 대공격전으로 되며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인류의 행복과 화목을 염원하는 고상한 이념의 소유자들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일대 선전으로 된다.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입장과 뜻을 가지고 ≪적군속에 혁명의 포대를 쌓자!≫라는 구호를 대적정치사업의 기본구호로 제기하였다.

적군속에 혁명의 포대를 쌓을 수 있다고 본 우리의 사상은 사

람의 본성에 대한 주체적인 입장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위대한 존재인 동시에 정의로운 것을 옹호하고 지향하는 아름다운 존재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볼 때 착하고 고상한 것을 추구하며 악하고 더러운 것을 경멸한다. 이 고유한 본성이 바로 인간성이다.

극소수의 반동적인 상층을 제외한 다수의 중하층 인간들과 상층의 일부 인물들은 우리가 넓은 도량을 가지고 좋은 영향을 주기만 하면 혁명의 지지자, 동조자, 방조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극소수의 반동들과 악한들을 제외한 민족의 모든 성원들을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묶어세울 수 있다고 보는 우리의 정책은 바로 이런 입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해방후 우리 나라 사람들은 김구를 테러의 왕초라고 하면서 이승만과 동열에 놓인 인간으로 반동시 하였다. 그가 일생동안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적대시한 것만은 사실이였다. 그들에 대한 증오가 오죽했으면 김구, 이승만이 호박을 쓰고 돼지우리로 들어가는 만화까지 나돌았겠는가. 강선제강소 노동자들은 자기네 공장굴뚝에 ≪김구를 타도하라!≫는 구호까지 써갈겼다. 그 당시까지만 하여도 우리 인민들 중에는 김구를 개조할 수 있다고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김구 자신은 4월 남북연석회의때에 우리의 영향을 받고 반공분자로부터 연공, 친공인사로 개조되었다. 그가 이런 개조과정을 거칠 수 있은 것은 우리의 영향도 영향이지만 공화국 북반부의 현실을 목격하는 과정에 그가 일생을 바친 애국애족의 정신이 고도로 발동되고 그의 인간성이 최대한으로 계발되었기 때문이다.

애국애족과 인간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우리는 반공일선에서 우리를 겨누던 최덕신과도 손을 잡지 않았을 것이며 오늘날의 남조선 집권자들과도 대화의 마당을 마련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남조선의 통치자들과 대화의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협상탁에 마주앉는 것은 비록 제한성은 있지만 그들이 지니고 있는 민족적 양심과 인간성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며 그 양자가 어느 때든지 민족화합의 대화원에서 꽃으로 만발하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적군전취의 대상과 방법문제를 놓고도 적지않은 논쟁을 하였다. 일본군대를 상대로 하는 대적정치사업에 대한 론쟁은 더구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동무들은 위만군의 중하층의 전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면서도 어릴 때부터 ≪야마도 다마시≫로 ≪천황≫을 맹신하고 강압적인 규율에 길들어진 일본군인은 도저히 전취할 수 없는 존재로, 원쑤로 보았다.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독립군 두령에게서도 반공사상을 뽑아내기 어려운데 하물며 일본군 장병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고 하면서 도리질을 하였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하나의 사건이 이 견해를 쉽게 부정해 버렸다.

어느 해인가 간도의 농촌부락들에 열병이 돌아서 일본군대들이 앓는 사람들을 집에 걷어넣고 불을 질러 태워죽이는 살인만행을 감행한 적이 있다. 동장영이 앓고 있은 부락에도 토벌대가 달려들었다.

한 일본장교가 방안에 누워있는 동장영을 보자 대뜸 자기 부하에게 문을 걸고 불을 지르라고 명령하였다. 일본군인은 상관의 말대로 불을 달려고 서둘렀다. 최후의 순간이 닥쳐왔다고 생각한 동장영은 죽을 바에는 마지막으로 선전이나 하다가 값있게 죽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주먹으로 방바닥을 두드리며 한바탕 선전을 하였다. 일본에서 대학까지 마친 그는 일본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였다.

너도 노동자, 농민의 자식이겠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마구 죽이는가? 죽여서 얻을 것이 무엇이냐, 인사불성도 분수가 있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법이 어디 있는가.

양심의 문을 두드리는 격렬한 절규에 마음이 움직여진 일본군인은 뒤문짝을 차던지고 상관이 눈치채지 못하게 동장영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야 불을 달았다.

동장영은 밭고랑에 숨어있다가 가까스로 사지에서 구원되었다.

이 일화는 일본군을 전취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고집하던 사람들의 입을 봉해버리게 하였다.

이때부터 우리는 신심을 가지고 견결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총명하고 지략에 능한 동무들을 선발하여 대담하게 적군속에 파견하였다.

적군속에 홀로 있는 고립무원한 상태에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고 대적정치사업을 훌륭히 수행한 유명무명의 많은 공작원들에 의하여 위만군과 자위단들 속에서 매일과 같이 병변이 일어났다.

우리는 유격대원이라면 누구나 다 함화, 출판물 보급, 여론유포, 가요보급 등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을 가지고 대적정치사업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적군 안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하고 개별적으로도 하고 집단적으로도 하는 우리의 열렬하고 감화력있는 선전공세로 하여 많은 위만군 부대들이 유격대와 싸우기를 그만두고 충실한 무기수송대로 되었다.

위만군들은 편지 한 장만 내도 무기, 탄약, 식량을 실어다 주었고 전투마당에서 ≪요창 부요밍(총을 요구하지 목숨은 필요없다.)≫하고 입대포만 놓아도 총을 바치고 투항하였다.

적 토벌대들은 우리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지만 우리는 적군을 포로하면 위만군이건 일본군이건 차별하지 않고 인도주의적으로 잘 대우하고 친절히 교양하여 여비까지 주어 돌려보냈다.

이렇게 하니 심지어 우리 부대에 총을 메고 7차례나 포로되어온 위만군 병사까지 있었다. 우리가 그 병사에게 농조로 이 친구 또 왔구만 하면 그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혁명군에 총 바치러 왔습니다≫하고 대답하곤 하였다.

우리는 동만에서 활동할 때 왕청현 라자구 문영장 부대의 중대장들을 비롯해서 적의 중대장급 이상의 장교들도 무수히 전취하였다.

1934년 남하마탕의 마굴령 부대에 들어가 와해공작을 훌륭히 수행한 ≪첸렌장≫도 원래는 위만군 중대장이었는데 우리가 영향을 주어 공산주의자로 개조하였다.

일본군 병사들속에도 우리를 잘 도와준 잊을 수 없는 벗들이 있다.

소왕청방어전투 때 전지수색을 하던 오백룡이 일제침략군 운전수의 시체에서 유격대에 보내는 쪽지편지 한 장을 가져온 일이 있었다. 그 편지의 임자는 노동계급 출신의 일본침략군 운전수였으며 일본 공산당원이었다. 그는 탄알 10만발을 자동차에 싣고 우리를 찾아오다가 유격구 가까운 산기슭에서 발각되어 유서를 호주머니에 써넣고 자결하였다.

그가 지닌 고결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혁명정신은 만사람을 감동시켰다.

사랑하는 부모처자를 일본에 남겨두고 망망한 창해와 험악한 산악을 넘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다가 이국의 산기슭에 조용히 묻힌 일본공산당원의 형상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후덥게 해주고 있다. 소왕청 사람들은 자기네 고장 소학교에 이 국제주의 전사의 이름을 달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교명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

필승의 낙관을 지니시고

김성필 / 구국전선 제466호, 주체91(2002)년 1월 21일



낙관은 정의와 미래를 확신하는 인간의 고상한 정신력이다.

바로 승리를 굳게 믿고 아름다운 미래를 지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의 의지의 발현이 낙관이다.

역사는 정의와 진보를 위한 사람들의 성공과 승리, 미래는 언제나 그를 확신한 낙관에 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나라와 민족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정의의 위업에 대한 필승의 낙관으로 민족자주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신다.

김정일영도자님의 낙관은 민족자주위업의 승리와 미래에 대한 절대불변의 굳건한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에 있다.

그분께서는 수십성상 오로지 필승의 낙관을 지니시고 나라와 민족번영의 최전성기를 안아오시였다.

우리 겨레는 정의를 귀중히 여기고 미래를 끝없이 사랑하는 민족이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겨레를 상대로 외세는 온갖 위협과 고립압살책동을 악랄하게 벌여왔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제재와 봉쇄는 이북의 낙관을 압살하려는 횡포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총대로 개척된 민족자주위업을 총대로 기어이 완성하리라는 필승의 신념과 낙관을 지니신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이북을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무적필승의 자위강국으로 다지셨다.

우리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자주적이고 존엄높은 삶과 행복의 향유자로 보란듯이 내세우실 숭고한 결심과 조국의 미래에 대한 낙관으로 저 북녘땅위에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을 우후죽순처럼 일떠세우신 영도자님이시다.

반만년내의 최대국상과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끈질긴 고립압살책동, 연년이 거듭되는 자연재해.

전대미문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온 나라 민중들을 일으켜 세우신 분도 필승의 낙관을 지니신 **김정일**영도자님이시다.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과 몇년간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인 난관을 겪고 있지만 **김일성**주석님의 유훈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시려는 것이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하지 않는 철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그분의 낙관이시다.

그분께서 북녘땅 방방곡곡에 대한 현지지도의 나날에 하신 귀중한 가르치심과 수많은 말씀마다에도 마디마디 필승의 낙관이 어리어 있다.

내가 왜 바쁜 시간을 내어 예술공연을 보려 하는가. 혁명가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생활을 낙천적으로, 정서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긴장한 일정이지만 공연을 보려고 한다.

언젠가 자강땅 현지지도의 길에서 한분한초가 그토록 분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영도자님께서 하신 이 말씀, 지금도 사람들의 심금을 얼마나 뜨겁게 격동시키는 것인가.

그분께서 지니신 비상한 낙관의 세계가 어리어오는 심중의 의미심장한 말씀이시다.

생활 속에 노래가 있고 노래 속에 투쟁이 있다고 보시며 음악을 생활의 반려자로 삼으시는 것이 **김정일**영도자님의 낙관인 것이다.

하기에 **김정일**영도자님의 낙관은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만드는 무비의 낙관, 필승의 낙관이다.

그분의 낙관을 떠나 이북이 위성보유국으로 등장한 역사의 기적에 대해 생각할 수 없고 총대를 중시하시는 선군영도의 낙관을 떠나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무적필승의 군력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김정일영도자님의 낙관은 온 나라, 전민의 낙관이다.

영수님의 낙관이 아니었다면 이북민중은 열번도 넘어졌을 것이다. 그분의 낙관으로, 그분의 낙관적 기질을 닮아 피눈물의 바다에서 거연히 일어서고 제국주의의 도전에 단호히 맞서 강성대국건설에로 과감히 비약하고 있는 이북의 민중이다.

지난 몇해사이에만도 세계 ≪마라톤 여왕≫으로 명성을 떨친 정성옥영웅을 비롯한 수많은 영웅들이 배출되었다. 그가 체육인이건, 탄부이건, 농민이건, 과학자이건 이북의 전민이 강성대국의 내일을 확신하며 애국의 일념으로 살아가는 낙관의 소유자, 낙천가들이다.

승리는 미래를 낙관하는 정신적 강자의 것이다.

김정일영도자님을 닮아 최후승리를 낙관하는 이북민중의 기질을 당할 자 이세상에 없다.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떨치고 온 겨레를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승리자로 만드는 필승의 낙관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

위대한 영도자님은 낙관으로 승리하고 낙관으로 성공하시는 희세의 낙천가이시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에 의하여 우리 겨레는 머지않아 민족사적 위업을 실현하고 통일강성대국의 영마루위에 기어이 올라설 것이다.

새 세기의 희한한 걸작품으로 창작되고 있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평양 11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평양에서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새로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창작되고 있다.

새 세기에 들어 와 처음으로 창작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내용과 형식, 규모에 있어서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특색 있고 희한한 걸작품으로 완성되게 된다.

작품은 우리 인민의 정서와 넋이 담겨 있고 민족의 슬픔과 기쁨의 력사가 비껴 있는 노래 ≪아리랑≫을 주제해명의 기본수단으로 하고 있다.

작품은 박력 있는 집단체조와 천변만화의 신비경을 이루는 예술공연장면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무쌍한 배경대의 조화 그리고 특대형영사화면과 레이자조명이 예술적으로 잘 배합되여 15만석의 수용능력을 가진 관람장에 황홀한 예술의 세계를 펼쳐 놓게 될것이다.

작품은 민족의 얼이 깃든 명곡들과 민족적색채가 짙은 우아하고 화려한 무용들, 기교 높은 체조와 교예 등으로 형상되게 된다.

모두 4개의 장과 서장, 종장 그리고 10개의 경으로 구성되는 이 작품창작에 국제, 국내콩클수상자들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이름 있는 예술인들과 청소년학생들 연 10만여명이 참가하게 된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주체91(2002)년 4월의 따뜻한 봄계절부터 풍치수려한 릉라도의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되게 된다.

작품창작을 위해 떨쳐 나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 청소년학생들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21세기의 대기념비적 명작으로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선전화, 마크들을 창작



(평양 11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의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여러 창작단위들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선전화들과 마크들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선전화, 마크들에는 주체91(2002)년 4월말부터 6월말까지 평양에서 진행하게 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여러 장면들이 집약적으로 그려 져 있다.

선전화들에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10만명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라는 글자가 있다.

5월1일경기장을 배경으로 화려한 민족옷을 입은 예술인들의 아름다운 률동과 기백 있는 체조동작을 펼쳐 보이는 출연자들의 모습도 형상되여 있다.

평양으로 달려 오는 관람자들의 모습과 ≪아리랑≫의 노래와 함께 전해 오는 남녀의 눈물겨운 리별장면을 반영한것들도 있다.

창작된 마크들도 다양하다.

주마크에는 공화국기의 3색바탕 원형안에 ≪아리랑≫글자와 5월1일경기장에 펼쳐 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장면이 그려 져 있다.

선전화, 마크들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대한 내외인민들의 관심을 더욱 높여 주게 될 것이다.

조선의 집단체조



(평양 11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의 집단체조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꽃체조≫(1930)에 시원을 두고 있다. 집단체조는 조국광복후에 급속히 발전하였다.

주체44(1955)년에 처음으로 그림, 글들을 변화무쌍하게 펼쳐 보이는 배경대를 도입하여 집단체조의 새로운 장을 열어 놓았다.

그리하여 집단체조는 체육적기교와 배경, 음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적이며 대중적인 체육예술로 자기의 면모를 갖추게 되였다.

조선에서는 새형의 집단체조를 창작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 왔다. 광복후부터 지금까지 중요기념일을 계기로 창작된 작품은 80여편, 공연회수는 900여회, 관람자수는 연 1,587만여명, 그중 외국인은 2만여명에 달한다.

이 나날에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2000. 10)은 ≪**김일성**상≫을, 집단체조 ≪천리마조선≫(1964.10), ≪로동당의 기치 따라≫(1970.11), ≪인민들은 수령을 노래합니다≫(1982.4), ≪장군님 따라 붉은기 지키리≫(1996.2) 등 많은 작품들이 ≪인민상≫을 수여 받았다.

조선의 집단체조에 대한 내외인민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 지고 있다.

현재까지 조선의 창작가들은 90여차에 걸쳐 세계 40여개 나라의 집단체조창작사업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10여개 나라의 집단체조대표단을 대상으로 20여차의 강습 및 실습도 조직하였다.

지금 평양에서는 주체91(2002)년에 진행하게 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형식과 규모, 내용에서 최고작품으로 창작되고 있다.

이 작품은 최상의 경지에 도달한 조선의 집단체조의 발전면모를 보여 주게 될 것이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사람들이 큰 관심

(평양 1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대단히 크다.

지금 평양에서는 조선의 력사와 함께 전해 지면서 민족의 감정과 넋으로 정화된 인민적가요를 주제로 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10만명 청년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적걸작으로 창작되고 있다.

평양으로

이것은 새 세기의 희한한 걸작으로 될 ≪아리랑≫을 보려는 세상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말이기도 하다.

얼마전에 창작된 선전화 ≪평양으로≫는 세계적인 걸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관람열을 생동하게 예술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선전화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제목을 눈에 뜨이게 조형적으로 잘 형상하고 있다.

그리고 평양으로 향하는 마음들을 나래를 활짝 펴고 날으는 날새의 모습에 형상적으로 담고 있다.

또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 진행될 장소와 작품의 민족적성격을 직관적으로 잘 제시해 주고 있다.

≪아리랑≫은 오는 4월부터 평양의 15만석 5월1일경기장에서 막을 올리게 된다.

지금 세계의 관심은 인류문화예술의 새로운 경지가 황홀하게 펼쳐 질 조선의 4월의 평양으로 쏠리고 있다.



조선의 귀중한 문화유산 - 민요 ≪아리랑≫

(평양 1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민요 ≪아리랑≫은 조선의 귀중한 문화유산중의 하나이다.

≪아리랑≫은 조선의 력사와 함께 전해 지면서 민족의 감정과 넋으로 정화된 인민적가요로 되였다.

그것은 이 민요가 세기를 이어 오며 민족의 운명사를 반영한데 있다.

따라서 ≪아리랑≫의 변종은 수없이 많다.

백가지곡, 백가지어원, 백가지전설이 있다하여 ≪아리랑≫백설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중에서도 ≪본조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영천아리랑≫, ≪정선아리랑≫ 등 열두아리랑이 대표적이다.

주제와 취급령역도 다양하다.

지방마다 각이하게 불리워 진 ≪아리랑≫은 조선민족의 기쁨과 슬픔,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소박하고 세속적인 생활속의 련정가나 쓸쓸하고 가슴 저미는 리별가, 친구나 이웃들을 그리는 우정가, 앞날에 대한 지향가 등으로 불리워 진 ≪아리랑≫은 하나의 맥락속에 당대 사회의 시대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는것이 특징이다.

또한 부르기 쉽고 통속적이며 비교적 완벽한 예술적품격을 갖추고 있다.

≪아리랑≫은 오늘도 내외 인민들속에 즐겨 불리워 지면서 커다란 예술적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금 조선에서는 이 ≪아리랑≫을 주제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세계적걸작품으로 창작하고 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오는 4월부터 막을 올리게 된다.



기다려 지는 공연무대

(평양 1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는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펼쳐 지게 될 다채로운 공연무대가 내외인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중에서도 풍치수려한 릉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막을 올리게 될 10만명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크다.



현재 본격적인 형상창조에 들어 간 이 작품은 조선의 유명한 민요 ≪아리랑≫을 주제로하여 민족의 운명사와 세태풍속을 대서사시적 화폭속에 펼쳐 보이게 된다.

민족성이 짙은 명곡, 명무용들과 교예, 배경대가 조화롭게 결합된 이 작품은 내용과 형식에서 전례없이 독특하게 형상되고 있다.

평양의 여러 극장들에서 진행하게 될 혁명가극 ≪피바다≫와 민족가극 ≪춘향전≫ 그리고 종합교예와 학생소년들의 예술공연도 이채롭게 준비되고 있다.

21세기에도 변함없이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과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 크게 기여하게 될 혁명가극 ≪피바다≫는 100년, 200년후에도 손색 없을 명작중의 명작으로 호평 받고 있다.

춘향과 몽룡의 사랑관계를 통하여 빈부귀천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대하는 봉건적신분제도를 비판한 민족가극 ≪춘향전≫도 조선의 민족유산을 오늘의 현실과 시대적미감에 맞게 계승발전시킨 본보기 작품이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재능 있는 학생소년들이 출연하는 독창, 합창, 경음악, 무용 등 종합공연과 공중교예 ≪날아 다니는 처녀들≫, 요술, 막간극 등 다채로운 종합교예공연도 관람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다.

백화만발한 좋은 계절에 조선에 오는 손님들은 이 특색 있는 공연들을 통하여 새 세기 문예부흥의 일단을 보게 될것이다.

≪아리랑≫공연준비 활발

대본완성을 끝내고 본격적인 형상창조에로



(평양 1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21세기 대기념비적명작으로 창작되고 있다.

오는 4월 평양의 경치 아름다운 릉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막을 올리게 될 이 작품은 현재 대본완성을 끝내고 본격적인 형상창조에 들어 갔다.

이미 90여매의 배경대 원화가 완성되고 수많은 가요와 관현악곡들이 작품의 성격에 맞게 편곡되였다.

최신과학기술이 도입된 특수무대들과 대형환등기, 대형영사기, 레이자조명기들과 자동단광기, 직광조명기, 색교체기 등 전광설비들로 거대한 경기장의 립체적인 공간을 장식하기 위한 사업도 마지막 단계에 들어 갔다.

작품에서는 대형화, 률동화, 립체화, 과학화 수준이 높은 단계에서 겸비된 배경대의 조화와 함께 번개가 치고 우뢰가 울며 분수가 솟고 무지개가 비끼는 등의 황홀경도 펼치게 된다.

창작가들은 지금 한 겨울속에서도 온 나라 인민들의 기대를 안고 공연의 막을 올리게 될 화창한 봄날에 살고 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고향을 뒤에 남기고 살 길 찾아 타향으로 흩어 져 간 동포들이 망향에 사무쳐 부르던 눈물의 ≪아리랑≫!

이 하늘아래 버들피리 불던 고향 그리워 한숨의 ≪아리랑≫을 넘기는 나그네 몇이며 장장헤여진 리별의 슬픔에 ≪아리랑≫을 호곡하는 사람들 그 몇이던가.

하나 조국 떠난 님의 가슴을 애달프게 흔들던 그 노래는 오늘 행복의 아리랑으로 되였으니 조선은 세계에 목청껏 웨쳐본다. 아리랑노래에 비낀 수난의 어제와 행복한 오늘의 이야기를!…

그 력사적임무를 스스로 지닌 평양은 지금 바쁘다. 년중 제일 아름다운 봄계절에 세계진보적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을 비롯한 수많은 관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성황리에 공연하게 된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조선의 명곡들과 민족무용, 예술체조와 교예, 황홀한 배경미술, 현대적인 장치물과 조명수단들을 총 동원하여 진행하는 종합예술작품으로서 그 규모와 형식, 내용에 있어서 세계예술공연사상 류례 없는 걸작품이다.

작품에는 조선의 이름 있는 국제, 국내콩클수상자들을 비롯한 예술인들과 재능 있는 청년학생들, 귀여운 어린이 등 10여만명이 참가하게 된다.

작품의 제명이 말해 주듯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동방조선이 어떻게 파란 많은 수난의 력사를 거쳐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였으며 오늘은 어떻게 존엄 있는 민족으로 출현하게 되였는가를 ≪아리랑≫노래로써 생활적이면서도 생동한 예술적장면들로 펼쳐 보이고 있다.



작품은 모두 4개의 장과 서장, 종장 그리고 10여개의 경으로 구성되여 있다.

작품은 민족의 얼이 살아 숨 쉬는 명곡들로 음악구성이 째여 있고 민족적색채가 짙은 무용들과 기교 높은 체조로 충만되여 있으며 전설속의 선남선녀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리는 금수강산의 절경을 황홀하게 펼쳐 보이는 장면들이 있는것으로 하여 한번 보고 나면 또 보고 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게 한다. 천변만화의 신비경을 이루는 장면들과 변화무쌍한 배경대의 조화, 특대형영사화면과 레이자조명이 예술적으로 배합된 화폭들로 15만석의 거대한 립체적공간을 예술세계로 꽉 채우게 되는 이 공연에 대한 공연신청은 세계 여러나라 손님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벌써부터 초만원을 이루고 있으며 평양은 이에 대하여 기꺼이 접수하고 있다.

공연은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평양에서 제일 아름답고 풍치 수려한 대동강-릉라도의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하게 된다.

그날은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평양은 손님들을 반갑게 맞아 줄것이다.

동포들이여, 아름다운 그 계절에 꿈에만 어리던 그리운 고향을 마음껏 밟아 보시라! 그리고 릉라도의 금잔디우에서 그리도 슬프던 리별로 반세기를 살아 온 더구나 못 잊을 사람끼리 상봉의 기쁨을 한껏 터치시라.

누구든 직접 와보시라 예술의 극치를!

구국전선 제466호, 주체91(2002)년 1월 21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백화만발하는 4월부터 6월까지 평양에서 10만여명이 출연하는 예술대축제가 열린다고 한다.

민족적 정서가 안겨오는 ≪아리랑≫의 이름으로 펼쳐지게 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천변만화하는 신비경을 이루는 체조와 예술공연장면들, 변화무쌍한 배경대의 조화, 특대형 영사화면과 레이저조명이 배합된 화려한 화폭들로 황홀경을 이룰 것이라고 한다.

장소는 풍치아름다운 대동강의 능라도에 자리잡고 있는 수용능력 15만석의 ≪5.1경기장≫으로 알려져 있다.

관광객들은 평양고려호텔, 양각도국제호텔, 청년호텔 등 일류호텔들에 머무르면서 대동강과 모란봉의 명소들에서 평양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고 이름난 옥류관냉면도 맛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취미에 따라 ≪피바다≫,≪춘향전≫ 등 오페라형식의 민족가극들과 유명한 평양곡예단의 공연도 관람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는 천하명산 묘향산과 고려의 옛 도읍 개성을 찾아 기기묘묘한 절승경개와 선조들이 남겨놓은 민족문화유적들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축제를 직접 와보지 않고는 그 무아경에 대해 상상할 수도 없으며 보지 못하면 일생을 두고 후회할 것이라고 방송은 소개했다.

≪못 보면 일생 후회할 아리랑 공연≫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세계적인 대걸작≫

≪못 보면 일생 후회할 아리랑 공연≫

지난 11일 통일부 정보분석국에서 작성한 ≪북한의 아리랑 공연 관련 동향≫이라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공연관람을 적극 홍보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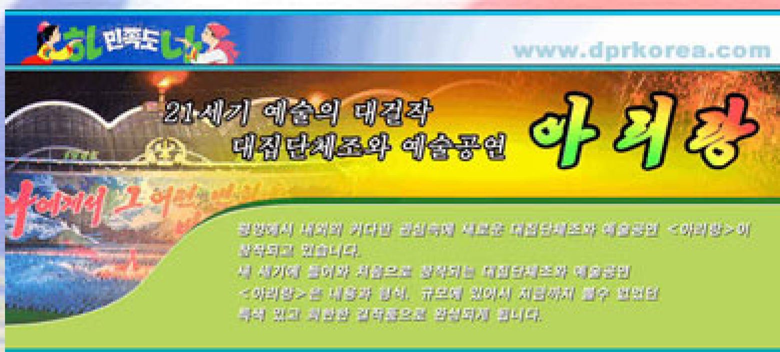
보도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 해 11월 7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첫 창작중임을 보도한 이후 남한과 국제사회를 직접 거론하며 공연참가를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보도자료는 북한이 ≪아리랑≫공연을 주상품으로 하여 평양시내, 묘향산 등과 연계하는 패키지(package)관광상품을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신청 접수중이라고 밝혔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4월말에서 6월말까지 1주일에 6회를 공연하며 입장료는 특등석 300달러, 1등석 150달러, 2등석 100달러, 3등석은 50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당초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고려하여 기본주제를 ≪태양의 노래≫로 하였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예술인과의 담화 후 ≪아리랑≫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한다.

북한은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조선인포뱅크≫(www.dprkorea.com)를 통해 ≪아리랑≫ 공연 관람의 외국 대행사를 모집중에 있어 해외관광객들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북한은 ≪아리랑≫ 축전기간 동안 서해상의 남북 직항 공로를 여는 방안 또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적극적인 공연홍보와 맞물려 남한 관광객들의 대규모 ≪아리랑≫ 공연관람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장동렬 기자 (dlja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1-14



≪北 매스게임 ≪아리랑≫ 준비 이모저모≫

(서울=연합뉴스 2002/01/30) 심규석기자 = 오는 4월 말 막이 오를 ≪아리랑≫의 공연을 앞두고 북한에서는 요즈음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30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판은 30일 ≪아리랑≫공연 준비상황을 분야별로 상세히 소개했다.

▲ ≪아리랑≫은 4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두달간 일요일을 제외하고 일몰을 전후해 매일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 열린다.

천둥소리나 분수, 무지개 등 입체적인 장면을 연출할 대형 스크린과 레이저, 조명기기, 특수효과 장치 등 설치작업은 이미 최종단계에 접어들었다.

카드섹션에 사용될 ≪배경대≫ 즉, 전체 카드그림도 90% 이상 완성됐으며 민요인 아리랑과 계몽기 가요, 가곡, 관현악곡 등 배경음악 작곡도 거의 끝났다.

▲ 한겨울에 연습을 하는 만큼 감기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출연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공연장인 5월1일경기장과 **김일성**광장, 4.25문화회관 앞 광장 등에는 출연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아리랑 의료진≫까지 배치됐다.

한 관계자는 ≪의사가 감기에 걸린 학생들에게 좀 쉬라고 권유해도 듣지 않고 연습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병이나 부상을 숨기고 연습하는 출연자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각 지방으로부터 방한용품 등 연습에 필요한 지원물자와 격려편지가 속속 도착하고 있다.

▲ 호텔업계는 호황을 기대하면서 정초부터 건물 수리 · 정비에 들어갔다.

평양여관의 경우 보수기간에 이곳에 있던 조선신보 평양지국도 잠시 고려호텔로 자리를 옮겼다.

특급호텔인 고려호텔 역시 객실 자물쇠를 카드키로 교체했고 해방산여관을 비롯한 여러 호텔들도 보수작업이 한창이다.

▲ 국가관광총국, 국제여행사, 국제청소년여행사 등 북한 관광업체들은 아리랑 공연을 중심으로 춘향전이나 피바다 등 가극 관람, 평양시내 관광, 서커스 관람 등을 엮어 2박3일짜리 관광코스를 개발해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조선중앙텔레비전도 이달부터 5분 분량의 홍보물을 방영하면서 주민들에게 공연소식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조선신보는 덧붙였다.



≪北금강산-원산-평양 육로개방≫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 최근 금강산을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과 함께 방문하고 돌아온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21일 ≪4월29일부터 6월29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아리랑축전≫ 기간에 북한이 남한측 관광객에게 금강산-원산-평양의 육로를 개방하겠다는 제의를 남측에 했다는 사실을 김사장에게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금강산 관광지역 일대의 관광특구 지정문제에 대해서도 ≪김사장으로부터 북측이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특구 지정은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와 컨소시엄 구성 등 사업추진주체 구성, 사업대금 지불방식등과 맞물려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관광특구 지정문제는 북측이 그동안에도 몇차례 추진의사를 밝혀왔으나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번에도 구체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그 실현 가능성을 자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북측이 남북 당국자간 대화에 다시 나설 뜻을 김 사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남북간 고위당국자 회담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리랑 축전, 통일에 결정적 국면 마련할 수 있어≫



≪≪아리랑 축전≫을 계기로 교류협력, 대화에서 성과를 낸다면 통일에 있어 결정적인 국면을 마련할 수 있다.≫

정영철(민족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30일 오후 5시 인사동 태화빌딩 회의실에서 (사)한민족아리랑연합회와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 ≪아리랑축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남과 북 공동의 축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리랑축전≫을 계기로 본 남북교류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정영철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주장한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한다≫는 선언과 합동회의를 통해 발표한 ≪3대호소≫ ≪3대제의≫의 구체적인 방법과 계기가 ≪아리랑 축전≫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북은 ≪아리랑 축전≫을 통해 외화벌이, 관광개방 준비작업이라는 목적 외에 남과 북의 대화의 매개체 역할뿐만 아니라 북미간의 전향적인 대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정 연구위원은 ≪≪아리랑 축전≫을 계기로 남과 북이 공동의 축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남측은 불필요한 오해와 북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과감히 거두어들이고 정부당국자간 대화와 협상을 재개 ▲아리랑 축전을 통해서 민간급 대화와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 ▲지난 남북 교류의 교훈을 삼아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양측이 노력 ▲과거의 일방의 행사에 참가하는 형태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행사를 열고 지속시킬 수 있는 통일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북한의 아리랑 실상과 인식(최근의 상황을 중심으로)≫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연갑(사, 한민족아리랑연합회) 상임이사는 ≪아리랑은 민족의 화해를 위해 남겨진 마지막 실마리≫라며 ≪공연과 직접적 참여 등에 정부가 힘있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상임이사는 함께 하는 ≪아리랑 축전≫을 위해 남측의 ≪아리랑 예술단≫이 이 축전에 공연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수(천주교 중앙협의회 사무총장) 신부는 ≪아리랑 축전이 월드컵 행사와 연계해서 공동의 한반도 축제로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에 정부 당국자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 김 신부는 ≪아리랑 축전≫과 여러 행사의 병행 필요성을 들면서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 준비위원회≫ 실무대표들을 통해 월드컵과 아리랑 축전을 연계해 한반도 축전으로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박갑수 교수도 이번 ≪아리랑 축전≫이 ≪저항과 투쟁성보다 극복성과 화합성이 많은 걸 인정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족21≫의 이찬행 대표는 우리의 시각으로 ≪아리랑 축전≫을 재단하는 일부의 시각을 우려하면서 ≪아리랑 축전≫은 남측의 월드컵 행사에 북한을 염두에 둔 테러가능성과 연결돼 있기에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아리랑 축전≫이 남북의 축전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세미나는 북미관계의 난항으로 남북간의 주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아리랑 축전≫을 민간이 함께 고민해 보는 첫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뿐만 아니라 이번 축전이 단순한 ≪관광≫차원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있어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에서 새로운 계기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송정미 기자 (tongil@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1-31

≪아리랑≫관련 구국의 소리 뉴스 모음

1월 16일

이북 ≪노동신문≫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준비로 들끓는 평양을 소개하면서 이 공연관람에 세인들을 초청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노동신문≫ 1월 15일자는 ≪인류문화역사상 최고수준에서≫라는 글에서 화창한 봄날에 평양에서는 인문문화예술의 최절정을 이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무대가 화려하게 펼쳐질 것이라면서 ≪아리랑≫을 볼 기회를 놓친다면 그가 누구든지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천변만화하는 신비경을 이루는 체조와 예술공연장면들, 변화무쌍한 배경대의 조화 그리고 특대형 영사화면장면과 레이다조명이 배합된 화려한 화폭들로 관람장의 거대한 공간을 꽉 채우게 될 최대의 걸작 ≪아리랑≫은 4개의 장과 서장, 종장 그리고 10개의 경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창작가들과 10만여명에 달하는 출연자들은 작품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완성해 세상을 들었다놓을 결의에 넘쳐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 15만석의 수용능력 등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5월 1일경기장도 ≪아리랑≫공연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훌륭히 꾸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은 대집단체조와 ≪아리랑≫을 보러 평양에 오게 되면 관람자들의 희망과 요구에 따라 여러 곳을 관람할수 있으며 예술공연들도 볼수 있다면서 평양고려호텔, 양각도 국제호텔, 평양호텔 등에서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화창한 봄날에 잊지 말고 평양으로 오시라면서 국가관광촌국, 조선국제여행사, 조선국제청소년여행사 등에서는 손님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월 17일

이북 ≪노동신문≫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준비로 들끓는 평양을 소개하면서 이 공연관람에 세인들을 초청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노동신문≫ 15일자는 ≪인류문화역사상 최고수준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화창한 봄날에 평양에서는 인류문화예술의 최절정에 오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무대가 황홀하게 펼쳐질 것이라면서 이것을 볼 계기를 놓친다면 누구든지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천변만화하는 신비경을 이루는 체조와 예술공연장면들, 변화무쌍한 배경대의 조화 그리고 특대형 영사화면과 레이다조명이 배합된 화려한 화폭들로 관람장의 거대한 공간을 꽉 채우게 될 최대의 걸작, 창작가들과 출연자들은 작품완성을 위한 열의로 끓고 있다면서 신문은 10여만쌍에 달하는 출연자들은 작품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완성해 세상을 들었다놓을 결의에 넘쳐 있다고 전했습니다.

4개의 장과 서장, 종장 그리고 10개의 경으로 구성되게 되는 작품의 **는 성공적으로 진척시키고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습니다.

1월 18일

이북에서 인류문화역사상 최고수준으로 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준비로 들끓고 있다는 소식에 접한 각계에서는 그것을 하루빨리 보고싶은 희망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연예인 김모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자니 이북에서는 인류문화예술의 최절정을 이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준비가 성과리에 추진돼 가고 있다고 한다. 인류문화역사상 최걸작으로 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기 위해 벌써부터 평양행바람, 이북관광권예약붐이 세계적 판도에서 일고 있다고 한다.

천변만화하는 신비경을 이루는 체조와 예술공연장면들, 변화무쌍한 배경대의 조화 그리고 특대형 영사화면과 레이저조명이 배합된 화려한 화폭들로 관람장의 거대한 공간을 꽉 채우게 될 최대걸작, 생각만해봐도 가슴 벅차 오른다.

그러나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고 평양에 직접 가서 보지않고서는 작품의 눈부신 황홀경을 가늠할수도, 상상할수도 없을 것이다. 정말 평양에 직접 가서 공연을 관람하고 싶은 마음을 금할수 없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볼 기회를 놓친다면 그야말로 그가 누구든지 두고두고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인천시에 살고 있는 사학자 이모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봄날 평양에서 진행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직접 가서 보고싶은 마음을 금할수 없다. 더욱이 이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희망과 요구에 따라 평양과 지방의 명소들과 대기념비적 건축물들도 보여준다고 하니 일생을 사학연구에 몸담아온 나로써는 평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진다. 사진으로만 보아오던 우리 민족의 5대 명산 중의 하나인 묘향산과 우리 민족의 보물고인 국제친선관람관 등 유구한 민족문화유적들을 직접 가서 보기만해도 한이 없겠다. 따뜻한 봄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하루빨리 평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진다.≫

이집트신문 ≪알 시아시≫ 3일자가 ≪평양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 진행된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집단체조의 고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선의 수도 평양에서 역사에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준비되고 있는데 대해 전했습니다.

민족의 정서와 넋이 담겨져 있고 민족의 역사가 비껴 있는 노래 ≪아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민족적 색채가 짙은 음악과 무용, 체조, **등 여러 가지 형식의 뜻깊은 내용들을 담아 펼쳐보이게 된다면서 신문은 이 공연에는 이북의 이름있는 예술인과 청소년학생들 10만여명이 참가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세상에는 이러한 형식과 규모의 걸작이 있어본 적이 없다면서 신문은 지금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북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볼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월 19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창조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민문화예술의 보물고를 이채롭게 장식하게 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창조에 떨쳐나선 예술인들과 창작가, 투쟁가들, 근로자들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작품을 최상의 수준에서 형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서장으로부터 종장에 이르기까지 ** ******노래, **, 무용동작 하나하나가 부드러우며 매혹적이고 신비한 것으로해 들을 멋이 있고 볼 맛이 있는 21세기의 대기념비적 명작으로 형상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는 대형화, 율동화, 입체화, 과학화수준 높은 단계에서 전개돼 배경대의 조화와 함께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우는가 하면 물분수가 솟아오르고 7색 무지개가 비끼는 등 황홀경을 펼쳐놓게 됩니다.

전례없는 독특한 내용과 형식, 방대한 규모로 창작되는 이 작품은 본격적인 형상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집단체조, 예술공연창작가들은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대형구도와 ***, 체조동작 하나 하나를 보다 새롭고 특색있게 창작하기 위해 온갖 정열을 쏟아붓고 있으며 출연자들 역시 높은 기교의 체조, 무용동작들을 완성하기 위해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작품에는 최신과학기술성과들이 이용되는 것과 함께 특수무대들과 대형***, 대형영사기, 레이저조명기술과 같은 대형설비들과 자동전광기, 색**기 등 많은 전광설비들이 이용돼 5월 1일경기장의 거대한 입체적 공간을 황홀하게 장식하게 됩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세상에 둘도 없는 희한한 결작품으로 만들려는 창작가, 출연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발을 맞추어 이북의 전역에서 작품창조에 이바지하려는 각계층 민중들의 뜨거운 마음이 평양으로 세차게 굽이치고 있습니다.

걸음들이 쏟아지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관람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훌륭히 완성되게 될 것이라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1월 22일

지난 15일 서울의 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야인사 김모씨가 이북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접하고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의 집단체조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대걸작이다. 제작년에 북을 방문했을때 집단체조를 직접 보면서 나는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북의 집단체조는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재현하거나 모방할수 없는 세계제일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만발한 화원이 유능한 원예사의 창조품이듯이 만사람이 경탄을 금치 못하는 이북의 신비한 집단체조도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장군님은 만사에 능통하시고 다박다식하신 천재이시고 정치의 거장이시다.≫

그러면서 그는 이북에서 우리 나라 전통민요인 ≪아리랑≫을 가지고 준비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도 아름다운 율동과 고도로 조직화된 짜임새로 하여 만사람의 경탄을 자아낼 것이 분명하다며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고 진짜 예술이 꽃피고 있는 평양에 가서 집단체조를 꼭 보자고 말해 동료들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1월 26일

이북에서 우리 겨레와 전 인류를 위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사상최고수준의 대걸작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각계 민중들속에서 갈수록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부산시 동래구에서 사는 이모씨는 평양에서 인류문화역사상 최고수준에서 진행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준비가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을 금치 못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지않아 평양에서는 인류문화예술의 최절정을 이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무대가 황홀하게 펼쳐지게 된다고 한다. 우리 민족의 전통가요인 ≪아리랑≫을 제명으로 단 것부터가 흥미를 끈다. 민족의 넋이 살아 맥박치고 신비경을 이루는 체조와 예술공연장면들, 변화무쌍한 배경대의 조화 그리고 특대형 영사화면과 레이다조명 등 첨단과학기술이 배합된 ≪아리랑≫의 화려한 화폭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과연 인간의 창조물인지를 의심케 할 정도라고 한다. 벌써부터 지구촌 곳곳에서 평양행바람, 이북관광권예약붐이 일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이북이 새 세기를 맞이한 단계에서 인류에게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본다. 아리랑이 시작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 마음은 벌써 아리랑의 황홀한 무대가 펼쳐진 평양에 가 있다.≫

인천시에 건축학에 종사하고 있는 김모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양은 지금 인류문화역사상 최고수준에서 진행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공연관람에 지구촌을 부르고 있다. 아직은 추운 겨울이건만 나의 마음은 벌써부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진행될 평양으로 향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평양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물론 평양과 지방의 명소들과 대기념비적 건축물들을 보여준다고 하니 일생을 건축학에 몸담아온 나로써 이번 평양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화창한 봄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민족의 본향, 통일의 성도인 평양에 직접 가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금할수 없다.≫

아리랑 축전을 파시즘 정치예술이라고 한 조선일보의 반통일적 논평에 대하여

≪조선일보는 1월 11일자 만물상≫ 난에 아리랑 축전 집단체조에 대한 글에서 ≪그것은 북이 집단체조를 관광상품화 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며 한마디로 ≪파시즘적 정치예술≫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통일연대는 조선일보가 북의 아리랑 축전과 10만명 집단체조에 대해 심대하게 왜곡된 견해를 전파하고 있다고 보는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출한다. 조선일보는 지금 북이 미국의 봉쇄정책과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대단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타개해나갔는지에 대해 왜곡 없이 바라보아야 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은 정확하지도 않은 근거로 이북핵무기 개발 운운하며 경제봉쇄 정책을 통한 이북 붕괴를 꾀하다가, 현재는 아프간 전쟁이후 확전을 노리고 있는 미국이 이북의 대량살상무기개발을 운운하며 지속적으로 적대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 부시정권은 적대정책 포기의사를 비롯한 테러반대를 천명한 2000년 10월 12일 북미공동선언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치면서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감축 등에 대하여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하고 있다.

반면 이북은 미국과 적대정책 포기, 테러반대 북미공동선언발표, 반테러 국제협약 가입 등 전 세계 평화와 국제친선을 위한 실질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북은 올 봄에 진행할 아리랑 축전을 세계평화를 위한 메시지라고 밝히고 있다. 즉 전쟁을 선호하지 않으며 간절히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바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 민족인 이남이 6 · 15공동선언 이후 발전되어온 민족대화합과 단결의 분위기를 발전시켜 이북이 준비하고 있는 아리랑 축전에 거족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북 민중들이 스스로 결심하여 매진하고 있는 ≪아리랑 축전≫과 ≪10만명이 참가하는 집단체조≫를 ≪관광상품개발≫이니 ≪파시즘적 정치예술≫이니 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조선일보가 평하듯이 이북의 집단체조는 전세계적으로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따라서 훌륭한 예술작품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예술적 가치를 응당하게 평가받고 관광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북의 예술적 행위를 관광상품개발이니 파시즘적 정치예술이라고 폄하하여, 오히려 미국과 동조하여 한민족인 이북에 대한 적대적 의사를 서슴없이 밝히고 있는것이다.

조선일보는 파시즘체제하에서 세인을 놀라게 하는 10만명의 집단적 예술품을 창조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10만명이 일치단결하여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 정성에 대하여 놀라움과 감탄을 보여주지는 못할지언정 파시즘 정치예술이라고 떠들어내는 자체가 조선일보의 시각이 얼마나 왜곡되고 편협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설령 이북이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 남쪽 정서로서는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북을 같은 민족의 관점에서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만 그들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을 돈벌이의 관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선전활동 등으로만 본다면 한반도에 화해와 단결은 결코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일관되게 반통일 반민족적인 자신의 견해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이제 6 · 15공동선언으로 조선일보의 일련의 반통일행위에 대한 죄상은 남한 국민들 앞에 낱낱이 들어 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민족을 적으로 몰아가는 더 이상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바란다.

2002. 1월 17일
6 · 15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북측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 호소를 환영한다 (범민련 남측본부)

지난 22일 북측은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를 열어 해내외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3대 호소, 3대 제안을 보내왔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번 합동회의의 3대 제안, 3대 호소가 민족의 통일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기 위한 애국적인 발기라고 인정하면서 전적인 공감과 지지를 표명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민족통일의 지름길이며, 유일한 길이다. 남과 북이 함께 합의한 공동선언에 근거해야 공동의 원칙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으며, 남과 북 온 겨레가 단결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합동회의의 3대 호소인 ≪6.15 공동선언 고수 이행, 남북관계 진전과 조국통일운동 활성화, 통일 장애요소 제거≫가 6.15 선언의 정신과 민족통일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그 안 에는 북녘 동포들의 통일의지가 굳게 담겨 있음을 확신한다.

또한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하고 남북공동선언 발표 2돌인 올해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정하며 5월부터 7.4 공동성명이 발표된 7월을 거쳐 조국이 광복된 8월까지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으로 하자는 제안은 온 겨레의 통일행진을 더욱 힘차게 추동할 수 있는 구체적 방도라는 점에서 기쁘게 환영한다.

6.15 공동선언이 열어 놓은 통일의 길을 따라 그 동안 남북관계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남과 북 온 겨레의 가슴속에 통일의 신념과 지향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올해는 6.15 공동선언 채택 2돌을 맞는 해이면서 동시에 남과 북에 커다란 국제적 행사들이 연이어 개최되는 해이다. 이러한 때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전 세계 인류 앞에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과시하고 온 강토에 통일과 평화의 기운을 차 넘치게 해 통일의 기세를 되돌릴 수 없는 확고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올해 남과 북 해외 모든 구성원들이 6.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 활발한 공동행동을 벌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또한 북녘 동포들의 이번 제안에 대해 남녘의 정부, 정당, 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아래 활발한 공동의 실천을 전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002년 1월 2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북측의 남북대화의 재개와 활성화 의지를 환영하며 (민화협)

북한이 지난 1월 22일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를 열고 남북대화를 재개할 뜻을 밝힌 것을 환영하면서, 6차 장관급 회담 이후 막혀 있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새해를 맞이해서 얼어 있던 남과 북 사이를 녹이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이번 제안이 남북 대화의 재개를 알리는 훈풍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북한이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점들이 엿보인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강조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당국 사이에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도 남북 당국간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사항을 실천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러한 약속에 따라서 남북 당국은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서 장관급회담을 개최하였으나 6차 장관급 회담이 결렬되면서 다음 회담에 대한 약속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남과 북 어느 쪽에 묻기에 앞서서, 언제 당국간 회담이 다시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 자체가 6.15 선언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임을 남북의 당국은 명심해야할 것이다.

민간통일운동을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번 합동회의에서 우리 민족끼리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당국과 민간단체들이 중요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한 것은 지난 5차장관급 회담에서 당국간 대화 협력과 함께 민간차원의 접촉, 왕래, 협력사업 지원을 약속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환영한다.

북한이 5월부터 8월까지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으로 할 것을 제의한 것에 대해서도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민간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자는 뜻이라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다.

다만 우리는 북한이 통일을 가로막는 요인들을 제거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며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 우리들의 한결같은 뜻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북한이 제기한 몇 가지 요인들을 전면에 내걸기보다는 남북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꾸준히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는 북한의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의 결과를 보면서 현재 남과 북의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의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간차원의 남북 교류를 교훈 삼아서 올해는 남북 민간교류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002년 1월 24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변인 李秀彦

이북의 3대 호소와 3대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충청총련)

올해를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지 2돌을 맞이하게 된다. 통일진군의 역사는 올해에도 계속되어야 하며, 온 겨레와 민족은 6.15공동선언을 관철할 의지에 다시금 충천해 있다. 이러한 역사의 요구와 민족의 의지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새해 연초부터 각계 각층 민중들은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방향 모색에 여념이 없다. 그러한 시기 이북의 정부, 정당, 단체의 연석회의를 통한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는 6.15공동선언 이행의 확고한 의지로 되며, 방향성 제시로되고 있다. 충청총련 이러한 이북의 적극적인 제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함께 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이북에서는 먼저 자주통일의 기치인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이행할 것,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통일운동을 활성화 할 것,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장애하는 요인들을 제거할 것에 대하여 호소하고 있다.

세가지 호소는 모두 6.15공동선언 정신 그대로이며, 6.15공동선언 이행의 지름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전체 통일 애국세력이 작년 한해에도 공동선언 이행을 위하여 한결같이 지켜 나아갔던 길이며, 올해의 전망에 비추어 보아서도 전적으로 합리적인 호소이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것은, 지난 2년간의 교훈이며, 내외의 반통일 세력 척결과 반통일적 법적 제도적 장치의 철폐 없이 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은 55년간의 교훈이다. 특히 6.15공동선언의 철저한 고수와 이행은 조국이 통일되기 전까지 한결같이 지켜 나아갈 전체 민족의 의사이며, 강령적 기치이다.

다음으로 이북은 2002년을 공동선언 이행의 새로운 국면을 창출하기 위한 제의를 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2002년을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제시할 것, 둘째 역사적인 공동선언 발표 날인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재정할 것, 마지막으로 5월부터 7월4일 7.4남북공동성명 발표일을 거쳐 조국이 광복된 8월까지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으로 설정할 것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우리는 이북의 3가지 제의를 통해 조국통일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한 이북 정부 정당 단체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두말 할 필요도 없이 3가지 제의의 실행은 2002년을 또다시 통일운동의 촉진의 해로 빛내이게 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6.15공동선언의 첫째 조항이며 기본 정신으로 되는 ≪우리 민족끼리≫의 민족 주체의 힘을 믿고, 전체 민족의 힘으로 통일하겠다는 의지에 전적으로 부합하며, 통일로 내 달리기 위한 방향 제시로 된다.

충청총련은 이북의 정부 정당 단체의 호소에 다시 한번 전폭적 지지와 절대적 환영의사를 표명한다. 또한 이북의 이와 같은 호소와 제의가 당면의 통일정세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내외의 반통일 세력을 척결하고, 하루라도 빨리 조국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길임을 확신하며, 적극적 이행과 관철의 뜻을 천명한다.

6.15공동선언은 변함없는 통일의 이정표이며, 단결의 표대이다. 충청총련은 6.15공동선언 이행의 길에 통일이 있음을 확신하고, 6.15공동선언을 기준으로 단결하고, 통일 운동에 적극 발맞추어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충청총련은 내외의 반통일 세력의 책동은 단호히 반대 배격하고, 민족의 단합과 단결에는 적극적 이행으로 2002년 한해를 살아갈 것을 결의하고 있다. 다시금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6.15공동선언을 변함 없이 고수 이행 할 것을 심장으로 결의하고, 반드시 지켜 나아갈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2002년 2월 23일
애국의 열정 승리의 확신
9기 충청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건)

북녘 동포들의 호소문을 적극지지 환영한다 (대전충남 통일연대)

1월 22일 북녘의 동포들은 정부, 정당,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6.15공동선언 2해째를 맞는 올해를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해로 만들자 결의하고, 해내외 동포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채택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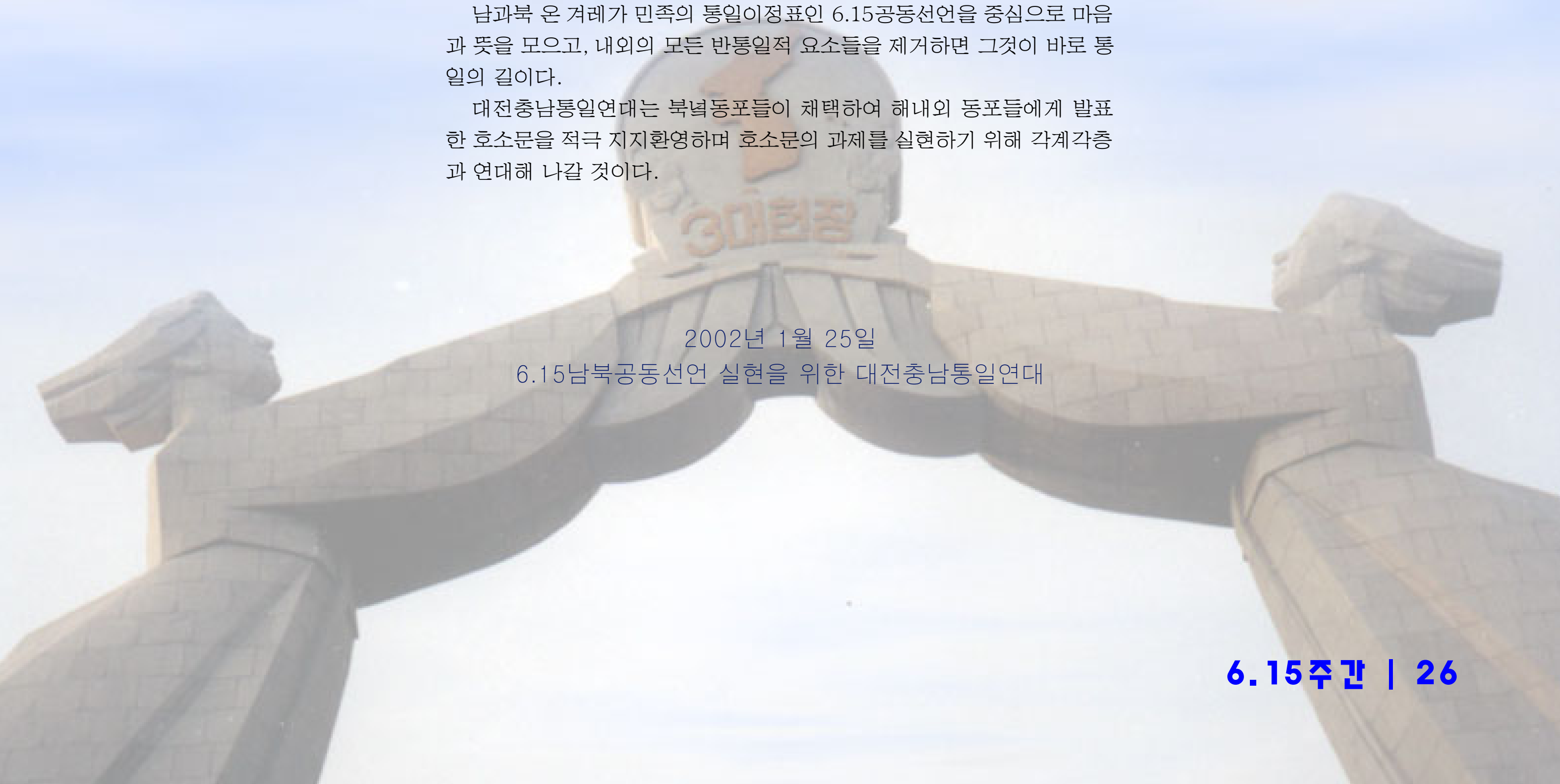
대전충남통일연대는 먼저 북녘의 동포들이 일심단결하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내기 위한 확고한 의지로 3대 호소와 3대 제의를 한 것이 내외에 조성된 정세를 정확히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통일운동의 본성과 전도에도 부합하는 너무도 정당한 애국애족적 발기이기에 호소문에 적극 공감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함께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북녘의 온 동포들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를 올해 우리 민족이 들어야 할 자주통일구호로 제시하고, 우리 민족에겐 통일의 이정표도 있고, 통일을 이룰 힘과 지혜도 있다고 하며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나설 것을 호소하고 있다. 북녘동포들의 호소문은 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지키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통일운동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는 것,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장해하는 요인들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하고, 6월 15일을≪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그리고 5월부터 8월까지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우리는 민족의 반쪽인 북녘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동회의를 통해 6.15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이정표로 다시금 확인하고, 공동선언의 정신과 내외 조성된 정세에 맞게 이의 실현을 위한 확고한 의지와 정확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것은 우리 민족이 통일을 만들어 가는데 너무도 정당하고 시기적절한 발표이자 토대라 생각한다.

남과북 온 겨레가 민족의 통일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중심으로 마음과 뜻을 모으고, 내외의 모든 반통일적 요소들을 제거하면 그것이 바로 통일의 길이다.

대전충남통일연대는 북녘동포들이 채택하여 해내외 동포들에게 발표한 호소문을 적극 지지환영하며 호소문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각계각층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02년 1월 25일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대전충남통일연대

이북동포들의 호소문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광주전남연합)

올해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두 돌을 맞는 해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의 핵심은 ≪우리민족끼리≫ 라는 자주적 원칙이다. 이는 조국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며 조국통일을 열어나가는 힘도 우리 민족에게 있다는 드높은 확신에 기초하고 있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조국통일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은 높으며 그 기세는 통일의 문으로 성큼 다가가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이 미국의 대북 강경 책동과 이에 부화 뇌동한 반통일세력의 발호 때문에 일정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 이때에 이북에서는 1월 22일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 명의의 3대 호소와 3대 제의를 발표하였다.

이북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은 철저히 이행, 고수되어야하며 남북관계는 진전되고 조국통일운동은 활성화되어야하고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장애 하는 요인들은 제거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하고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 15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정하며 5월부터 7.4공동성명이 발표된 7월을 거쳐 조국이 광복된 8월까지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은 조국통일의 원칙과 방도가 밝혀져 있는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이북의 호소를 현 정세를 정확히 반영한 뜻깊은 호소로 보고 열렬히 환영한다. 3대 호소와 3대 과제에는 올해 조국통일의 과제와 그 실현을 위한 방도가 정확히 밝혀져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이 조국통일의 길임을 만방에 과시하였으며 공동선언이행에 우리 민족이 가져야할 원칙을 밝히고 그 방해세력을 제거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은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내외 반통일세력을 제거하여 전 민족의 대 단결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또한 승리의 열쇠는 단결이기에 615남북공동선언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연합을 활성화하여 올해를 조국통일의 뜻깊은 한해로 만들어 갈 것이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2001년 1월 26일

북의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에서 채택된≪호소문≫을 열렬히 환영한다 (한총련)

한총련 백만 청춘이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영예로운 돌격부대가 되자

1월 22일 북에서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가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7천만 겨레가 단합을 도모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한 당면대책에 대한 토의와 해내외 동포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먼저 북측에서는 올해를 새 세기의 두 번째 해이며,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행에서 전환적 의의를 가지는 2돌이 되는 해라 밝히며,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구호를 7천만 겨레 앞에 제시하였다.

또한 북은 첫째, 자주통일의 기치인 6.15 남북공동선언은 철저히 고수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 남북관계는 진전되고 조국통일운동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는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장애하는 요인들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3대 호소를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신심과 낙관을 갖고서 호소하였다.

또한 올해를 조국통일의 중대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하고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정하고 5월부터 7.4 공동성명이 발표된 7월을 거쳐 조국이 광복된 8월까지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에서 제안한 ≪3대호소≫와 ≪3대제의≫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애국적이며 민족 주체적인 발기이다. 하기에 7천만 겨레는 ≪3대호소≫와 ≪3대제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하며, 실천의 결의를 높이고 있다.

2001년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위력성과 생활력이 온 세계 만방에 과시된 자랑찬 해이다. 7천만 겨레는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남북공동선언 실천의 길로 나섬으로써 2001년 조국통일의 문을 힘있게 열어놓은 긍지 높은 해로 총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길로 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과 반통일 세력들은 호시탐탐 공동선언을 파탄 내고자 발악을 하며 다시금 대결과 대립의 시대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7천만 겨레는 민족자주의 입장을 더욱 철저히 지키고, 외세공조가 아닌 민족공조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절절히 가슴에 새기고 있다. 또한 현재 우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새전쟁도발 책동 속에서 7천만 겨레는 더욱 민족자주를 높이 치켜들고 공동선언 이행의 길로 나갈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6.15 공동선언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 없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며, 더욱 철저히 고수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이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6.15 공동선언 이행의 길로 나설 때 당면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새전쟁도발 책동은 분쇄될 것이며 7천만 겨레의 단결의 힘은 더욱 강위력해지고 조국통일은 빠르게 이룩할 수 있다.

2002년, 한총련 백만 청춘은 민족자주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기 위해 6.15 남북공동선언이행에 더욱 앞장 서 나갈 결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속에서 6.15를 방해하고자 하는 세력에게는 민족의 이름으로 심판을 내릴 것이며,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애기 위한 투쟁은 끝장을 볼 때까지 전개할 것이다.

≪3대호소≫, ≪3대제의≫를 실천하는 길에서 한총련 백만 청춘은 가장 앞자리에 서 있을 것이며 그 기세대로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돌격부대로써 영예로운 임무를 끝까지 수행할 것이다.

우리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1월 28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0기 한총련(건)

한미전쟁공조책동을 성토함

새해를 맞은 우리 민중은 올해에 6.15공동선언이 순조롭게 이행되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이 열려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는 우리 민중의 부풀어 오른 희망과 기대와는 상반되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미국 부시정권의 호전심복들이 이 땅에 꼬리를 물고 날아들고 있다.

지난 3일 서울에 기어든 3명의 국회의원은 미국이 이북을 걸고 들며 악랄하게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의 지지자들이며 17일에 날아든 미하원의장을 위시한 공화당패거리들은 악명높은 ≪주전론≫자들이다.

뒤이어 이 땅에는 미국의 ≪전쟁내각≫우두머리들인 미국방장관 럼스필드와 미합참의장이 날아들 예정이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오는 2월 중순에 침략전쟁의 괴수인 부시가 직접 전쟁사환꾼들을 끌고 서울행각에 나서기로 한 것 이다.

봄철도 아닌 엄동설한에 줄지어 이 땅에 쓸어들고 있는 이들은 결코 ≪평화의 사도≫도, 한가로운 ≪관광객≫들도 아니다.

이 땅에 날아드는 자들마다 찾는 곳은 미침략군기지들과 최전방군부대들이며 그들이 벌여놓고 있는 꿍꿍이들은 ≪한미군사공조체제≫강화를 위한 화약내 짙은 전쟁모의 뿐이다.

한국은 지금 워싱턴의 전쟁불청객들로 붐비고 전쟁모의판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중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미 호전적인 부시정권의 출범으로 이 땅에서는 6.15공동선언이행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었고 화해와 단합에로 나아가던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에로 치닫고 한반도에는 신냉전의 기류가 확산되게 되었다.

보라! 그 죄악의 진상을!

부시는 백악관에 들어 앉자마자 있지도 않는 이북의 핵문제, 미사일문제는 물론 ≪재래식무기감축≫문제까지 거들며 남북관계개선에 제동을 걸고 동족간의 대결을 조장하기에 열을 올려왔다.

≪9.11≫사건이후에는 한반도에 기동타격무력을 급속히 전개하는 것으로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아프간전쟁이 결속단계에 들어서게 된 오늘날에 와서는 ≪반테러전쟁의 다음 목표는 이북≫이라는 도발적인 폭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노골적인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고 있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북침을 위한 미제의 무력증강책동이 수수방관할 수 없는 위험단계에 이르렀다.

워싱턴의 군수업체들에서는 북침전쟁을 위한 초강력지하관통무기로 개발된 ≪디프디거≫, ≪AGM-86D≫로 불리우는 최첨단살인무기들이 다량생산에 들어갔으며 사정거리가 300km인 신형미사일까지 한국으로 다량반입되고 있다. 한반도주변에는 미항공모함전단을 비롯한 대규모의 침략무력이 배치된다고 한다.

부시정권의 이 같은 책동으로 말미암아 6.15공동선언발표후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던 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밀려들고 있다.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부시가 전쟁상인들을 끌고 이 땅에 날아드는 것은 남북관계개선을 차단하고 이남당국자들을 저들의 전쟁전략에 끌어들여 무모한 북침전쟁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전쟁행각이다.

사태는 6.25직전에 있은 덜레스의 전쟁행각을 방불케 하고 있다.

아프간에 대한 침략전쟁의 불꽃이 바야흐로 극동의 한반도에로 튕길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

더욱이 참을 수 없는 것은 ≪9.11≫사건이 일어나자 전역에 ≪비상경계령≫을 하달해 정세를 긴장시켜 남북관계를 교착상태에 몰아넣은 이남의 군당국자들이 오늘에는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에 맞장구를 치며 합세해 나서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주적불변론≫을 제창한 국방부장관 김동신은 ≪올해에는 한미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는가 하면 외교통상부장관 한승수는 ≪한미동맹강화를 올해 외교의 기본축으로 삼고 어느 해보다도 한미안보동맹관계를 확고히 해나가야 한다≫고 떠벌였다.

분노의 피가 끓게 하는 매국배족의 반역넉두리가 아닐 수 없다.

통일을 위해서는 외세와 공조할 것이 아니라 동족과 공조해야 한다.

외세와의 공조는 매국이고 동족과의 공조는 애국이다.

그런데 함께 손잡고 통일해야 할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이북압살을 노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적극 가담하며 반북대결과 북침전쟁책동에 공모해나선 이남의 군부호전세력이야 말로 현대판 ≪을사오적≫의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해 우리 민족통일의 길을 차단하고 중앙아시아에서 도발한 전쟁의 불길을 극동의 한반도에로 확대하려는 미국부시정권의 전쟁확대책동에 야합해 나선 이남 호전세력의 공모결탁행위로 오늘 이 땅에서는 6.15공동선언이 백지화되고 남북관계가 대결의 원점으로 돌아갈 엄중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결은 전쟁이며 전쟁은 민족공멸이다.

우리는 이 엄중한 사태를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다.

민족공동의 자주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하여 이 땅에서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려는 것은 우리 민중, 우리 민족의 드팀없는 의지이고 확고한 결심이다.

내외반통일호전세력들의 그 어떤 책동도 우리 민중, 우리 민족의 이 불같은 통일지향과 의지를 절대로 막을 수도 꺾을 수도 없다.

지금 경향각지에서는 미국과 그에 야합해 나선 이남의 반통일호전세력의 전쟁공조책동에 분격한 각계층 민중의 분노의 함성이 거세차게 터져오르고 있다.

미국은 우리 민중의 견결한 반미자주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북침전쟁책동과 한국에 대한 식민지영구화책동을 즉각 걷어치우고 이 땅에서 살인무기와 침략군을 지체없이 철수시켜야 한다.

역대적으로 외세와 야합하여 반북대결과 전쟁책동에 광분해온 이 땅의 사대매국노들은 모두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비참한 말로를 면치 못했다.

현당국자들은 여기에서 응분의 교훈을 찾고 미국과의 전쟁공조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하며 동족과의 공조로 6.15공동성언이행에 성실히 나서야 할 것이다.

장장 반세기이상 자주통일을 위해 피흘리며 싸워온 각계 애국민중은 남북관계가 화해와 단합에서 대결과 전쟁국면에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절대로 좌시묵과할 수 없다.

평화에 살고 자주와 통일에 살려는 이 땅의 전국민은 한미호전세력들의 전쟁공조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과감히 나서자!

경향각지에서 반미, 반전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차게 지펴올리자!

거족적인 반미진출로 부시와 럼스펠드의 전쟁행각을 분쇄하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하자!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1 (2002)년 1월 24일
서울

한민전 대변인 담화

이북의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 호소문을 지지하며

얼마전 평양에서 진행된 이북의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소식은 우리 민중의 자주통일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어주고 있다.

이북은 이번 합동회의에서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6.15공동선언고수이행, 남북관계진전과 통일운동활성화,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장애하는 요인제거 등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정하고 5월부터 8월까지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였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이남 민중과 온 겨레의 일치한 지향과 의지를 반영한 이북의 이같은 3대호소, 3대제의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데서 매우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발기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각계 민중은 애국애족의 정신이 뜨겁게 맥박치는 이북의 3대호소, 3대제의에 적극 호응하여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자주통일의 기치 드높이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거족적인 민족통일대행진에 총분기해 나서야 할 것이다.

당면하여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며 그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온갖 반통일적 시도들을 단호히 분쇄해버려야 한다.

전국민은 민족공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대화를 발전시키며 사상과 이념, 계급과 계층, 당파와 신앙, 지역과 소속의 차이를 뛰어넘어 민족자주통일대행진에 적극 합류해나서야 한다.

각계 민중은 내외호전세력들의 무분별한 새전쟁도발책동을 짓부수고 평화를 수호하며 동족압살론인 주적론을 철회시키고 반통일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전국민적인 대중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 한민전은 전국민과 함께 우리 민족끼리라는 대명제아래 이북의 3대호소, 3대제의에 호응하여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에 총매진함으로써 올해를 6.15공동선언실천으로 민족자주통일의 결정적인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 것이다.

주체91 (2002)년 1월 28일
서울

김양무 열사 2주기 추도식

통일을 가로막은 반통일세력 썩 물려가라!



≪3대 헌장기치 드높이자 범민련 전사여~≫라고 흘러나오는 ≪범민련전사≫가 망월동 국립묘지에 울려 펴져나가고 있었다. 그 주변에는 우산을 들고 엄숙한 모습으로 서 있는 학생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무대 뒤에는 한 평생을 조국통일에 바친 김양무 선생님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 보인다.

또 계속 이어지는 참배객들의 발길 사이로 묘역주위를 둘러보고 있는 양은찬 선생님의 모습도 보인다. 각계 각곳에서 김양무 열사 2주기 추도식에 참가하기 위해 먼 거리를 멀다하고 왔다. 제주도에서 온 오명환(체육학과 · 2)군은 ≪99년 통일대축전때 김양무 선생님이 내려오셔서 강연을 한 적을 기억하며 그 당시에는 범민련 정신으로 투병하고 계신다는 말이 그저 신기하게만 느껴졌다, 이제껏 갖고 있었던 왜곡된 통일관과 교육관을 벗어버리고 나 자신이 그분의 정신을 따라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많은 이들이 함께 하는 추모제에 꼭 오고 싶었다고 말했다.

추모제에서는 김양무 열사에게 바치는 추도사와 결의문낭독이 이어졌다. 조선대 총학생회장 황광민씨는 ≪김양무열사에게 4번의 옥고를 치르게 한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할 것이고, 통일을 방해하려는 미국을 몰아내며, 6 · 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청년 김양무로 사는 것이다.≫고 말했다.

비를 맞으며 추모노래를 부른 한반도는 ≪우리가 나태에 빠졌을 때 선생님을 떠올리면 그것이 하나의 채찍질이 되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 중심으로 청년 김양무를 결의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통일을 향해 언제나 범민련 깃발 아래 단결한다면 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세력의 활동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작했다. 서울에서 내려온 한양대 권희성(신문방송학과 · 99학번)씨는≪김양무선생님 그 이름만으로도 벅찼는데, 2년이라는 세월동안 점점 잊혀지는 게 아쉽다. 그 분 삶 자체가 우리의 귀감이다. 역사는 정의함으로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이 결정짓는다는 말이 참 맞는 것 같다.≫며 앞으로 통일운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결의까지 함께 밝혔다.

양은찬 선생님은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승리하리라 낙관할 수 있는 것은 청년학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청년학생이 더욱 더 열심히 투쟁할 것을 당부했다.

김양무열사의 딸 김진경양은≪지금 대학원서를 넣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며 합격하면, 그 합격증을 널리 뿌리고 싶다. 바로 그것이≪한총련 합격증≫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진정한 한총련이 되어 아빠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결의문 낭독 후 추모식 참가자 일동은 김양무열사의 묘역에 꽃과, 각 단체 기념품 및 편지 등을 드렸다. 이후 전남대학교에 모여 지금의 통일을 가로막은 ≪반통일 세력 이회창 물려가라≫는 구호로 실천 투쟁등을 벌어나갔다.

오로지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김양무열사의 정신과 삶은 그 자체만으로 많은 이들의 힘과 채찍질이 되고 있다. 어쩌면≪김양무 선생님 그 이름만으로도 참 가슴이 벅차다.≫라는 그 말속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담겨있는 것이 아닐까. 이젠 우리는 6.15공동선언 이후에 통일의 열망들은 깊어만 가고 있다. 하지만 그 열망들을 가로막은 세력들을 물리치고 통일세상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대기련 광전지부 사회분과 공동기자단
장유미 기자

금강산사랑연대(준), 北 아태위에 실무예비회담 제의 예정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준)≫(금강산사랑연대)는 北 ≪아세아 태평양 위원회≫(아태위원회)에 금강산 관광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실무예비회담을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사랑연대는 28일 ≪정부의 금강산 관광지원 방침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정부에 과감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北 아태위원회에는 ≪민간 평화 관광사절단≫의 방북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규철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제안에 대해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북측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이러한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오는 2월에 실무예비회담을 갖고 3월에는 남북 대표들간의 공식회담을 갖자≫고 제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규철 공동집행위원장은 ≪남북당국, 민간단체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오는 30일경에 통일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강산사랑연대가 발표한 논평은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금강산 관광지원 방향에 대해 ≪정부가 늦게나마 금강산 관광사업이 단순한 관광사업이 아니라 민족의 맥을 이어가는 ≪평화사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미흡하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논평은 정부에게는 과감하고 신속한 후속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북측은 사업적 안목으로 유연성을 취할 것을, 그리고 현대아산은 국민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송정미 기자 (tongil@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1-28

양대노총, 방북 불허 규탄 성명발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8일 공동으로 정부의 ≪남북노동자 교류협력을 위한 실무회담 방북불허≫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양대 노총이 북한의 조선 직총과 올해의 남북노동자 교류협력을 위한 실무회담을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평양에서 갖기로 하고 오늘 서울을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방북 신청서를) 너무 늦게 내서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방북을 불허해 방북이 사실상 무산된 것.

성명서는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김대중 정권의 말기에 이르러 일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규정하고 ≪전체 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또 ≪노동계의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정부당국의 최근의 형평성을 잃은 방북불허조치 남발행위가 더 이상 거듭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향후 진행될 각종 교류 행사 등에서 ≪이러한 무사안일한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분명한 개선 조치를 시급히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2002년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가칭) 실무회담 대표단의 방북이 애초의 목적대로 잘 성사되어 6.15공동선언 2돌을 맞는 올해의 민간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으로써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의 실무회담이 갖는 중요성과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제(민주노총 통일위원회) 통일국장은 ≪남북노동자대회, 통노회(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 남북노동자 마라톤 대회 등 올해 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며 이후 계획은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 실무대표단이 돌아온 다음 다시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북측 민화협은 지난 23일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 실무대표들과 함께 양대 노총의 실무대표단 4인(민주노총의 이규재 부위원장 겸 통일위원장, 김영제 통일국장, 한국노총의 권원표 부위원장, 백만호 통일대외협력부장)에 대한 초청장을 보내 온 바 있다.

한편 ≪2002년 설맞이 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의 조성우(남측 민화협) 집행위원장과 이승환(남측 민화협) 사무처장, 변진흥(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한상열(통일연대) 상임대표,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5명은 28일 오후 6시 비행기로 북경으로 떠날 예정이다.

송정미 기자 (tongil@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1-28

≪통일의 길! 이제 통일교육문화센터가 열어갑니다!≫

전대협 동우회, ≪통일교육문화센터≫ 열어



6월 항쟁을 통해 민주화를 만들어 냈던 전대협 세대들이 ≪통일교육문화센터≫를 창립해 세인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대협 동우회(회장 정명수)는 지난 26일 오후 4시 전대협 동우회 사무실에서 ≪통일교육문화센터≫를 창립식을 갖고 ≪통일의 길,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교육문화센터의 운영위원장인 정명수 회장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화해와 협력의 기조나 통일의 일상성, 운동의 폭의 변화가 미흡한 것 같다≫며 ≪통일교육문화센터는 청년세대가 통일운동에 앞장서고 저변을 확장하는데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명수 회장은 통일교육문화센터는 전대협 동우회 회원 모두가 주체로 섰을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참가 회원들을 독려했다.

통일교육문화센터는 지난해 8월 전대협 동우회 제10차 총회에서 설립추진을 결의한 이후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창립됐다.

통일교육문화센터는 전대협 동우회 외에도 KYC, 민족21, 통일뉴스, 전교조통일교사모임 등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통일교육문화센터는 우선 오는 2월 4일부터 23일까지 김영수(서강대) 교수의 제1차 인터넷강좌를 예정하고 있고 정규강좌는 오는 4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전대협 동우회에 의하면 통일교육문화센터는 ▲전문 강사진 네트워크 구성 ▲청년세대들의 네트워크 구성 및 확대 ▲다양한 통일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 6월경에 법인화를 추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창립식은 사무실 이전식을 병행한 자리였으며 민가협, 유가협, 범민련 남측본부, 열린사회시민연합, 서부지역노점상연합 등 평소 전대협 세대에게 많은 애정을 갖고 있던 지인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해주었다.

특히 민가협의 임기란 의장은 80년대의 전대협의 활동과 역할을 회상하고 ≪국민의 씨앗이 되는 통일교육문화센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했다.

이외에도 이장원(전교조 통일위) 위원장, 이찬행(민족21) 사장, 이계환(통일뉴스) 대표, 손장래(민화협) 상임의장, 임방규(통일광장) 대표, 유가협의 김성수 열사 어머니 등이 격려와 축하의 말을 했다.

이어 ≪조국과 청춘≫, ≪노래마을≫ 등에서 활동했던 송병휘씨가 축가를 불러 장내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한편 통일교육문화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통일교육은 마음만 있다고 해서, 혹은 교육 자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며 ≪신심과 힘을 모아서 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조언을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타겟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며 ≪통일교육의 필요성만으로 조급하게 한다면 한계에 부딪칠 수 있으니, 구체적인 고민을 통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은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비해 그 준비나 조건이 열악한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전대협 동우회의 ≪통일교육문화센터≫에 거는 기대감이 적지 않기에 나오는 것이라 본다.

6.15남북공동선언과 남북정상의 만남은 멀지만은 않은 통일의 꿈을 갖게 했듯, ≪통일의 길≫에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길≫에 ≪통일교육문화센터≫가 새로운 꿈을 심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송정미 기자 (tongil@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1-28



재향군인회 등, 각계 민중의 반미투쟁의지에 도전하는 범죄적인 집회를 진행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20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재향군인회 등 이른바 안보단체 회원들이 18일 서울 용산미군기지앞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지하고 우리 민중의 반미시위를 중단하라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에서 그들은 주한미군철수주장은 북의 적화음모, 정부는 반미를 외치는 친북단체를 엄단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반역적 망동을 부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중과 겨레의 반미자주화의 지향과 요구에 대한 용납못할 도전입니다.

아시다시피 주한미군으로 말하면 이 땅을 장악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이북을 침공하며 아시아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불순한 전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기여든 침략군대이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통일의 기본장애물입니다.

주한미군은 있지도 않는 북의 남침위협을 구실로 무력을 끊임없이 증강하는 한편 북침을 겨냥한 각종 전쟁연습을 연일 벌이면서 우리 나라의 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고 한반도에 무서운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기지안팎에서 각종 ***을 버리면서 서울 시민들에게 *****************하는 등 환경을 극심하게 파괴하고 살인과 강도강간 등 온갖 범죄행위를 다반사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주한미군유지비로 섬겨바치는 돈도 매년 30억달러가 넘습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로 하여 당하는 우리 민족과 민중의 불행과 고통은 이루헤아릴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각계 민중이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며 완강히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철수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주한미군은 더이상 존재할 명분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향군인회 등이 우리 민중의 요구와 시대의 요구에 역행해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지해 나선 것은 반역적 작태가 아닐수 없습니다.

더욱이 간과할수 없는 것은 한줌도 못되는 반역의 무리들이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며 투쟁하는 애국단체들을 친북단체로 몰면서 그들의 의로운 활동을 엄단하라고 지껄인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재향군인회와 같은 극악한 반북반통일사대매국단체들만 할수 있는 범죄행위라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가 결성시기부터 반공과 친미사대매국에 광분하면서 반북대결과 전쟁만을 고창해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번에 시대의 요구와 민의에 도전해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지하는 이른바 혈맹지지집회를 벌인 것은 이 땅을 미국의 식민지군사기지로 내맡기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쐐기를 박고 6.15공동선언을 이행되지 못하게 하려는 심히 불순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계 국민들이 재향군인회 등의 이번 집회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그들을 단죄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중은 이번 용산미군기지앞에서의 재향군인회범죄집회가 단지 재향군인회 등의 하나의 문제로만 보지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집회가 당국이나 우익반통일호전세력의 지시를 받아 한 것이라는 항간의 여론은 전적으로 옳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당국은 각성하고 6.15공동선언에 역행하지 말데 관한 국민들의 경고를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히 용산왕국을 세우려는가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24일~25일

지금 경향각지에서 미군기지반환과 미군기지이전요구투쟁이 물끓듯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용산미군기지내에 미군전용아파트단지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민중의 분격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민중의 요구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건데요. 이를 어찌 용납할수 있겠습니까.

반미운동가 강정수씨의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철씨입니다.

맵찬 겨울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산과 들에 흰눈이 덮히고 거리와 마을이 빙설로 꽁꽁 얼어붙었다. 앙상한 나무가지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 그러나 차디찬 겨울날씨보다 사람들의 간담을 더 싸늘하게 하는 소식이 들려와 분격을 금할수 없게 한다. 우리 국민의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용산기지에 미군장교들을 위한 아파트단지건립을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지않아도 지금 미군기지들에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세워져 있는가. 용산기지를 비롯한 41곳의 미군기지들에만도 1만1500여개의 각종 건물이 있다. 그중 22%는 최근 4년사이에 세워진 것들이다. 이 불법건물들에 미군은 숙식조건은 물론 각종 오락시설들을 설치해놓고 호화생활을 하면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온갖 범죄를 거리낌없이 자행하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 백만평규모의 미군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부족해 미군장교들을 위해 또다시 그안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까지 세워놓겠다고 하니 이 아메리카양키들이야 말로 얼마나 철면피하고 파렴치한 강도의 무리들인가. 이것은 우리 국민의 가슴에 칼을 박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한때 미군은 용산기지를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한국을 영구강점하기 위한 흉계밑에 그 이전합의서마저 백지화하고 오히려 용산미군기지를 비롯한 미군기지들을 더욱 보강하고 아파트단지까지 세우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니 어찌 이를 용납할수 있겠는가.

더욱이 분격을 금할수 없는 것은 군당국자들의 비굴한 대미자세이다.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서 있은 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용산미군기지안에서의 아파트단지건립을 이미 수용해놓고서도 국민의 항거가 무서워 입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손님이니 예의니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비굴하고 가련한 작태인가.

반세기이상에 달하는 우리 국민의 반미투쟁과 주한미군철수투쟁이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미군흉악범죄자들이 이 땅에서 마땅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게는 이런 민족, 민중을 등진 친미사대매국노들때문이다.

원래 우리 민족은 손님에 대한 예의범절을 바로 지키는 것을 귀중히 여기는 민족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나라를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러오고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손님인가. 그들은 손님도, 해방자도 아닌 침략자들이고 약탈자, 강도들이다. 우리 민족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고 분단의 원흉이다.

돌이켜보면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저지른 우리 민중에 대한 야수적 학살과 폭행, 강도강간 등 온갖 범죄행위들을 어찌 말과 글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6.25전쟁시기에만도 미군은 한반도전역에서 300여만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가장 야수적으로 무참하게 학살했다. 전후에도 마찬가지이다. 방에서 목욕하는 아이를 오리라고 쏴죽이고 산에서 나무하는 농민을 노루라고 쏴죽였으며 나물캐는 소녀를 꿩이라고 쏘아죽인 것이 미군이다.

광주민중항쟁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의로운 투쟁을 총칼로 진압하고 항쟁의 거리를 피로 물들이게 막후 조정하거나 직접 가담한 것도 미군이다.

어찌 이뿐인가.

수많은 우리 여성들을 강간, 윤간하고 무참히 학살한 것도 미군이고 강토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도, 해방자, 원조자의 감투를 쓴 주한미군이다.

실로 미군의 50여년간의 한국강점사는 우리 국민의 피가 강물처럼 흐른 피의 역사이고 범죄의 역사이다.

우리 국민에게 이루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주는 온갖 범죄의 진원지가 미군기지이며 그것을 지휘조종하는 곳이 바로 용산미군기지이다. 그런데 범죄의 왕국인 용산미군기지에 침략자, 범죄자들을 손님으로 예의를 차려야 한다고 쓸개빠진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친미사대매국에 환장한 민족반역아들만이 할수 있는 궤변이다.

용산미군기지대체부지문제도 그렇다. 미군을 위한 아파트를 용산미군기지안에 짓건 대체부지에 짓건 그 어느 하나도 우리 국민은 허용할수 없다. 용산도, 대체부지도 그것은 다 우리 국민이 사는 우리땅이다. 이 땅 그 어디서도 미군이 우리 국민의 자주권을 마구 짓밟고 온갖 범죄를 자행하게 된다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대체부지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용산기지반환투쟁을 무마하기 위한 요술이다. 우리의 용산이 미군의 용산왕국이 될수 없다. 만일 미군과 군당국이 끝끝내 미군의 아파트건립을 강행한다면 우리 국민은 단합된 힘으로 그것을 단호히 저지분쇄할 것이다.

용산이 해방될때까지 아니 양키침략자들을 영영 이 땅에서 몰아낼때까지 우리 국민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중은 미군의 용산기지내 아파트건설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거고 미군기지전면철폐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해서 끝까지 싸울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국을 할애비처럼 여기면서 사대매국행위를 일삼는 쓸개빠진 자들을 쓸어버려야 합겁니다.

평화와 통일 가로막는 침략과 전쟁책동 배격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24일~25일

지금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이 성실히 이행돼서 조국통일이 하루빨리 이룩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이 성실히 이행되자면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을 할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반도정세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군부호전집단에 의해 새전쟁이 터질 일촉즉발의 위험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김현규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청이며 우리 민족, 민중의 일치한 요구이고 염원입니다. 이것은 또한 아시아와 세계평화와 안전과도 직결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의 의사와 염원에 배치되게 한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매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반테러의 명목밑에 자행되고 있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고 있는 호전분자들의 반북반통일책동으로 인해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엄중한 사태가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에서의 9.11사건을 계기로 식민지한국을 비상경계태세에 몰아넣고 본토의 기동타격부대들과 수많은 군사장비들을 이 땅에 전진배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쟁으로 조성된 군사적 공백을 메운다는 구실밑에 알래스카에 주둔하고 있는 1개 대대급 에프15 공군전력을 한국 북남부지역의 공군기지에 새로 전진배치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북침을 겨냥한 한미연합 대규모연안상륙훈련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합동군사훈련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같은 북침전쟁책동에 편승해서 군부호전분자들은 미국으로부터 최신예전투기 40대를 구입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서 미사일 등 각종 군사장비들을 끌어들여 무력을 증강하고 무모한 전쟁연습책동을 매일과 같이 벌임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전쟁위험을 날로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에서 무모한 침략책동, 북침전쟁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새로운 전쟁위험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정세하에서는 나라의 평화와 통일은 기대할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더욱 빛내이고 나라의 융성발전과 무궁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침략과 전쟁은 우리 민족을 무서운 참화속에 밀어넣는 극악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우리 민족의 지향에 역행해 침략과 전쟁책동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과 그에 아부추종하며 북침전쟁연습과 분열책동에 집착하고 있는 군부호전분자들과 반통일세력의 민족반역행위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민족자주통일지향이 비상히 높아진 오늘날에 와서까지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의연히 무력을 증강하며 침략과 전쟁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성된 정세는 날로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 미국과 군부호전분자들의 극히 모험적인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새 세기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아시아에 역점을 둔 새로운 군사전략을 배우고 그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부시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정초부터 이 땅에 무력을 끌어들이고 침략과 전쟁준비책동에 광분하며 대북적대시정책, 반북강경압살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한반도를 다음단계의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지역으로 예상하고 아시아태평양전략의 초점을 한반도에 맞추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이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절박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또한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을 무력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주한미군은 우리 민족, 민중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고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평화와 통일의 파괴자이고 암적 존재입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여기에 이 모든 악의 근원을 청산하는 길이 있습니다.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배격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여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에 편승해서 북침전쟁도발책동과 민족분열책동에 매달리고 있는 군부호전분자들과 분열주의자들의 범죄적 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합니다.

오늘 한반도에서 날로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 미국과 그 하수인들의 무모한 침략과 전쟁준비책동을 분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 매우 중대한 문제일뿐 아니라 민족의 운명과도 관련된 사활적 문제입니다.

각계층 민중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내외호전세력의 전쟁준비책동을 철저히 반대배격함으로써 우리 겨레의 숙원인 나라의 평화와 민족자주통일을 앞당겨오는데 적극 기여해야할줄로 믿습니다.

미국과 그 하수인인 군부호전집단이 벌이는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은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는 걸 명심하고 이를 반대해 적극 투쟁해야 할겁니다.

양민학살 사죄배상하라

반미운동가 박지철씨 /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26일~27일



미군이 이 땅에서 감행한 천인공노할 양민집단 학살행위가 상급자의 명령지휘체계에 따른 것이였다는 사실이 최근에 또다시 드러나서 경향 각지에서 반미투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반미운동가 박지철씨의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임기수씨입니다.

지금 각계에서는 미군에 의해 감행된 양민학살의 진상규명과 그에 따르는 미국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건 서울에서 얼마전 노근리미군양민학살대책위원회는 조지 얼리 미참전사병의 사죄편지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당시 미제1기갑사단 7기갑연대 2대대 중박격포중대소속 전방관측병이였던 조지 얼리가 편지에서 민간인에 대한 발포를 거부하다 처형위협을 받았다는 등 당시 양민학살이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구체적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며 미국의 진실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 이것은 우리 민족 모두의 한결같은 의사를 대변한 지극히 의로운 주장이다.

지난 시기 미국은 미참전사병들이 상관의 명령사실을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오도해왔다. 그러나 양민학살당시 현장에 있었던 조지 얼리상병은 우연히 영국 BBC에서 제작한 노근리사건프로를 보다가 ≪다리에 총상을 입은 나를 한 미군사병이 도와주어 살아났다.≫는 생존증인 서정갑씨의 증언장면을 보고 그 미군사병이 바로 자신이였고 그러한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속에 지내왔음을 고백하는 편지를 최근 보내왔다.

50여년전의 일이지만 상황묘사가 생생해 그의 증언은 신빙성이 매우 높았다. 그의 편지 가운데서 중대장이 사격명령을 했을뿐 아니라 이를 거부하는 자신에게 처형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부분은 노근리사건이 전쟁불길속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상관의 명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행해졌음을 분명히 드러내보이고 있다.

모든 사실적 자료들과 증언내용은 미군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양민학살만행을 자행했음을 논박할 여지없이 증명해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미제침략군이야말로 인간의 피를 즐기는 야만들이고 극도의 인간증오논리를 가진 인두겁을 쓴 식인종들이라는 것을 더더욱 극명히 하고 있다.

더욱이 지울수 없는 역사의 반증자료들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리우고 회책하고 있는 미국의 작태야말로 우리 민중과 세인들의 한결같은 분격을 자아내는 철면피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미국은 한반도를 강점하고 침략전쟁을 강요해 우리 민중을 상대로 온갖 살인만행을 저지른 범죄는 절대로 회피할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한다.

우리 민중은 미국의 양민학살에 대한 사죄와 응분의 배상을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 것이며 이 땅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낼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미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한미군이야말로 우리 민족분열의 화근이고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다. 미국은 자주통일로 향한 대세와 우리 민중의 지향을 똑바로 보고 살인마, 침략군을 이 땅에서 당장 철수해야 할 것이다.

자루속의 송곳은 숨길수 없다고 미군이 이 땅에서 감행한 귀축같은 만행은 만천하에 드러나기 마련이고 우리 민중은 그에 천백배의 복수를 가하고야 말겁니다.

≪미군기지 이전비용 한푼도 낼 수 없다≫

용산미군기지 반환 제3차 시민대회



≪벽으로 밀어붙여!≫

≪왜 이러는 거야! 대한민국 경찰 맞아?≫

26일 오후 2시 30분 용산미군기지 5번 게이트 앞에서는 경찰과 민주노동당 자주통일국장 이승헌씨와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용산미군기지 반환 운동본부(준)는 이날 ≪우리 땅 추가공여 반대, 이전비용 국민 부담 반대, 부시방한 반대 용산 미군기지 반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으나 집회 방송차량을 견인하려는 경찰들과 처음부터 마찰을 겪었다.

결국, 주최측이 방송차량을 이후 있을 집회장소로 이동시킨 후 진행된 기자회견은 처음부터 경찰에 대한 강한 항의발언으로 시작됐다.

최규엽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은 ≪우리가 경찰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많이 참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때는 용산 경찰서는 각오해야 될 것≫이라고 경찰의 방송차량 견인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최규엽 위원장은 ≪최근 한미간에 용산미군기지 이전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군기지 이전비용은 미군들 스스로 내야하며, 미국은 이전의 합의 사항을 지켜 용산미군기지를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정현 소파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도 용산미군기지 반환운동본부(준)는 ≪용산미군기지를 기존의 미군기지 안으로 축소 이전할 것과 이전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삼각지 4거리 한빛은행 앞에서는 ≪아파트 건립 백지화 · 전동록씨 피해 보상 · 부시 방한 반대 용산 미군기지 반환 촉구 제3차 시민대회≫가 시민과 학생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곧바로 시작되었다.

이날 집회는 전동록 대책위의 투쟁보고, 문정현(소파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의 대회사, 부시방한 반대 투쟁발언, 용산미군기지 반환 운동본부(준) 실천단 발족식, 결의문 낭독의 순으로 이어졌다.

문정현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용산미군기지를 성남이나 수원으로 이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차라리 전국의 93개 미군기지 모두를 서울로 이전시켜 우리가 둘러싸 철수시키자≫고 발언해 참가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어 이관복 박정희기념관반대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2월 19일 부시대통령이 방한할 때 영종도 공항에서 정부종합청사까지 시민들이 줄을 서서 막아버리자≫며 부시방한 반대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또, 이관복 상임대표는 ≪미군이 있어야 유지되는 대한민국은 차라리 없어져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이 후 참가자들은 ≪용산미군기지 즉각반환≫, ≪부시방한 반대≫, ≪주한미군 철수≫의 주장을 담은 구호를 외치며 삼각지 국제빌딩 앞까지 행진을 한 후 오후 5시경 집회를 마무리했다.



장동렬 기자 (tongil@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1-26

≪한국법에 따라 재판할 때까지 싸울 것≫

시민사회단체, 맥팔랜드 규탄 기자회견 가져



한강 독극물 방류범인 맥팔랜드가 구인장 집행을 거부하고 법원의 심문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는≪한국법에 따라 재판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소파개정국민행동),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준),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기지공대위) 주최로 30일 오전 11시 미8군 사령부 정문 앞에서 진행된 긴급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는≪한국의 사법주권을 심각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정≫하고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했다.

기지공대위의 김용한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 취지 설명에서 ≪지난 28일 맥팔랜드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맥팔랜드를 한국법에 따라 처벌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경원(평통사)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 을 통해 ≪주한미군이 맥팔랜드의 재판을 계속 거부하는데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맥팔랜드를 재판에 세우기 위한 ≪맥팔랜드 공개 수배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한미군 측은 28일 법원의 심문에 대해서 ≪맥팔랜드씨가 당시 공무 수행중이었으므로 재판관할권은 미국에 있다≫며 불응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측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소파규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공무라 함은 공무집행 기간 중에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 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는 또 이번 사건은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 소파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는 주한미군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위협과 환경 범죄, 그리고 우리의 사법 주권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한미 소파를 전면 재개정할 것을 한미 당국에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윤기돈(녹색연합) 간사가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녹색연합은 지난 29일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윤기돈 간사는 전했다.

한편, 2000년 2월에 발생한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은 맥팔랜드씨와 주한미군측이 한국검찰의 기소와 한국법원의 정식재판에 불응해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였으나, 오늘 기자회견을 시발로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송정미 기자 (tongil@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1-30



≪미군, 모든 피난민 사살 명령≫

1950년 한국전쟁 초기에 충북 영동군 노근리 등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미군 지휘부가 여성과 어린이 등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상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영국의 ≪비비시≫ 방송에 의해 밝혀졌다.

≪비비시≫는 25일≪한겨레≫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달 1일 방영할 예정인 다큐멘터리 ≪다 죽여버려≫(Kill≫em All)에서 이런 사실을 당시 노근리 등에서 학살에 참여한 미군 병사들의 증언과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문서 등을 통해 보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비시≫의 이런 보도는 그동안 ≪노근리에서 양민학살은 있었지만 상부의 명령에 따른 조직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미국쪽의 공식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 미군 지휘관들의 학살명령=≪비비시≫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그동안 노근리대책위원회 등 피해자들과 미국쪽간에 주장이 엇갈린 핵심쟁점이었던 조직적인 학살명령 여부와 관련해 ≪명령에 따른 계획적인 학살≫임을 분명히하고 있다.

≪비비시≫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최근 기밀이 해제된 10여개 이상의 미군 문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문서에는, 미군 지휘관들이 ≪모든 피난민에게 발사하라(Shoot all refugees)≫, ≪피난민들은 대포를 포함한 화기를 이용하면 흩어질 것이다≫, ≪모든 피난민들은 사냥감≫이라는 등 민간인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사실이 생생히 기록돼 있다고 이 방송은 밝혔다.

이 방송은 또 노근리에서 피난민을 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미 국방부의 주장을 당시 사건현장에 있던 미군 병사들의 증언을 통해 반박했다. 이 방송은 ≪새로운 목격자인 한 미군 병사는 ≪장교들이 보병들에게 다 죽여버려라고 소리쳤다≫고 회고했으며, 또 다른 증언자는 ≪노근리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소속 중대장이 피난민을 쏘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고 폭로했다≫고 밝혔다.

◇ 또 다른 민간인 학살=≪비비시≫는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노근리 사건 외에도 1950년 한국에서 빚어진 다른 학살 사건도 새롭게 발굴해 방영할 예정이다. 특히 미 보병 제25사단 작전지역 안의 작은 절에 숨어있던 마을사람 82명이 미군에 의해 학살됐으며, 이들 희생자 중 25명은 10살도 안된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남한 생존자들의 증언도 이번 다큐멘터리에 담겨질 것이라고 이 방송은 전했다.

이 방송은 ≪미 25사단의 지휘관은 작전지역 가까이에 있는 민간인들은 모두 적으로 간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남한의 한 해안가에 모여 있던 피난민들을 향해 미국 군함이 아무런 이유없이 맹렬하게 탄환을 퍼부어 400여명이 숨진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 전쟁범죄=≪비비시≫는 이런 사실로 미뤄 노근리 사건 등 한국전쟁 초기에 미군이 저지른 양민학살은 명백히 ≪전쟁범죄≫라고 규정했다. 이 방송의 한 제작진은 ≪미국의 군역사가가 지적한 것처럼 민간인을 계획적으로 공격목표로 삼는 것은 명백한 전쟁법 위반≫이라며 ≪하지만 미 국방부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조사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조사에 참여했던 피터 맥클로스키 하원의원은 이 다큐멘터리에서 ≪미 공군이 민간인들에 대해 기총사격을 하라는 명령에 복종했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미 정부와 국방부는 이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비시≫의 다큐멘터리 ≪다 죽여버려≫는 런던 악토버필름이 지난 1년 동안 미국과 한국 등 현지 취재를 통해 제작한 것으로, 다음달 1일 ≪타임워치≫ 프로그램에서 방영된다.



최혜정 기자idun@hani.co.kr
인터넷 한겨레 01/25/02

한국전쟁전후 미군의 학살만행에 대한 진실, 미국은 책임으로 답하라

영국 BBC 방송 보도와 관련하여

1. 영국 BBC 방송은 오는 2월 1일 방송 예정인 [다큐멘터리 ≪Kill' em All≫(모두 죽여라)]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 사건 외에도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수십 건 더 있었으며, 미군 지휘관들이 한국전 초기 수개월간 민간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 살상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바로 한국전쟁전후 미군의 학살행위가 한반도 전체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되어졌다는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이하 전민특위)≫의 주장을 다시한번 객관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전민특위는 2000년 5월 이후 약 20개월에 걸쳐 한국전쟁 전후 미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에 대한 광범위한 증언청취, 현지조사, 관계기록 발굴 등의 활동을 벌여낸 결과, 남과 북에 무려 100여 곳이 넘는 지역에서 미군에 의해 참혹한 민간인학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또한 밝혀진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지난해 6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국제전범법정은 세계양심들 앞에서 미국의 범죄들을 단죄하여 ≪유죄(Guilty)≫를 선고한 바 있다.

3. 그러나 노근리 학살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은 ≪경험이 없는 병사들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학살이 명령계통에 의해 조직적으로 행해졌음을 부인해왔다≫는 사실을 재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진실을 은폐하는 것은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전민특위는 다시한번 미국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전세계 양심 앞에 진실을 밝히고 ,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

4. 또한 전민특위는 한국정부에게도 엄중히 촉구한다. 그 동안 한국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외세에 의해 무참히 죽어간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그들의 손발이 되었던 지난 추악하고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한국전쟁전후 발생한 민간인학살에 대해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넋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5. 끝으로 전민특위는 지난 1년 동안 미국과 한국 등 현지 취재를 통해 이번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런던 악토버필름과 이를 기획하고 방영하기로 한 영국 BBC방송의 노력을 진심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그리고 전민특위는 평화와 진실을 바라는 전세계 양심들과 함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은 물론 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밝힐 때까지 모든 노력과 헌신을 다할 것임을 남과 북, 그리고 전세계 양심 앞에 다시한번 밝히고자 한다.

2002년 1월 26일

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남측본부

야당들, 당국의 금강산관광 지원방침 시비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25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금강산관광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당국의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은 수익성이 없는 금강산관광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정경분리와 원칙에 어긋난다느니 뭐니하면서 걸고들었는가 하면 자민련은 민간사업인 금강산관광사업을 항시 평화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느니 한미동맹관계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느니 뭐니하면서 비난했습니다.

또한 자민련의 김종필은 이북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대해 지난 88년 올림픽때 이남을 혼란시키기 위한 평양청년학생축전과 똑같은 것이라며 이남사람 ***반대한다고 떠들어대면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각계 민중을 **했습니다.

야당들이 금강산관광사업지원을 시비한 것은 남북관계개선에 훼방을 놓는 반민족반통일적 작태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강산관광사업은 남북화해와 민간교류의 물꼬를 터놓은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만큼 개별기업의 문제로 방치하지 말고 국민적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당국이 금강산관광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 의사를 따른 것으로써 절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모아 비난해 나선 것은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가 활성화될 것을 바라는 각계 민중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히 간과할수 없는 것은 앞으로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대해 시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중은 물론 세계 각계 인사들은 ≪아리랑≫을 보지 못하면 일생에 한을 남긴다면서 평양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계 민중이 평양에 가서 ≪아리랑≫을 보면 북을 바로 아는데서도 좋고 이북 형제들과 회포를 나누는데서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종필은 혼란이니 뭐니하면서 각계 민중의 ≪아리랑≫ 공연참가를 반대해 나섰으니 이런 반민족반통일분자를 어찌 민족안에 그대로 둘수가 있겠습니까.

제반 사실은 한나라당패거리들과 김종필과 같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방해자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관계도 좋게 발전시킬수 없고 민족자주통일의 문도 열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패거리들과 김종필은 역사와 민족앞에 대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금강산관광사업은 물론 남북관계개선에 훼방을 노는 행동을 중지하고 각계 민중의 일치한 요구대로 정계에서 즉시 퇴진해야 합니다.

각계 민중은 한나라당패거리들과 김종필과 같은 반민족반통일분자들의 언동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들을 민족의 족보에서 제명시키기 위한 투쟁을 광범위하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방미중인 이회창의 매국배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언동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27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현재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은 미국부통령과 국무장관,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 등 미상전들을 잇따라 만나 우리 겨레와 민중의 의사와 요구에 배치되는 망발을 연이어 늘어놓아 사람들을 분격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민족반역으로 비뚤어진 그의 입에서 바른 소리가 나올 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야당총재라고 하면 미국에 건너가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조국통일문제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기하지는 못할망정 그에 역행되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 할겁니다.

그러나 이회창은 미국방문 첫날부터 상전들앞에서 아양을 떨며 대북관계에서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 공조를 강화해야한다느니 상호주의와 투명성보장, 검증은 대북사업에서 준수돼야할 원칙으로 돼야한다느니 하고 떠들어댔습니다.

이회창이 떠드는 대북한미공조가 이북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반북반통일공조라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가 역설하는 상호주의와 투명성, 검증 역시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장사군의 논리로써 그 본질은 반통일에 있는 것입니다.

이회창이 이북에 가야 얻을 것이 없다며 애당초 재작년에 있은 남북정상회담 자체를 반대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자 그것을 못마땅해하면서 정부가 이북에 퍼만준다, 끌려다닌다며 공동선언의 이행에 제동을 걸려고 책동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회창은 이번에 미국에 건너가서 국내에 있을때보다 더 악을 쓰며 그걸 떠들어대 우리 주민들을 크게 분격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 일부 미국정객들로부터 ≪저 사람이 과연 한국인 야당총재가 맞느냐≫하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회창이 25일 백악관에 찾아가서 체니미국부통령과 만나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한 것 역시 그의 사대매국적이고 반통일적 본질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여당까지 이총재가 사대외교를 펴고 있다, 이총재가 대선을 의식한 저자세행보로 나라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있다며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회창이 이같이 미국에 건너가서 상전들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아양을 떨고 사대매국적이고 반통일적인 나발을 연속 불어대고 있는 것은 어떻게하나 미국상전들에게 잘보여 그들의 지지를 받아 금년말에 있을 대선에서 기선을 잡으려는데 그 비열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상전들에게 잘 보여서 청와대입주권을 따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는 그처럼 이성을 잃고 별로 만날 의향이 없다고 하는 미국정객들의 사무실에도 찾아가 자기를 잘 밀어달라며 구걸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반 사실은 이회창이야말로 극악한 사대매국노, 반통일역도이고 그의 이번 미국방문이 비굴한 반통일사대매국행각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회창이 아무리 상전을 찾아가 비굴하게 구걸하며 발악해도 결코 우리 민중의 버림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통일역적 이회창을 매장하자

고려대 이명식씨 /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23일~25일



그럼 이번엔 고려대 이명식씨의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반통일역적 이회창을 매장하자≫.

새해에 들어서면서 이회창의 반통일광증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지난 1월 17일 이회창은 이른바 연두기자회견이라는데서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걸맞게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것을 바라는 온 민족의 염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날 이회창은 새해 벽두부터 제놈이 마치 대통령이 다 된듯이 허세를 부리면서 남북관계에서 전략적 상호주의,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 검증이라는 이른바 3가지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떠벌였다.

뿐만 아니라 이북을 걸고들면서 테러와 어찌해야한다느니 대량파괴무기문제의 해결에 어찌해야한다느니 하는 따위의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회창의 이같은 망발에 지금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회창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민족자주통일에로 향한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별별 못된 짓이란 짓은 다해왔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마자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헐뜯으며 제일 먼저 반대해나선 것도 그리고 주한미군영구주둔과 한미동맹강화를 외쳐대며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과 미사일방어체제구축, 무력증강책동에 적극적으로 편승해 나선 것도 이회창이다.

뿐만 아니라 전략적 상호주의, 투명성, 검증론을 부르짖으며 화해와 협력에로 향한 남북관계발전을 가로막고 제도통일론을 떠벌이며 6.15공동선언이행을 한사코 가로막아나선 것도 다름아닌 이회창이다.

하기에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이회창을 미국에 빌붙어 분단에 기생하는 친미사대매국노, 반민족, 반통일분자, 너절한 인간쓰레기로 낙인하고 반이회창투쟁을 힘있게 벌여온 것이다.

이쯤됐으면 이회창은 민족앞에 지은 제놈의 죄행과 우리 민중의 반이회창감정을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상호주의, 투명성, 검증론을 또다시 떠벌이며 반북대결을 고취하는 이회창을 보면 반통일, 친미숭미 극도에 달한 것이라 하겠다.

더이상 이런 민족반역정신병자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지난해 반이회창투쟁의 경험을 되살려 올해 정초부터 이회창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

한총련을 비롯한 청년학생조직들은 이회창을 척결하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경주해야한다.

지금 벌이고 있는 이회창감시단, 이회창정치활동전화제보받기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벌이는 것과 함께 투쟁강도를 더욱 높여 이회창의 수족을 얽어매어 역도가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여야한다.

특히 지방선거와 대선 등 합법적 공간들을 최대한 이용하여 이회창의 반민족적 죄행을 폭로단죄하며 역도를 국민의 심판대에 끌어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6.15공동선언을 옹호고수하고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반이회창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당면하여 한총련이적단체규정철회와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반이회창투쟁의 궤도선상에서 다같이 벌여나가야 한다.

반이회창투쟁을 힘있게 벌이는데서 중요한 것은 각계 민중과의 연대연합이다.

청년학생들은 전국연합, 민주노총, 전농, 통일연대 등 재야시민운동단체들이 이미 6.15공동선언이행과 극우반통일보수세력척결투쟁을 호소한 여건에서 이 투쟁에 적극 지지동참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친미사대매국노 반통일역적 이회창을 기어이 매장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색이 담긴 이명식씨의 글, 새해 투쟁의 길에 나선 우리 청년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는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21일~23일

파쇼독재세력의 앞잡이, 이북 헐뜯기의 돌격대인 조선일보가 민중의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최근에도 이북의 새해공동사설을 게거품을 물고 헐뜯고 있어 남북관계개선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의 이같은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 작태는 민족의 분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윤정원씨 모시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조선일보가 사회현실을 정확히, 진실하게 알리는 언론집단이 아니라 흑백여론을 조작하고 민족내부에 불신과 대결을 조성하는 우익보수세력의 나팔수, 매문지로 국민들의 한결같은 지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요. 조선일보가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전도하는 능수고 얼마나 악랄한 반북모략집단인가 하는 건 새해 1월 1일에 즈음해 발표한 이북의 당보, 군보, 청년보 공동사설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늘어놓은데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조선일보의 부질없는 악담질이야말로 참을수도, 용납할수도 없는 반역행위라고 하겠는데요.

윤정원 : 조선일보는 1월 3일자 사설 ≪6.15이전으로 환원한 북의 신년사≫라는데서 북이 변화를 외면한채 정체상태에 있다고 떠들었는데요. 이거야말로 북의 현실을 왜곡하다 못해 날조하려는 얼간망둥이짓이 아닐수 없습니다.
전세계가 격찬하듯이 이북은 최근 강성대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어요. 세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북의 방송과 출판물을 단 한번이라도 듣고 본 사람들이라면 조선일보의 흉심이 뭔가를 알고도 남을 거예요.
조선일보가 떠들고 있는 변화란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제창하는 이른바 개혁개방을 뜻하는 것이겠는데 세계적 판도에서 볼때 제국주의자들의 위협공갈과 압력에 굴종하고 회유, 기만당해 개혁개방의 길을 택한 나라들이 어떻게 파산몰락하고 있는가는 만인이 직접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현실을 봐도 그렇죠. 미국식개혁이 가져온건 사회정치적 혼란과 경제와 민생파탄뿐이잖아요.
그런데 지구촌의 강성대국으로 우뚝 솟고있는 이북을 두고 정체상태다, 변화외면이다 하는 조선일보의 궤변이야말로 정신병자들이나 할 소리 아닙니까.

사회자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감히 이북의 주체사상과 자주노선을 헐뜯고 외세배격을 비난했는데요. 이건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미화하는데 지면을 아끼지 않고 제정신이 아니라 숭미공미사상주입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조선일보의 체질과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윤정원 : 그렇죠. 매국배족을 일삼아온 조선일보가 주체사상과 자주성의 진수를 알수가 없죠.
북에서는 사상에서 주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상에서 주체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변혁운동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요구예요.
사상에서 주체성을 견지해야 자기 것에 정통하고 민족적 자긍심, 자부심을 갖게 되고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민족적인 사상조류를 반대배격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민족자주의식이란 조금도 없고 숭미공미사상에 철저히 물든 조선일보가 감히 주체사상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궤변을 늘어놓은 것 자체가 용납못할 반역적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북의 자주정치를 비난하고 있는 것 역시 그래요.
정치적 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죠. 제일 생명이구요. 어떤 민족이든지 정치적 자주성을 견지해야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수 있고 또 행복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잖아요. 사람이 생명이 끊기면 죽는 것과 같이 정치적 자주성을 잃은 국가나 국민은 죽은거나 같은 겁니다.
이 땅의 현실이 바로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은 외세에 의해 자주권을 빼앗긴 식민지예속국입니다. 자주권을 빼앗기다 보니 모든 문제를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국민의 이익에 맞게 처리하지 못하고 외세의 지휘봉에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조선일보가 주제넘게 북의 자주정치를 시비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찌 제정신을 가진 언론집단이라고 하겠습니까.
조선일보는 북의 외세배격입장에 대해서도 시비질을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매국배족의 무리들의 입장을 대변한 반민족적 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사회자 : 조선일보는 북이 반테러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편승하지 않고 폐쇄의 울타리만 높인다고 떠들었는데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북을 헐뜯기 위한 생억지이고 국제테러의 원흉 미국상전의 비위를 맞추려는 너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윤정원 : 네, 바로 그렇습니다. 국제사회는 북이 모든 테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궤변은 미국을 대변한 반민족적인 행위외에 다름 아닙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구실로 북에 대한 압살책동을 한층더 강화하고 있죠. 미국은 북에 테러지원국 딱지까지 붙여가면서 심지어 다음번 공격목표로 될 것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구실로 아프가니스탄영토를 초토화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마구 죽였는데요. 미국은 이걸 반대하는 나라는 모두 테러지원국이라는 그런 강도적 논리를 들고 나왔어요.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미국의 이런 강도적 행위를 지지하고 미국의 무자비한 학살만행에 동참하는 것이 새로운 국제질서에 편승하는 것이겠는데 미국상전의 삽살개가 아니라면 감히 이따위 궤변을 늘어놓지 못할 겁니다.
사회자 :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북이 내놓은 신년공동사설에는 남북관계개선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제시한 것이 없고 남한에 대해 주적론을 철회하고 보안법을 철폐해야한다는 강경입장을 표명했을뿐이라고 떠들었는데 정치문맹자가 아니라면 감히 이런 소리를 입밖에 내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정원 : 네, 맞아요. 북은 새해공동사설에서 남북공동선언따라 조국통일대행진에 떨쳐나설 것을 온 민족앞에 호소했죠. 공동사설에서는 또 남북공동선언이 오늘도 내일도 조국통일의 이정표라는 걸 온 세상에 다시금 확언을 했습니다. 남북관계문제와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이보다도 공명정대하고 또 현실성있는 제안이 또 어디있겠어요.
조선일보가 북이 아무것도 제시한 것이 없다고 떠들어댄 것은 6.15공동선언을 백지화하고 남북간의 관계를 종전의 대결의 원점으로 돌려세우려는 미국과 이회창같은 이 땅의 우익보수반통일세력들의 의사를 그대로 대변을 한거죠.
≪주적론≫과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개선과 통일문제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동족을 주적으로 보는 ≪주적론≫을 철회하지 않고 애국민주역량을 탄압말살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통일은 고사하고 남북관계에서 어떤 자그마한 문제도 풀릴수가 없는거에요.
남북관계문제, 통일문제해결에서 무엇이 주선인지도 모르는 조선일보야말로 가련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죠.
사회자 : 조선일보가 매문지로써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전도한 반역적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창간된지는 80여년이 되는데 그 흔적을 보면 민족반역으로 일관돼 있죠.
윤정원 :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를 창간한 방일영을 비롯한 방씨 일가족 자체가 일제때는 친일매국을 했고 광복후에는 독재권력의 꼭두각시로 돼서 매국배족을 일삼아온 족속들입니다. 바로 이런 족속들이 대를 이어오며 경영하고 있으니까 바른 소리를 할수 없을 건 뻔하죠.
조선일보는 일제때 내선일체, 동조동근, 황국신민화를 열창하는 민족반역자들에 대한 글들을 대서특필했고 반일애국투사들을 마적단으로 몰아서 중상비방하는 글들을 대서해서 일본상전들로부터 찬양과 보호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5.16쿠데타후에는 방일영과 그 동생인 방우영이 중앙정보부 첩자로 전락됐고 조선일보는 중앙정보부의 언론지침에 따라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북을 헐뜯는 반북모략지로 전락이 됐습니다. 모략사건으로 세상에 드러난 이른바 남침용땅굴사건과 북의 남침위협설에 대해 조선일보가 굉장히 떠든 것도 중앙정보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였죠.
그래서 국민들은 조선일보가 허위를 날조해 북을 악랄하게 헐뜯다 못해 북의 체제까지 걸들어 온갖 악담을 늘어놓고 있다는 걸 잘알고 있어요.
사회자 : 조선일보의 고약한 반역적인 심보는 1994년 7월 이북에서 뜻하지 않은 국상을 입고 상실의 아픔에 통곡하고 있을때 북에 대해 야유조소하는 천추에 용납못할 범죄행위를 감행하고 북이 최근 몇년간 계속된 자연재해로 일시적인 시련을 겪고 있을때 동정은 해주지 못할 망정 그걸 호기로 삼아서 온갖 반북모략을 일삼으면서 북의 제도가 어떻소하고 시비질한데서도 그대로 나타났죠.
윤정원 : 그렇죠. 원래 동족인 북이 잘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온갖 악담질을 하는게 조선일보의 반역적 체질이고 속성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조선일보의 악질적인 행위는 6.15공동선언발표후 그 도수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6.15공동선언을 파기하고 남북관계를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려세우려는 이회창을 비롯한 우익보수세력의 편에, 한편에 서서 온갖 못된 짓을 다하고 있죠. 이 땅의 모든 국민들과 사회 각계 단체들이 조선일보구독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민족반역을 일삼는 조선일보를 하루빨리 매장해버리는 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민족의 최대숙원인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이루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조선일보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루빨리 사라지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사회자 :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사회자 : 조선일보는 대세를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겁니다.

미국에서 밝힌 이회창 총재의 대북정책

야당 총재이자 차기 대권주자로 미국을 방문중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을 지지하며 역으로 정부의 햇볕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이 총재가 밝힌 대북정책 기조는 연초 북한에서 발표한 ≪3대 호소≫와 ≪3대 제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남북대화 재개를 앞두고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이 총재는 지난 22일 1주일 예정으로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 미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3일 헤리티지재단과 미국기업연구소(AEI) 공동초청 오찬에서 ≪교차로에 선 한국-평화·민주주의·세계화를 향해≫라는 연설을 통해 이 총재의 대북정책에 관한 입장과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가 미국 방문중에 밝힌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입장은 크게 6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① 북한을 보는 시각 ②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③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과 우리 사회 반미감정에 대한 인식 ④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⑤ **김정일** 답방 문제 ⑥ 이 총재의 대북정책 기조이다.

이 총재는 ≪북한은 정상기준으로 볼 때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체제≫로 바라보고 따라서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북한의 심각한 위법행위와 도발을 억제한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반면 햇볕정책이 낳은 부정적 후과는 ≪성과에 집착한 결과 국민적 합의의 붕괴와 국민 불안 증폭, 그리고 한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 총재의 견해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우려는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 이 총재는 ≪통일 이후에도 적어도 동북아 안정과 세력균형자의 역할로서 주한미군은 계속 필요하다≫고 보며, 더불어 노근리, 매향리 사건 등의 한국 사회내 반미감정에 대해서도 ≪지극히 일부의 감정≫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번 이 총재의 미국 방문 목적이 드러나는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은 ≪잘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을 전폭적으로 성원하고 있음을 다시 확언한다≫, ≪장차 제가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한민국 지도자가 될 경우에도, 이러한 성원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발언은 대권주자로 나선 이 총재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같은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지지기반 확대를 꾀하려 했음을 나타낸다.

야당 총재이자 대권주자로서 향후 대북정책에 관한 자신의 입장은 단기적으로는 ≪연내 **김정일** 답방 반대≫와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포용 5원칙≫을 표명했다. 여기에는 그 동안 이 총재가 밝혀왔던 ≪자유, 인권, 시장경제 원칙하의 남북관계와 강력한 국방력, 상호주의≫ 등의 입장을 담고 있다.

국내도 아닌 미국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밝힌 이 총재의 대북정책 기조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친밀하며 북한의 대남정책과 다툼의 소지가 많다.

또한 새해 들어 남북대화 재개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총재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최근 북한이 우려하며 호소하는 내용과 정반대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연초부터 북한은 남북관계의 냉각기 원인으로 ≪미국≫을 지목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 왔으며, 민족대단결을 강조하며 ≪반통일 세력과의 투쟁≫을 강조해왔다.

또한 최근 남북대화의 청신호로 받아들인 22일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의 ≪3대 제의≫와 ≪3대 호소≫는 그 주된 내용에 있어 ≪외세배격과 6.15 공동선언 이행을 통한 민족공조 강조≫이다.

현 정부가 미국과 북한의 사이에서 햇볕정책을 통한 중간자적 입장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면, 이 총재의 입장은 미국 정책쪽에 무게를 싣고 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그 전략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 전략 차원에서 현 정부와의 차별적 전략 구사에는 성공적일지 몰라도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라는 민족문제 앞에서는 작년 한해 남북관계 개선에 미국의 대북정책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듯이, 이 총재의 남북관계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금강산 관광 및 경의선 철도 연결,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사업의 재개에 많은 언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남북관계 앞에는 여전한 복병이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박희진 기자 (tongil@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1-28

이회창 방미행위에 대한 대전충남통일연대 규탄 성명서

대통령병에 눈멀어 친미와 반민족적 사대행위로 얼룩진 이회창의 방미행위를 규탄한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아시다시피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미국을 방문하였다. 무엇을 위한 방문이었던가? 이회창이 방미기간 동안 열을 올린 매국적 발언은 부지기수이지만 지난 23일 헤리티지재단과 미국기업연구소(AEI) 공동초청 오찬에서 ≪교차로에 선 한국-평화・민주주의・세계화를 향해≫라는 연설의 요지를 적어본다. 이회창은 연설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통일후에도 남아있어야 하며, 미국이 북에 대해 대북강경정책을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햇볕정책은 성과보다 부정적 후과가 많아 국민을 불안케 하고, 경제를 어렵게 하며, 한반도 안정을 해치고 있으며, 올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은 있어서는 안돼며,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한 지지는 전국민적 지지이며, 자신 또한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정책을 변함없이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참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한심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굴욕적이고 사대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온 겨레가 머지않아 통일을 확신하고 있는 이때 차기 대통령을 나가려는 한 야당의 총재가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 가 민족의 이익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대통령이 되기 위해 상전에게 눈도장을 받으려 쓸개마져 빼던지고, 아부굴종한 이회창의 작태를 보니 한편으론 참으로 가련하고, 한편으론 분노스럽기 그지없다.

2000년 6월 15일 우리 민족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온 민족이 지지 환영하였으며, 전 민족적인 실천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남북관계 역시 장관급회담, 각계각층 민간인의 방북등으로 급격한 전환과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한마디로 적대적인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였고, 온 민족은 머지않은 장래에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단합과 부흥을 이룰 통일이 이루어질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좋게 발전하던 남북장관급회담이 중단되고, 2001년 초 예정되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무산되었다. 무엇때문이였는가? 바로 부시정권이 클린턴정권시기 북과 약속한 북미제네바합의, 조미공동커뮤니케를 지키지 않고 대북강경정책을 폈기 때문이었다.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으로 국교수립의 단계까지 발전한 북미관계는 대결로 돌아섰고, 남에 대해 내정간섭을 함으로써 각종 남북장관급회담의 막히고, 남북이 합의한 소중한 약속이 중도하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회창은 이러한 지난 1년의 결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북을 적대적 대상으로 하여 엄청난 무력을 한반도에 주둔시킴으로써 한반도에 상시적인 대결과 긴장상태를 만들고 있는 주한미군을 통일이후에 까지 주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민주를 실현하는 길이라 말하고 있다.

참으로 궤변중의 궤변이다. 자기 민족의 숨통을 열어논 6.15공동선언을 방해하고, 파탄내려는 외세를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아울러 이회창이 온 민족이 남북관계의 전진과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데 획기적 전환을 가져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내 답방 반대를 얘기한 것은 이회창이 진정 민족의 이익과 요구를 중시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대권야욕실현을 중시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민주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공감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회창만은 6.15공동선언 이행을 방해하는 외세에게 잘한다 말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적극지지하겠다 말하고 있으며, 온 민족의 바램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마져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반대해 나서고 있다.

이 얼마나 가련하고도 통탄스러운 일인가?

우리는 민족의 평화, 안정, 사회의 민주를 운운하는 자가 자기국민도 아닌 외세앞에 가 반민족적이고, 굴욕적인 행위를 일삼은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방미를 통해 자신이 6.15공동선언을 반대하는 친미보수반통일세력임을 만천하에 공개한 대통령병 환자 이회창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리기 위해 그 죄과를 낱낱이 폭로 규탄 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대통령병 환자 이회창은 굴욕적 방미행위 국민 앞에 사죄반성하고, 정계를 떠나라!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2002년 1월 28일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대전충남 통일연대

≪조선일보, 역사와 민족앞에 참회하라!≫

≪조선일보 민간법정≫ 열려

조선일보가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30일 오후 1시 프레스센터 20층에서는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민간법정)이 각 언론사와 사회단체의 큰 관심 속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민간법정은 예정보다 늦은 1시 20분 경 명계남 민간법정 운영위원장의 ≪안티조선운동의 기폭제가 될 민간법정을 시작한다≫는 발언과 함께 판사와 검사, 변호인 등 재판진이 출석하며 시작됐다.

이날 법정은 피고인 조선일보가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조선일보 신문 2부를 놓고 궐석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대신 ≪민간법정 헌장≫에 의거 재판부 직권으로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대 사무총장, 김동민 한신대 교수, 오한흥 옥천신문 편집국장 등 3명을 조선일보의 변호인단으로 선정했다.

먼저, 김인회 변호사를 수석검사로 한 검사단은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행위 각각에 대해 개별기소를 했다.

김승교 변호사는 조선일보의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일제시대 친일행위≫와 최근 ≪미국 일변도의 보도≫ 등 8가지 사례를 근거로 기소했다.

다음으로, 임종일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독재정권의 찬양과 옹호에 앞장서왔던 조선일보 보도를 6가지로 구분하여 조선일보의 반민주 행위를 기소했다.

마지막으로, 최규엽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은 반통일 행위에 대해 ≪북한의 금강산 댐 건설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 ≪성혜림 망명설과 관련한 악의적인 보도≫, ≪9.11테러 이후 북한 위협론을 부추기는 보도≫ 등 10가지 보도를 제시하며 조선일보를 기소했다.

이어 진행된 증인심문에서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남한주류 언론 중에서도 오보나 ≪소설식 기사≫에 있어 조선일보가 가장 심각하다≫며 ≪교수로서 조선일보에 학점을 매긴다면 F학점이다≫고 말했다

또, 강정구 교수는 ≪≪만경대 정신≫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는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보도한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심문에 ≪언론은 사회적 공기이자 민족적 공기≫라며 ≪언론이 ≪만경대 정신≫에 대한 반통일적 해석으로 사회적, 민족적 파장을 일으킨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방응모씨의 장남 방재선씨는 ≪계초(방응모의 호)가 살아있더라도 나를 욕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의 친일과 굴종의 역사에 대해서 적손으로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방재선씨는 조선일보의 개혁 방안을 묻는 질문에 ≪조선일보의 아킬레스건은 도덕과 윤리성이 없다는 것≫이라 지적한 뒤 ≪부도덕한 경영진을 바꿔야 조선일보가 바뀐다≫며 조선일보 경영진을 비판하기도 했다.

사실심리와 증거조사가 끝난 후 김인회 수석검사는 논고를 통해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행위에 대해 민간법정 헌장에 의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조선일보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모두의 문제≫, ≪오늘의 잣대로 과거의 부분적 행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변호를 했다.

특히,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은 ≪조선일보의 반통일 행위에 대한 기소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조선일보는 점진적이고, 미.일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통일로 가자는 국민 70% 이상이 지지하는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통일 신문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장해 장내의 분위기를 순간 고조시켰다.

논고와 변론이 끝난 후 10분 후 속개된 민간법정은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유죄평결과 고영구 수석판사가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행위 모두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기소된 보도기사에 대한 사죄와 관련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소유와 경영분리를 권고하는 내용의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민간법정은 500여명의 방청객과 각 언론사의 뜨거운 취재열기 등 각계각층의 관심이 집중돼 앞으로 조선일보반대 운동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렬 기자 (tongil@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1-30

이적단체규정 철회돼야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21일~22일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지 1년반이 지난 오늘까지도 북에 대한 주적론은 당국의 국시로 되고 있으며 또 애국단체들에 대한 이적단체규정도 여전히 철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적단체규정 철회돼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죠.

새해를 맞이한 지금 우리 민중의 통일기운은 더욱 높아가고 있는데요. 민중의 이같은 통일지향에 걸맞게 우리 청년학생들이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조국통일의 선봉장으로써의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잘하자면 학생운동의 사령탑인 한총련과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합니다.

그러나 당국은 한총련과 범청학련 남측본부에 대한 부당한 이적단체규정을 철회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그 어느때보다도 학생운동탄압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생들에게 한총련 탈퇴를 종용한거라든가 또 검찰경찰당국이 한총련 탈퇴를 강요하고 시한부까지 정해놓고 일대 검거소동을 벌인 것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남총련 제10기 의장 최종은씨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학생들이 체포구속됐고 또 범청학련 남측본부 황선대변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당국의 이같은 탄압만행으로 인해 한총련의 활동이 심히 억제되고 학생운동발전에서는 적지 않은 난관이 조성되고 있어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매도하며 학생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천만번 부당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총련은 그 누구의 사주에 의해 조직되고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백만학도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조직되고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 자율적인 학생대중조직입니다.

청년학생들은 해마다 민주주의적 선거를 통해 대학총학생회장과 한총련의장을 선출합니다. 그런가하면 한총련은 전대협의 뒤를 이어 우리 민중과 온 겨레의 지향인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반미투쟁의 첫 봉화를 지펴올려 반미의 무풍지대였던 이 땅에 반미열풍을 몰아온 것도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간 것도 우리 청년학생들이였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분단장벽에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파열구를 내고 통일의 물꼬를 튼 것도 청년학생들이였고 오늘은 그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남과 북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한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피끓는 심장에 새기고 그 이행의 앞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도 바로 다름아닌 우리 청년학생들입니다.

하기에 우리 민중은 한총련의 열혈청춘들에게 통일의 꽃, 통일의 사자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고 그들의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한총련이 벌인 모든 활동은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써 온 민족의 찬양을 받으면 받았지 결코 탄압당해야할 이유로 될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매도하면서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은 철두철미 학생운동말살을 노린 흉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 통일에로 지향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적 요구와 민주화의 흐름에 비추어보아도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거라 하겠습니다.

당국은 시대착오적인 학생운동말살책동을 당장 중지해야하며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할겁니다. 만일 당국이 대세의 흐름과 민의에 역행해서 한총련탄압에 계속 매어달린다면 역사와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한총련의 백만청년학생들은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철회와 당국의 학생운동탄압책동에 과감한 투쟁으로 단호한 반격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구속학우석방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적단체규정철회투쟁을 국가보안법철폐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각계 민중과의 연대연합은 투쟁에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입니다.

청년학생들은 민주노총과 전농, 전국연합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조직적 연계를 강화하고 공동투쟁을 벌여나감으로써 올해에 기어이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을 철회시키고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 활동의 자유를 쟁취해야 할겁니다. 그래서 한총련이 겨레의 자랑으로 우뚝 서야 할겁니다.

국보법은 즉각 철폐돼야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26일~27일

6.15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기로 확약했죠. 그런데 아직도 통일운동을 이적행위로 탄압하는 국보법이 존재하고 있으니 참말로 가공할 현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윤정원씨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보법은 즉각 철폐돼야≫.

안녕하세요.

새해에 들어선 오늘 각계 국민들속에서는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민가협공동의장은 당국이 이른바 민혁당, 범민주노동자회 등의 사건을 통해서 통일애국운동을 본격 탄압하고 있다고 하면서 존재근거를 잃은 국보법은 폐지돼야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또 범민련 남측본부도 국보법을 휘둘러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친북활동혐의로 ***학생들을 잡아가두는 당국의 처사에 항의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죠.

이런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는 한총련 소속 청년학생들과 학계, 언론계, 재야와 종교계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속에서도 강도높게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국가보안법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느냐하는 거예요.

그것은 국보법이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반민족적 악법이기 때문이죠.

국가보안법 제1조 *항을 보면 이북을 반국단체로, 이북민중을 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 규정해 놓음으로써 동족을 적으로, 대결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 하나의 지맥으로 이어온 동족을 분단된 국토의 다른 쪽에서 산다고해서 소멸해야할 적으로 규정하고 반북대결을 법제화한 국가보안법이야말로 반민족적인 악법중의 악법이라 해야 할겁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족의 단합에 의해서만 실현될수가 있죠. 비록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에 법통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만년동안 하나의 강토위에서 뗄레야 뗄수 없는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가 화합하고 단결하지 못할 근거는 없는 거예요. 민족이 있어야 사상도, 주의주장도, 이념도, 제도도 있는거죠. 때문에 6.15남북공동선언에서도 민족의 근본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제도가 서로 다르다고해서 이북을 반국가단체, 적으로 규정하고 동족을 원수로 규정하면서 법률화하고 있으니 이 악법이야말로 민족의 단결과 통일을 가로막는 제도적 차단물이 아닐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사이의 자유로운 접촉과 교류를 범죄시하며 통일자체를 반대하는 반통일악법입니다. 통일을 이룩하자면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만나야하잖아요. 그러나 국보법은 남쪽의 사람들이 북의 동족을 만나는 것 자체를 범죄시하고 있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8조를 보면 1항과 2항엔 이북동포들과 회합을 하거나 통신을 주고받으며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갖는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조항에 따르면 남과 북의 동포들이 절대로 만나 의견을 주고받을수 없고 서신거래도 할수가 없습니다. 남북이 통일을 하자면 서로 만나 대화를 해야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국보법은 만나기만해도 회합죄에 걸어서 10년까지 중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지난 시기 이북을 방문했던 문익환목사의 경우도 그렇죠. 문목사는 격폐된 남북간의 분위기에 파열구를 내기 위해서 평양에 갔고 평양에서 남북이 합심해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도를 의논을 하고 모색했을뿐입니다. 그런데 이남 당국자들은 이걸 범죄시하면서 문목사를 국가보안법에 걸어 구속했고 그 후에도 민족사이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일념에서 방북한 박용길여사와 임수경씨, 99년의 *****일행, 문규현신부, 한총련의 여러 대표들 등 수많은 통일인사들을 국보법에 걸어 감옥으로 끌어갔습니다. 이건 국보법이 있는한 남북민중이 서로 자유로이 만날수도, 그 어떤 통일논의도 할수 없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고 있어요.

국가보안법*** 역시 반국가단체***사람을 탈출잠입죄에 걸어 10년까지 징역형을 가하게 돼 있습니다.

남북간에 대화를 하고 서로 오가야 화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끊어진 민족의 혈맥도 이을수가 있죠. 그런데 국보법은 이걸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민중들의 조국통일운동을 가로막는 반통일파쇼악법이죠.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는 이북을 찬양고무 또는 동조하면서 ***사람은 중형에 처한다고 못박아놓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념들이 모호하고 그 해설범위가 매우 넓어 법적용에서 무제한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북에 대한 말을 하거나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정부에 반역적 정책에 대해 비판해도 이 조항에 걸리게 돼 있어요. 지난해 8.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동국대하고 강정구교수와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이 이 법에 의해 쇠고랑을 차고 감옥으로 끌려간 것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죠. 때문에 민중이 보안법을 가리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만능파쇼악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운운하는 건 민중에 대한 우롱이고 기만이라고 밖에 달리볼수가 없는거에요.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비춰봐도 그렇고 현정세의 추이를 놓고 봐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각계 민중들은 반민족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있는한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나갈수 없고 민족의 대단합과 나라의 통일도 이룩할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보법을 즉각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나서야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극악한 반통일파쇼악법인 국보법을 그냥두고서는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는 건 불보듯 명백하다 하겠는데요. 국보법철폐투쟁에 한사람같이 나서야 할서야 할줄 믿습니다.

동국대 이사회, 강교수 직위해제 판단보류

학생들, 회의장앞서 ≪시위≫…일본학계, ≪탄원서≫ 발표



강정구교수 직위해제 관련한 동국대 이사회가 29일(화) 낮 11시에 열렸으나 직위해제는 ≪판단보류≫됐다.

강정구교수 무죄판결 추진위(추진위)는 한겨레신문 생활광고란에 의견을 개진, ≪직위해제는 강정구교수를 두 번 죽이는 행위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추진위는 ≪냉전수구세력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강교수를 보호하기는커녕, 이를 빌미로 직위해제시키려는 동국대의 반지성적이고 반역사적인 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사회가 진행됐다는 소식을 접한 동국대 총학생회는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강정구교수 직위해제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강정구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싶다≫고 심경을 호소하며 이사회에서 강교수가 계속적으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11시부터 시작된 이사회는 4시경 마무됐으며 동국대 내부 직원의 자금횡령사건으로 인해 이사회가 길어졌다고 총학생회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로 인해 강교수 직위해제안은 특별한 시기가 정해지기보다는 또다시 무한정 ≪보류≫된 것이다.

한편, 교수 단체를 비롯한 각계에서부터 강정구교수 직위해제 반대를 위한 성명서, 기자회견을 발표하는데 이어 최근에는 일본진보단체와 교수들로부터 탄원서가 전해지는 등 국제사회에도 여파가 일 모양이다.

≪강정구교수 직위해제안 철회촉구≫를 위한 일본 진보학자 아키하야 시고즈에, 시바쿠토모코, 다나카모토미외 145명을 비롯 일본진보단체 홋카이도 민주음악가 집단, 칸사이대학 일한문제연구소, 일본음악협의회 홋카이도 지부외 15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탄원서를 발표한 것이다. 일본단체들은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과 송석구 총장 앞으로 보낸 탄원서에서 직위해제건의안이 제출됐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우려스러웠다고 전했다.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에서도 인권침해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학문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법을 대학관계자에게 대학본부에서 적용한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정구 교수는 일본학계에서도 남북통일문제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존경을 받고 있다고 전하며 만약 동국대에서 강교수를 직위해제한다면 ≪이는 강교수 개인은 물론 한반도 통일과 아시아 평화를 원하는 이들에게 아주 큰 손실이다≫고 주장했다.

백영순 기자

2002년 1월 29일 ©2002 Unews

한총련 합법화 위한 사회단체 간담회 열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31일 오전 11시 향린교회에서는 ≪한총련의 합법적인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전국연합, 범민련 남측본부,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민가협, 통일광장, 실천연대, 민주노동당, 전대협 동우회, 4월혁명회 등의 단체들이 참여했다.

간담회를 시작하며 권오헌 민가협 공동의장은 ≪작년 923명의 국가보안법 위반사례 중 907명이 학생들이다≫고 밝힌 뒤 ≪국가보안법 위반 학생들 대부분이 한총련 이적규정에 의한 것≫이라며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강위원 전 한총련 의장은 그간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활동을 보고하며 작년 9월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한총련에 사랑을!≫ 백서발간사업 ▲사회대책위 구성을 위한 활동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위원 전 의장은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해서 사회각계단체를 망라하는 사회대책위 구성이 필요하며, 현재 광주, 부산, 울산 등지에 지역준비위원회를 준비하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제안했던 권오헌 공동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사회대책기구 마련을 위한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또, 사회대책기구를 구성하는데 있어 아래로부터 활발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한총련의 합법적인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 준비모임≫을 만들 것을 결정했다.

이후 간담회는 준비모임의 대표로 권오헌 민가협 공동대표를, 집행책임자로 한충목 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을 선출하고 앞으로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 결성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한총련은 각 대학 총학생회의 연합조직으로 97년 5기 출범식 이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해마다 선출되는 수 백 명의 대의원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수배와 구속을 겪고 있다.



한총련은 작년부터 산하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법화를 위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는데, 이날 간담회 이후 사회각계 단체들의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렬 기자 (tongil@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1-31

한남대 총학생회장에게 소환장이 발부된 것에 대한 규탄성명

2002년 새해의 동이트고, 경향각지에서는 새 세기의 두 번째를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기 위해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분단 55년의 쌓이고 쌓인 한은 투쟁이 되고, 결의가 되어 각계 민중들속에서 분출되고 있으며, 가까운 몇해 안에 통일은 이루어진다는 신심에 차 넘치고 있다.

특히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당국간의 대화가 시작되고 각계 민중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통일은 멀지 않았구나 하고, 그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내외의 반통일 세력은 어떻게하나 통일의 시간표를 돌려세우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이회창과 한나라당은 계속해서 반통일적 반민주적 행각만을 일삼고 있고, 조선일보는 이들의 대변지로 미쳐 날뛰고 있다.

반통일 세력들은 다시 한번 통일로 애국하는 조직, 100만 대학생의 자주적 대중조직 ≪한총련≫을 서슬퍼런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다시 한번 탄압에 미쳐 날뛰고 있다. 터무늬없는 이적규정에 옭아매어 매해 수백의 양심수를 만들어내는 공안기구들은 올해 벽두시작부터 이러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다름 아닌 한남대 총학생회장 송직근 학우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는 말도 안되는 사유를 가져다 되며 소환장을 발부하였다. 충남도경찰청은 이러한 반통일적 행각이 얼마나 무서운 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이나 하는 것인가? 남북정북간의 대화가 긍정적 검토로 이루어지고 있고, 겨레의 의지는 나날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북의 3대 호소 3대 제의에 적극 각계민중이 동조해 나서고 있는 지금 여전히 구시대 악법에 얽매여 있다면 얼마나 우매한 일인가? 이것은 통일에 역행하고 있음을 스스로 들어내는 꼴이며, 7천만 겨레를 상대로 싸워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충남도경찰청과 반통일세력은 두 눈을 뜨고 민중의 기세를 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의 경고 망동이 얼마나 큰 화를 부를 수 있음을 알기전에 지금이라도 소환장을 즉각 철회하고, 이로 따른 상황에 대한 사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충청총련 이것인 단순히 한남대총학생회에 대한 탄압만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충청총련 15만 학우들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다함께 투쟁할 것이다.

계속되는 탄압 앞에 타협이란 있을 수 없을 것이며, 오직 민중의 역사적 심판만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더 이상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에 의존하기보다는 6.15공동선언에 의지해 통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의 살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반통일세력 척결하고 6.15공동선언 이행하자!!
공안기구 해체하고 6.15공동선언 이행하자!!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시키고 6.15공동선언 이행하자!!
시대착오적 충남도경은 소환장을 철회하고, 사죄하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2002년 2월 24일
애국의 열정 승리의 확신
9기 충청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건)

≪통상적≫으로 불법사찰을 감행하는 국정원의 불법행위 규탄한다!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말하는 현 정권에서도 불법사찰이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2001 민족통일대축전 범민련 방북대표 김세창 동지의 서울 이삿집을 국가정보원에서 불법 사찰을 하는 행위가 현장에서 발각되었다.

25일 5시경 서울 통인동에 이삿짐을 싣고 들어간 김세창 동지가 대문에 들어서자 불법 사진채취를 하고 나오는 국정원 직원과 맞닥뜨렸다. 불 보듯 뻔한 불법사찰 행위를 놓고 ≪대문만 찍었다≫≪필름이 없는 사진기다≫ 변명을 늘어놓고 필름을 달라고 하자 ≪지우겠다. 작동법을 모른다, 날씨가 추워서 사진이 찍히지 않았다≫는 둥 횡설수설하는 백주대낮의 불법사찰을 모면하려 했다.

더 이상 발뺌을 할 수 없자 국정원 직원은 자신은 김건일(가명)이며, 국정원 직원임을 스스로 밝혔다. 김세창 동지에 의하면 이번 8 · 15방북단 구속사건으로 국정원 조사 때 조사관으로 들어온 국정원 직원임이 확실하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불법사찰에 대한 정당한 항의에 ≪통상적으로 국정원이 하는 일이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불법 사찰행위를 놓고≪통상적인 일≫이라니 국정원은 ≪불법사찰≫이 자기 일이란 말이며, 이 시간에도 불법 사찰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더욱 한심한 것은 국가 경찰기관의 행태이다.

옥인동 파출소 측은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사찰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법 사찰 현장에서 붙잡은 국정원 직원이 파출소에서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고 도망치는 불법 도피를 방조했다. 또 사건 확인서를 요청하자 파출소 측은 ≪국정원이 상급기관이니 불편한 확인서를 끊어줄 수 없다≫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권한이 파출소에 없다≫며 불법범죄를 묵인하고 범죄자의 도주를 묵인했다.

이것이 정권의 인권의 현 주소임이 통탄스럽다.

여전히 불법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국정원은 존재의 이유가 없을뿐더러 해체되어야 할 반인권, 반통일 정보기관임이 이번 사건으로 또 한번 만천하에 드러났다.

최근 국정원의 전신 안기부가 생사람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수지 김≫사건을 보더라도 우리 국민과 민족을 위해 국정원은 하루빨리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은 만인이 공감하는 바이다.

우리는 구시대의 불법사찰을 밥먹듯하는 국정원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정원은 불법사찰을 감행한 것을 시인하고 공개적으로 당장 사과하라!

국정원은 불법사찰과 인권침해를 당장 그만두고 해체하라!

범민련 남측본부

4대제일주의는 이북의 기상(1)

우리 수령제일주의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19일~20일

우리 민중은 오늘도 내일도 조국통일의 이정표로 되고 있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려는 드높은 각오를 갖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탄생 90돌, 조선인민군창건 70돌이 되는 뜻 깊은 올해 첫아침에 이북의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는 공동사설을 발표했는데요. 공동사설은 우리 수령제일주의, 우리 사상제일주의, 우리 군대제일주의, 우리 제도제일주의 4대 제일주의를 민족의 기상으로,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영원한 구호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체의 숨결로 약동하는 이북의 기상, 4대제일주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수령제일주의에 관해 얘기 나눠보죠. 김현규씨 모셨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김현규씨 오늘 이 시간에 자리를 같이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올해 이북의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우리 수령제일주의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영도자님을 탁월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우리 민족만이 제기할수 있고 발양시킬수 있는거라고 봐지는데요.
김현규 : 아시는 것처럼 수령은 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수령의 위대성에 민족의 번영이 있고 찬란한 미래가 있는 겁니다. 공동사설에서는 우리 수령제일주의는 우리 민족의 재생과 융성을 가져다 준 생명수이고 이북 민중의 무비의 영웅성과 강의성, 높은 창조적 위력의 근본원천임이 밝혀져 있습니다.
오늘 세상사람들은 이북을 가리켜 세계에서 가장 전도가 양양한 나라로, 그 어떤 압력에도 끄떡없이 수령을 중심으로 변혁투쟁을 힘차게 전진시키는 존엄높은 나라라고 입을 모아 칭송하고 있는데요. 이건 바로 이북 민중이 이 세상 어느 민족도 누릴수 없었던 위대한 수령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주석님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절세의 위인이시고 그분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만년초석입니다. **김정일**장군님은 천리혜안의 예지와 오랜 정치경력, 비상히 풍부한 경험을 지니신 특출한 정치실력가이시고 끝없는 열정으로 변혁투쟁을 이끌어나가시는 희대의 정력가이신데요. 이처럼 탁월하신 분들을 수령으로 모신 우리 민족만이 우리 수령제일주의정신을 높이 제기하고 발양시킬수 있는 겁니다.
사회자 : 우리 수령제일주의정신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일찍이 수령중심론을 창시하시고 주석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숭배심으로 그분을 높이 모시는데서 솔선수범하심으로써 그것이 오늘 우리 민족, 민중들속에서 더욱 높이 발양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현규 : 바로 그렇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탁월한 사상이론활동으로 수령에 의해 변혁투쟁의 운명이 결정되고 민중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수령중심론을 창시하셨는데요. 운명개척의 무기 그건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영도를 받는데 있습니다.
사실 욕망 하나만으로써는 민중의 변혁투쟁에서 승리를 거둘수 없죠. 사상을 주고 전략전술을 주고 단결을 주는 수령을 떠나 변혁투쟁의 승리를 생각한다는 건 태양이 없는 곳에서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인데요.
우리의 민족사를 봐도 그렇고 파리꼼뮨을 비롯한 인류의 투쟁사를 봐도 역사의 진보와 발전은 수령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걸 피의 교훈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 먼 얘기는 그만 두고라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세기 말무렵에 동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 변혁************수령의 지위와 역할이 거세되고 수령의 ****가슴아픈 비극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일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진통을 겪었어요. 또 얼마나 많은 민중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김현규 : 그렇습니다. 그때 그자들은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전혀 구별하지 않고 수령중심론을 펼대신 *******우리 수령제일주의를 확고한 **로 삼고 계시는데요. 그분께서는 우리 수령님처럼 위대하신 분은 세상에 없다시면서 주석님의 한평생 노고와 체취가 어려있는 이 땅위에 강성대국을 기어이 건설해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시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석님을 끝없이 경모하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위대한 주석님의 뜻대로 영원히 자주성을 견지해야한다고 간곡히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주석님에 대한 장군님의 그 위대한 충정, 지극한 의리를 구현해서 ***은 올해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수령제일주의정신을 전민족이 엄숙히 **거라고 봅니다.
사회자 : 위대한 주석님께서 ****투쟁은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해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세계 **고 있는데요. 탁월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겨레가 영원히 다함없이 높이 모시고 따라야할 위대한 수령이십니다.
김현규 :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는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되고 있죠. 그분께서 계셔 이북민중은 민족의 존엄을 세계 만방에 높이 떨치고 있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이북의 위상을 무너뜨려보려는 제국주의자들과 정면으로 맞서 대북압살책동을 짓부수고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군정치로 험산준령을 과감히 헤치시며 우리 조국을 빛내주시기 위해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은 정녕 우리 민족이 높이 받들어 모시고 세계가 공인하는 또한분의 탁월한 수령이십니다.
사회자 : 정말 그 어떠한 난관과 시련도 다 물리치시고 우리 민족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탁월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있*******. 그럼 이번에는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우리 수령제일주의정신을 더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과제들로 얘기를 좀더 이어갔으면 하는데요.
김현규 : 이북 신문들의 새해공동사설은 우리는 자기 수령, 자기 영도자가 제일이고 수령의 존함으로 빛나는 태양민족이 제일이라는 순결한 마음이 자자손손 우리 민족의 넋으로 영원히 이어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주석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며 그분의 업적을 옹호계승하는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심화시켜야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은 누구나 엎어 놓아도 매달아 놓아도 수령만세를 부르고 절해고도에서도 수령에 대한 의리와 절개를 지키는 2000년대의 ≪ㅌ.ㄷ≫열혈투사가 될걸 강조하면서 그건 주석님탄생 90주년을 계기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전민족적 사상감정

이 사회에 꽉차 넘쳐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정일**장군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를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공동사설은 이를 위해 장군님과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 운명도 하나가 되는 순결의 인간, 순결의 동지가 되여야 한다고, 말로써가 아니라 사생결단의 각오와 높은 실적으로 장군님을 받드는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우리 수령제일주의에 관해 함께 얘기나눠봤는데요. 이북의 기상의 하나인 우리 수령제일주의는 이북 민중만이 아니라 이 땅의 *****있습니다. 세인이 한결같이 탁월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르는 **김정일**장군님이 계시는 한 자주, 민주, 통일로 향하는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성공탑을 쌓을 것이고 승리된 조국땅위에는 강성대국의 깃발이 힘차게 나부낄겁니다.
새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우리 수령제일주의에 ****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김현규씨 모시고 우리 수령제일주의에 관해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4대제일주의는 이북의 기상(2)

사상제일주의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21일~22일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1930년 6월 카륜에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회의를 여시고 거기서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역사적 보고를 하셨어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명저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바로 그 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천명하셨고 조선혁명의 주체적 노선을 밝힌 것이라고 지적하고 계신데요. 그후 오늘까지 주석님과 장군님께서는 어떤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주체의 한길로만 걸어오셨고 그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현규씨 모시고 새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올해 4대과제 알아보겠습니다. 사상제일주의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전시간에는 이북의 올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4대 제일주의에서 수령제일주의에 관해서 얘길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연속으로 사상제일주의에 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이렇게 자리 함께 했습니다.
김현규 : 전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북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기 위해서는 수령제일주의와 함께 사상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갈데 관한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사상제일주의는 주체사상의 불패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김정일**영도자님의 사상을 영원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싸워나가려는 이북의 드팀없는 의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의 자주위업은 주체사상의 기초하에 개척되고 전진해오면서 역사의 온갖 시련과 풍파를 뚫고 승리해온 변혁운동입니다. 더욱이 이북에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심화발전시키신 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투쟁함으로써 풍파사나운 20세기의 준엄한 연대들을 승리로 수놓아올수 있었고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낼수 있었습니다.
지나온 역사는 이북변혁운동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공적, 귀중한 전취물들은 어느 것이나 다 주체사상이 가져다준 고귀한 결실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공동사설에서는 세기가 바뀌고 역사가 멀리 전진한다고해도 변혁운동은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에서 한순간의 탈선도 있을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자 : 그래서 오늘 주체사상의 생명력은 변혁운동이 전진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확고해지는 것이고 이러한 주체사상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변혁운동에서 제1생명선으로 거머쥐고 나가야할 불멸의 기치라고 할수 있는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동사설에서는 변혁운동이 계속되는한 민족을 주체사상으로 정신무장시키는 사업을 순간도 중단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에 관해서 얘기 나눴으면 하는데요.
김현규 : 공동사설에서는 주체사상을 변혁운동의 천하지대본으로 튼튼히 거머쥐고 나가야한다고 하면서 주체사상을 뿌리로해서 선군정치도 나오고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투쟁속에서 이북의 일심단결도, 우월한 사회주의도 생겨났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시기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 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펴나가시는 선군정치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기 위한 중요사업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공동사설에서도 밝혀졌지만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군대이자 당이며 국가이며 민중이라는 독창적인 선군의 원리도 바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고 선군의 전통도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자기식대로 해나가는 이북의 변혁운동실천속에서 이룩된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군정치의 위력이자 곧 주체사상의 위력입니다. 바로 이런 결로해서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정신무장한 이북 군대와 민중이 거머쥔 총대는 그 어떤 천만대적이 달려들어도 끄떡없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자 : 그렇죠.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 건 현시기 이북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한 요구이기도 하잖아요.
김현규 : 옳습니다. 최근 수년간 이북에서는 **김정일**영도자님의 세련된 영도하에 고난의 행군의 나날에 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가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건 전적으로 사상사업,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한데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상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정신무장한 사람들에게는 뚫지 못할 난관은 있을수 없습니다. 이건 이북의 현실을 통해 잘알수 있는 겁니다.
현시기 이북의 사회주의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진격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사람들은 예외없이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북은 국력이 강하고 민중들이 잘사는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민중들속에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해서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나남의 봉화가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래서 이북은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을 맞는 올해를 주체사상의 기치하에 변혁운동의 모든 공간에서 일대앙양을 일으켜야한다고 호소하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공동사설에 지적돼 있는 바와 같이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건 우선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원리교양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김현규 : 옳습니다. 이북이 제시하는 모든 사상과 이론, 방법은 그 어느것이나 주체사상의 원리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주체사상을 원리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잘해야 주체사상의 독창성과 진리성, 불패의 생활력을 민중들속에 깊이 체득시킬수 있고 민중의 자주위업수행을 위해 모든 걸 다바치는 참다운 열혈투사로 준비시킬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북은 군사를 중시하고 군대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비롯해서 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모든 중요정책시행을 다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리고 공동사설에서는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나가야한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규 : 네, 그렇죠. 오늘 이북은 주체사상교양을 선군의 기치하에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난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용과 강성대국건설이 힘있게 다그쳐지는 자랑찬 현실을 가지고 설득력있게 벌여나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모든 민중들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에서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잘 이끌어줌으로써 주체사상교양의 결과가 실천투쟁속에서 나타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공동사설에서는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원리교양과 함께 혁명실천을 통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것과 함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변혁운동에서 자주적 대를 확고히 세워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김현규 : 공동사설에서 지적되었지만 변혁운동을 성공리에 벌여나가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주적 대를 확고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체사상은 철저한 자주사상이고 변혁운동에서 자주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할 것을 요구하는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북에서는 주체사상교양을 실속있게 벌여 누구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제정신을 갖고 제힘으로 일떠서며 언어와 풍습, 생활양식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성을 적극 살려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중들이 높은 민족적 자존심을 지니고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는 열렬한 애국자, 진정한 민족주의자가 되도록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와 같은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이 추호도 발붙일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하기에 세계 진보적 인류는 불멸의 주체사상은 인류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자주시대의 위대한 사상이라면서 주체사상제일주의를 들고 나가는 ***을 부르짖자고 하면서 주체사상은 조선민중뿐 아니라 진보적 인류에게 있어서도 귀중한 정신적 지주, 불멸의 향도로 ****격찬하고 있는거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김현규씨 말씀들으면서 다시한번 각인하고 있죠. 불멸의 주체사상은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 자주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투쟁의 앞길을 명시하는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에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을 가속화해서 사회의 민주화, 조국통일투쟁에서 알찬 전진 이루리라 새롭게 마음 다지고 있습니다.

4대제일주의는 이북의 기상(3)

군대제일주의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23일~24일

통신사병들이 창조한 혁명적 군인정신을 온 나라에 일반화해서 전민을 군인정신으로 무장시키고 정예화된 인민군대를 기본으로해서 사회주의위업 전반을 밀고나가신 **김정일**장군님의 독특한 선군정치는 정말 거대한 활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군대제일주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현규씨 모셨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이북의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된 4대제일주의의 세번째 부분 ≪군대제일주의≫에 관해서 얘기 나눴으면 하는데요.
김현규 : 공동사설에는 총대는 곧 군력이며 민족자주권이라면서 군대제일주의야말로 총대로 승리해온 조선혁명의 전통이며 불패의 국력에 의해 전진하는 이북식 사회주의의 영원한 표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대를 중시하고 선군정치를 하는한 이북의 사상과 정치체제는 굳건하며 이북 사회주의는 끄떡없다는 것이 강조됐습니다.
사회자 : 오늘 이북은 날로 가중되는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과 분열주의세력들의 반통일책동을 단호히 짓부수면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키고 세계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불패의 보루로 그 위상을 만방에 떨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승리의 비결은 백두의 천출명장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군사를 국사중의 국사로 여기시고 군대제일주의, 다시말해서 선군정치를 펴나가시기 때문아닙니까.
김현규 : 돌이켜보면 선군정치는 만고절세의 위인이신 **김일성**주석님에 의해 그 역사적 뿌리가 마련되고 탁월한 군사의 영장이신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더욱 발전되고 완성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동자계급의 변혁투쟁사는 군대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변혁승리를 이룩할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변혁투쟁은 반동세력과의 힘의 대결을 동반하는 만큼 강한 군력에 의거해야만 승리할수 있고 승리한 변혁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찌기 이 변혁원리를 터득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변혁투쟁의 길에 나서시어 오랫동안 변혁투쟁을 영도해오신 전 과정에 총대중시, 군사중시노선을 일관하게 견지해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무장한 일제를 때려부수고 조국을 광복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무장투쟁을 벌이는데 있다는 사상을 제시하시고 먼저 항일

유격대부터 창건하셨고 조국을 광복한 다음에야 비로소 당도, 국가도 창건하셨습니다.
사회자 : 오늘날 주석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석님의 선군사상을 그대로 계승하셔서 오늘의 현실적 조건에 걸맞는 하나의 정치방식으로 심화발전시키셨잖아요.
김현규 : 네, 그렇죠.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만들어 조국을 보위하며 군대를 핵심으로해서 변혁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군대를 기둥으로 전반적인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 정치방식입니다.
이북이 그처럼 어려웠던 최근 수년간 제국주의자들의 반북압살책동을 짓부수고 사회주의제도를 지켜낸 것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고수하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놓은 것도 그리고 또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이 열리고 나라의 국제적 권위가 높아진 것도 다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의 결과입니다.
사회자 : 정말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인류의 염원인 사회주의와 인간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정치방식으로써 오늘 자주정치의 활력을 세계 정치무대에 뚜렷이 과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설에는 건군 70돌을 맞는 올해를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는 승리자의 열병의 해로 되게 해야한다고 지적돼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민군대에서 선군정치의 요구에 걸맞게 변혁수행의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민중의 거울이 되며 변혁투쟁대오의 기수가 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인민군대는 세계 유일무이한 사상과 신념의 강군이고 이북 사회에서 가장 변혁적인 전투대오입니다. 그리고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제일 높으며 조직성과 규율성, 단결력도 제일 막강한데요.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이 전례없이 노골화됐을때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목숨으로 보위할데 대한 구호를 제일먼저 들고 실천에 옮긴 것도 인민군대입니다.
그리고 조선노동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김정일**최고사령관님의 명령을 결사관철하는 기풍을 발휘한 것도 인민군대입니다. 또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아하겠다는 구호를 들고 경제의 주요 돌파구를 열고 노력적 위훈을 떨친 것도 다름아닌 인민군대입니다.
사회자 : 그래서 오늘 인민군대는 **김정일**장군님옹위의 제1선대오로, 사회주의애국보위사업에도 정예화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자랑떨치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김현규 : 그뿐이 아니죠. 인민군대는 전군이 **김정일**장군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한결같이 움직이는 변혁적인 영군체계와 군풍을 지닌 강군으로, 조국과 민중, 사회주의를 위해 헌신하며 계급적 원수들과는 타협을 모르고 싸우는 사랑과 증오의 심장을 지닌 강군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하기에 오늘 인민군대는 명장의 영도를 받는 인민군대는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며 무자비하다는 것을 공식선언하고 있어요. 만약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감히 오판하고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침략자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무주고혼이 될 것이고 그들의 아성은 지구상 그 어디에 있건 무사치 못할 것입니다.
사회자 : 공동사설에서는 이북 민중은 오랜 실생활을 통해서 인민군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새긴 민중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김현규 : 네, 그렇죠. 이북민중은 백두산3대장군의 군대로 이름 불리우고 있고 주체위업의 주력군으로 자랑떨치는 인민군대에 대한 한없는 자긍심을 깊이 간직한 민중이고 선군정치시대에 사는 민중답게 인민군대가 높이 발휘하는 군인정신과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 배우고 생활화하고 있는 민중입니다. 바로 이런 속에서 민중은 군대제일주의구호를 심장깊이 새기고 군대를 친혈육처럼 사랑하며 또 군대는 민중이 제일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민중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이북사회는 그야말로 혈연적인 군민관계로 똘똘뭉친 군사강국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북처럼 당과 수령, 군대와 민중이 하나의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더는 없고 앞으로 그 어떤 힘으로써도 이북을 절대로 압살할수 없습니다.
사회자 :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오늘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짓밟고 전횡을 부리지만 이북에 대해서 감히 어쩌지 못하고 오히려 북을 무서워하고 굽어드는 건 전적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총대중시, 선군정치를 확고히 견지하시고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셨기 때문이죠. 정말 이북 민중과 조선인민군은 **김정일**장군님과 같으신 세기의 위인을 영도자로, 최고사령관으로 모셨기에 가장 존엄높고 긍지높은 민족으로 될수 있었고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날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은 **김정일**장군님의 독특한 선군정치아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강성대국건설투쟁에 반드시 승리를 이룩해 나갈겁니다. 다음 이 시간 또 자리 같이하시죠.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4대제일주의는 이북의 기상(4)

제도제일주의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25일 ~ 26일

북의 새해공동사설에서 밝힌 4대제일주의중에서 제도제일주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주시분 김현규씨입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이북의 새해공동사설에서 밝힌 4대제일주의중에서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활짝 꽃피워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자리함께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이북의 공동사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돌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는 구호를 제시하고 혁명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갈데 관해 호소하면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올해의 대진군에서 수령, 사상, 군대, 제도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서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여야한다는 4대제일주의를 밝히고 있잖아요. 여기서 제도제일주의를 활짝 꽃피워나가야한다는 사상에서 4대제일주의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데요.

김현규 : 이북의 공동사설에서 밝힌 4대제일주의에서 제도제일주의를 활짝 꽃피워나가야한다는 사상은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이북 민중들의 올해 투쟁과제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제도의 진보성과 위대성은 사람의 ****민중의 자주적 요구를 사회전반에 어떻게 구현하고 있느냐 하는데 따라 규정됩니다.
사회자 : 또한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돼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고 발전하려는 민중의 지향과 요구를 제도적으로 얼마만큼 뒷받침해주는 사회냐 그렇지 못한 사회냐에 따라서 해당 사회의 진보성과 우월성이 규정되는거죠.
김현규 : 그런 맥락에서 볼때 이북의 사회제도는 민중을 위한 사회, 민중을 위한 참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민중중심의 사회제도라고 말할수 있는데요. 일찍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어 잃었던 나라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광복후 이북땅위에 근로하는 민중이 참주인으로 된 진정한 민중정권을 세우셨고 전후에는 자주, 자립, 자위로 위용떨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민중이 사회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돼서 사회의 모든 것이 민중을 위해 봉사하는 참다운 민중낙원을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이북 민중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탁월한 선군혁명영도로하여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찾아주시고 꽃피워주신 민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어가고 있습니다.
이북 민중은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고립압살책동에도 끄떡없이 세계유일의 사회주의보루를 굳건히 지키면서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고 있고 민족의 내일을 향도하는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이북의 공동사설에서 제시한 제도제일주의를 활짝 꽃펴나가야한다는 호소는 바로 경애하는 주석님의 한생이 어려있고 민중중심의 사회주의로 펼쳐지고 있는 세계유일의 가장 우월한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려는 이북민중의 애국의 열정이 높뛰어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동사설에서는 제도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우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규 : 그렇죠. 공동사설에서는 사상과 군대제일주의를 하자는 것도 결국은 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자는데 있다는 걸 밝히면서 현 시기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민중생활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우는데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최근 수년간 이북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전례없는 고립압살책동으로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었잖아요. 그렇지만 위대한 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하에 이북 민중은 선군의 기치 높이 치켜들고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수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전진시켜오지 않았습니까.
김현규 : 공동사설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러 해째 어려운 난관을 겪던 이북 민중은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다그쳐 경제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죠. 전반적 경제분야에서 생산앙양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도처에 현대적 기술에 기초한 생산기지들이 일떠서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전면적인 공세에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지난해 이북 민중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북 민중은 ≪경제강국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민족최대의 명절을 빛내이자≫는 구호를 제시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대고조를 일으켜 나가고 있는데요. 공동사설에서는 제도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서 자립경제의 현실적 요구와 전망에 걸맞게 채취공업발전에 커다란 힘을 넣으며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틀어쥐고 이 부문에서부터 경제적 앙양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야 한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토지정리와 물길공사를 최상의 질적 수준에 끝내고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한다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사회제도의 우월성은 인민생활에서 찾게 된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김현규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사설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민중적인 것, 대중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민중생활과 관련한 문제들을 선결적인 과제로 내세워 풀어나가야 한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꾸려진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의 위력을 적극 발양시켜 민중들의 생활을 보다 기름지게 하며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고 도시와 농촌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나가야 한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환경과 오늘의 현실적 요구에 걸맞게 경제관리를 혁명적으로 개선완성할데 관한 과제도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죠.
사회자 : 이북의 새해공동사설에서는 제도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서 과학기술과 교육사업발전에도 전 국가적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김현규 : 해당나라의 진보와 번영은 과학기술과 인재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말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 급신장하고 있는 오늘날의 첨단과학시대에서 과학기술과 교육사업발전에 힘을 넣는건 하나의 세계적 추세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설에서는 공업의 기술개건과 현대화를 중요하고 절실한 부문부터 하나씩 착실하게 풀어나가야 하며 과학기술을 전반적으로 빨리 발전시키면서 특히 정보기술과 정보산업발전에 힘을 집중한다는 걸 지적하고 실력있는 첨단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 내야 한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사회자 : 제도제일주의를 활짝 꽃피워나가야한다는 내용은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 이룩한 고귀한 전취물에 대한 이북 민중들의 원대한 자긍심이 어려있죠.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려서 강성대국의 그날을 앞당겨오려는 이북의 기상이 나래치고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까지 네번에 걸쳐서 이북의 새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4대제일주의에 관해서 연속대담으로 보내드렸는데요.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애국민중은 4대제일주의는 이북의 기상이라는데 대해 올바로 인식하고 민중들속에 널리 해설선전해야겠죠.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올해는 6.15남북공동선언발표 2돌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요. 마음도, 숨결도 북녘형제들과 함께 해서 민족의 단합된 힘과 지혜로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야겠죠.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은 민족자주통일의 지름길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26일～27일

6.15공동선언이 발표된후 남북관계에서는 지난시기에 생각도 할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로 펼쳐졌죠. 63명 비전향장기수들의 북송, 언론사대표단의 평양방문, 여러 통로를 걸치는 남북간회담과 경협사업들, 이산가족상봉, 각계 인사들의 백두산관광, 조선노동당창건 55돐경축행사참관, 민족통일대토론회, 남북노동자농민들의 금강산통일대회 등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된지는 오래지 않지만 그간에 이룩된 성과는 대단한 것이였습니다.

이같은 성과는 6.15공동선언이야말로 조국통일의 이정표이고 공동선언이행에 조국통일의 지름길이 있다는 걸 분명히 실감케했죠. 김현규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간 한해를 돌이켜보며 희망찬 올해를 설계하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새해를 맞이할때마다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는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사무치는 통일열망이 더욱 뜨거워져간다 하겠습니다.

강렬한 통일열망을 안고 투쟁하여온 지난해의 통일운동은 실로 귀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민족자주통일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은 민족자주통일의 지름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민중은 민족자주의 기치아래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서 중요한건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그것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조국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남과 북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때문에 6.15공동선언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조국통일의 이정표로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자주통일의 구호를 더높이 치켜들고 모든 것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복종시키면서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이룩해야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미제의 대북적대시정책이 극한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외세와 공조한 반통일세력은 동족을 겨냥한 비상경계조치를 취하고 대대적인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으로 정세를 유례없이 긴장시켰습니다. 이같은 반북대결책동은 남과 북 사이에 진행되어오던 당국간의 회담을 결렬시키는 등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이행에 엄중한 장애를 조래했습니다. 이로인해 지금 우리 민중은 남북공동선언을 지켜 민족자주통일의 길로 계속 전진하는가 아니면 민족분열의 비극을 계속 감수해야하는가 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하겠습니다.

통일만이 민족의 살길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지키는 길에 겨레가 살길, 조국통일이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이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쟁취한 귀중한 전취물입니다.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들고 나가야할 민족공동의 기치입니다.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고 통일방도를 연방제방식으로 확정했으며 남북사이의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풀어나가며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의 증진을 명기하고 있는 남북공동선언이야말로 조국통일의 이정표입니다.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이룩된 일련의 경이적인 성과는 공동선언의 무진장한 활력을 과시했으며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할때 우리 민족의 지향에 걸맞게 통일을 순조롭게 더 빨리 실현할수 있다는 걸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외세에게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도로 찾는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주인은 우리 민족자신입니다. 그 어떤 외부세력도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대신할수 없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 민족만이 통일위업을 담당할수 있고 조성된 난관을 헤치고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갈수 있습니다. 이 땅의 반통일세력들은 각성해야합니다.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압살하려는 주적론을 철회하고 반통일파쇼악법인 국보법을 철폐해야하며 외세에 민족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반역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 겨레는 남에 있건 북에 있건 해외에 있건 모두가 6.15남북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온갖 시도들을 단호히 배격해야합니다.

애국자인가 민족반역자인가 하는 기준은 현시기 남북공동선언을 옹호고수하는가 반대하는가 하는 그겁니다. 온 겨레는 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남북관계가 화해와 단합, 통일에로 나아가게 해야합니다.

각계 민중은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통일세력인 외세와의 공조책동을 걸음마다 저지파탄시켜야하며 반통일파쇼악법인 국보법을 철폐시켜야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반통일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해야합니다.

현시기 미제와 이 땅의 호전분자들이 반테러의 미명하에 감행하고 있는 반북반통일책동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에는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전쟁위험이 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는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생각할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호전세력들의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 민족의 드팀없는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대북고립압살기도를 버려야하며 이남땅에서 미침략군을 당장 철수시켜야합니다. 외세와 그에 추종하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으로 우리 민족앞에 조성된 정세는 엄혹하지만 민족자주통일에 대한 우리 겨레의 의지는 확고부동합니다. 7천만 겨레는 남북공동선언이행이 민족자주통일의 지름길임을 가슴깊이 새기고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 통일위업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을 옹호고수하는 사람은 애국자고 그것을 부정하고 거세하는 사람은 민족반역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6.15공동선언이행에 적극 동참해야하겠죠.

주적론을 해부해본다

통일운동가 김종수씨 /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26일~27일

지금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이 성실히 이행돼서 통일이 빨리 이룩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남북간의 화해와 신뢰의 분위기가 마련돼야 하는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남의 군부호전집단과 이회창한나라당패당들, 조선일보 등 반통일세력들은 주적론을 떠들고 있어서 민족의 분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서 사시는 통일운동가 김종수씨의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적론을 해부해본다≫.

새해 벽두부터 이른바 주적론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군부일각에서도 그렇고 보수우익세력이 득실한 한나라당패거리들속에서도 주적론돌풍이 세차게 일고 있다. 심지어 보수언론인 조선일보 1월 3일자 사설은 북이 이번 공동사설에서 주적론철회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것마저 트집을 잡아 시비질을 해나서고 있다. 이쯤되고 보면 주적론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간다.

새삼스러운 얘기같지만 그러면 그네들이 염불처럼 외워대는 이른바 주적론이란 도대체 뭐냐하는 것이다.

주적론이란 액면 그대로 주되는 적, 그러니까 상종할수 없는 원수라는 얘기가 되겠다. 결국 그들이 떠들어대는 주적론은 동족인 이북을 주되는 적으로, 대결대상으로 보는 반민족반통일적 논리이다. 이 지구촌은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다. 하지만 자기와 한 핏줄을 나눈 동족을 소멸해야할 주적으로 모는 예는 아마 없는 줄로 안다.

휴전선 넘어 북측땅에 살고 있는 동포들로 말하면 단군을 원시조로 한 단군민족으로써 반만년 유구한 세월 우리와 함께 살아온 형제들이다. 그들은 우리와 언어도 같고 풍습도 같으며 피도 같다. 세계에서도 보기드문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 하겠다.

뗄레야 뗄수 없고 갈라질래야 갈라져 살수 없는 것이 우리 민족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군부호전분자들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을 비롯한 보수우익분자들이 이북동포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주적론은 민족의 피는 고사하고 민족성, 애국애족의 이념이라고는 꼬물만치도 찾아볼수 없는 매국의 무리, 민족반역아들만이 할 소리이다.

물론 주적이라는 말이 나온지는 오래지 않지만 그것은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다. 민족분열과 남북대결에서 살 궁리를 찾은 이 땅의 역대 위정자들은 있지도 않은 남침위협을 떠들어대면서 이북을동족으로가 아니라 소멸해야할 적으로 몰아붙였다. 하지만 역대 통치배들이 그처럼 소리높여 외쳐대던 남침위협은 늘 *****. 남침위협이란 결국 미국과 이 땅의 역대 위정자들이 이북을 모해압살하고 저들의 침략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고안해낸 날조품에 지나지 않았다. 남침위협설의 변동이 바로 주적론이다.

보수우익호전세력들이 부르짖는 주적론은 변화된 오늘의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행위가 아닐수 없다. 지금은 20세기를 넘기고 21세기에 두돌기의 연륜을 새기는 해이다. 그 기간동안 세계는 물론 한반도에서도 급진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거기서 채택된 6.15남북공동선언이다. 50여년간이나 굳게 닫겼던 남북사이의 물꼬가 트고 불신과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새 전기가 마련됐다. 이것은 남북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고귀한 열매이다. 더욱이 6.15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기본골자로하는 민족자주선언이고 평화통일선언이며 민족대단결선언이다. 공동선언에는 이북의 동포들을 더이상 질시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협력하며 민족사의 새 장을 열어나가야한다는 시대와 겨레의 엄숙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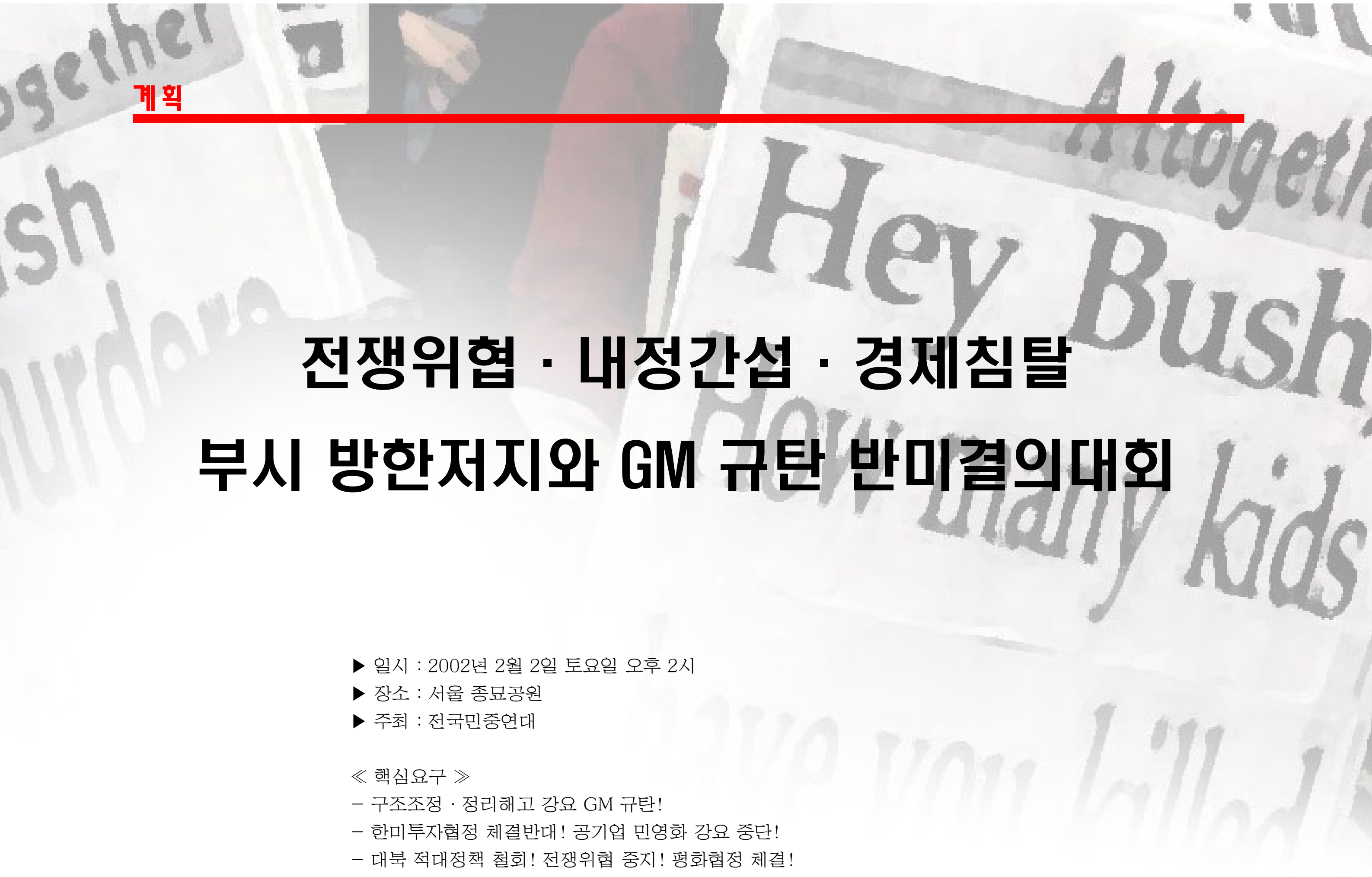
6.15공동선언이 발표된지는 오래지 않지만 그 이행과정에서는 벌써 괄목할만한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이것은 남북이 대결할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고 힘을 합치면 통일은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가까운 앞날에 이루어낼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러한때 군부호전분자들과 보수우익세력들이 과거 낡은 대결시대의 유물인 주적론을 철회할 대신에 오히려 선임자들보다 더 요란스럽게 주적나발을 불어대고 있다. 심지어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탁자에 마주앉아서까지 동족에 대한 주적개념의 불가피성을 변호하는 망발을 마구 내뱉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들이야말로 화해와 단합, 통일로 가는 시대와 대세의 흐름도 가늠해볼줄 모르는 천치가 아닐수 없다.

통일의 앞길에 찬물을 끼얹고 남북관계개선에 제동을 거는 이런 자들이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한 통일은 언제가도 실현될수 없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른대로 하라고 했다고 우리의 주적은 이북이 아니라 다름아닌 미국이다. 그들이 구태여 주적론을 펴려한다면 마땅히 이에 대해 말해야한다. 유구한 세월 화목하고 단란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전쟁의 참화와 재난을 덮씌운 것도 미국이고 장장 반백년이 넘도록 이 땅에 틀고 앉아 주인행세를 하며 살인과 강간, 파괴와 방화 등 온갖 범죄행위를 다반사로 여기는 것도 미국이다. 미국은 벗도 혈맹도 아닌 적국이다. 제 소굴로 돌아가라. 내 부모, 내 형제 학살한 미국은 나가라, 민족을 거역하고 통일에 역행하는 자들은 민중들속에서 터져나오는 저 힘찬 목소리에 마땅히 귀를 기울여야한다. 미국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적이고 불굴대천의 원수이며 이 하늘아래서 같이 살수없는 제1주적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아닌보살 함구무언하고 도리어 한 핏줄을 나눈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런 자들이야말로 분명히 우리 민족 아닌 외세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대매국배족의 무리다.

주적이 무엇인지 그 개념조차 분간하지 못하고 훼방대는 이런 청맹과니들, 이런 매국배족의 무리들이 정계에 틀고앉아 있는 한 민족자주통일선언인 6.15공동선언이행은 물론 민족최대의 숙원인 통일은 더더욱 요원하게 될 것이다.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주적론 제창자들은 하루빨리 제거돼야 한다. 아울러 구시대의 유물인 주적론은 지체없이 철회돼야한다.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도 그렇고 남북관계개선 나아가서 통일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아야 하겠죠. 무고한 우리 양민들을 집단학살하고 반세기 이상이 되도록 우리 민중, 우리 민족에게 온갖 불행을 다 강요하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미국이 바로 우리의 주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할겁니다.



전쟁위협 · 내정간섭 · 경제침탈
부시 방한저지와 GM 규탄 반미결의대회

▶ 일시 : 2002년 2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 서울 종묘공원
▶ 주최 : 전국민중연대

≪ 핵심요구 ≫
- 구조조정 · 정리해고 강요 GM 규탄!
- 한미투자협정 체결반대! 공기업 민영화 강요 중단!
- 대북 적대정책 철회! 전쟁위협 중지! 평화협정 체결!
- 무기구입 강요 반대! MD반대! 평화군축 실현!
- 용산미군기지 반환! 주한미군 철수!

● 확전을 통해 전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은 아프카니스탄을 즉각 공격하였으며 일정정도 승리했다고 보면서 전쟁의 불길을 전세계로 퍼트리려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통령 부시는 올해를 ≪전쟁의 해≫로 규정하면서 확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이라크의 군사기지를 이미 습격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전세계 평화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아직도 분단으로 고통받는 한반도 민중들에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 무기강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며 전쟁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0조원에 이르는 무기를 강매함으로서 자국 내 제고 무기를 팔아치우려 하고 있다. 또한 용산미군기지 내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주한미군의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용산미군기지를 반환하라는 요구는 1000만 서울시민들의 요구이며 4천만 민중들의 요구이다. 또한, 전동록씨 감전사고를 통해본 주한미군의 파렴치한 모습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역사의 죄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립 계획을 거의 확정하고 있는 것다는 것은 자신들이 한반도를 떠나지 않고 영구주둔하겠다는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다.

● 민중의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미국!

미국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아래 경제침탈을 자행하며 대우자동차를 GM에 헐값으로 매각하려고 추진하는 등 한국 경제를 파탄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나아가 대우자동자 판매조합 노조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WTO 쌀개방 강요에 의해 주소득의 50% 넘어서는 쌀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농민들이 아스팔트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듯 민중의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인 것이다.

● 2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종묘공원에서 개최될 ≪전쟁위협 · 내정간섭 · 경제침탈 부시방한저지와 GM 규탄 반미결의대회≫!

확전을 통한 세계 평화위협, 무기강매 및 한반도 전쟁 분위기 조장, 민중의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미국 대통령 부시의 방한을 전국민의 이름으로 저지시켜 냅시다.

2002년 전위당의 신년메시지는 있다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편집국 보도 42호)

올해 주체 91(2002)년에도 어김 없이 당보, 군보, 청년보의 신년공동사설이 발표되었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 제하의 신년공동사설은 북의 민중만이 아니라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민족을 주체의 통일강성대국건설로 부르는 웅대한 설계도이며 절절한 호소문이다. 이번 신년공동사설에는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기치와 그 구체적 실현방도가 명백히 밝혀져 있다.

≪올해 우리는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한다.

6. 15북남공동선언은 오늘도 래일도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다. 강렬한 통일열망을 안고 투쟁하여 온 지난해의 교훈은 북남공동선언리행에 민족자주통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민족자주통일의 지름길은 6. 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옳게 구현해 나가는데 있다.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조국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북과 남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것이다. 온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자주통일의 구호를 더 높이 추켜 들고 모든것을 민족공동의 리익에 복종시키며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는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모해압살할것을 노린 ≪주적≫론을 철회하고 반통일파쑈악법인 ≪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하며 외세에 민족의 리익을 희생시키는 반역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6. 15북남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온갖 시도들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6. 15북남공동선언을 옹호고수하는 사람은 애국자이고 그것을 부정하고 거세하는 사람은 민족반역자이다. 우리 민족은 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북남관계가 화해와 단합, 통일에로 나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자면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반테로≫의 명목밑에 감행되고 있는 미제와 남조선 호전분자들의 반공화국, 반통일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있다. 새 전쟁의 위협이 날로 커 가고 있는 정세하에서는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호전세력들의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 나서야 할것이다. 제국주의호전계층들은 우리 민족의 드팀 없는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대조선고립압살기도를 버려야 하며 남조선에서 침략군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조국통일의 전진도상에는 난관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지만 그 어떤 힘으로도 자주통일에로 향한 거세찬 민족사적흐름을 절대로 가로 막을수 없다. 온 세계가 우러르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있고 옳바른 민족통일강령이 있는 한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다.≫

전위당은 예년과 변함 없이 1월 1일에 ≪21세기의 태양이신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라는 제하의 신년축하문을 발표하였다. 전위당의 신년축하문은 올해의 투쟁방향과 투쟁결의를 단적으로 밝히고 있다.

≪우리들은 민족의 운명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련해 주신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투쟁에 총력을 경주하여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거센 열풍으로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로 장식하겠습니다.≫

전위당은 1월 1일 오전 ≪구국의 소리≫ 방송을 통하여 ≪민주애국세력의 총결집으로 자주적 통일의 새아침을 열자≫라는 제목의 논설을 발표하였다. 통상 1월 1일 오전에 발표되었던 논설은 한민전의 신년서한 다음으로 중요한 글로 여겨진다.

≪우리 한민전의 전위투사들은 새해, 민족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치켜들고 각계애국민중과 함께 단결하여 내외의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숴 버리고 기필코 조국통일의 새아침을 열어 나갈것입니다.≫

전위당은 ≪구국의 소리≫ 새해특집방송에서 가장 권위있는 대담자들이 참여한 ≪2002년 정국진단≫이라는 대담을 발표하였다.

≪박진수 : 올해 정국에서 가장 주목되고 관심사로 되는 건 통일정국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오일 : ... 각계 민중은 6.15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에 민족의 사활이 걸려 있음을 지난 1년간동안에 실제 체험을 통해 느끼고 있어요. 말하자면 6.15공동선언을 이행해서 통일의 문을 여는데서 걸림돌인 미국의 간섭과 분열책동을 저지하고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을 철폐, 해체하는 것과 함께 이회창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을 철저히 매장해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각계 민중의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이 범국민적 차원에서 세찬 격량을 일으키고 힘차게 벌어지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윤정원 : ... 그래서 올해 통일정국은 낙관적이고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역사적인 해로 되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전위당은 1월 1일 ≪인터넷구국전선≫을 통해 ≪새해정국과 민족민주운동의 진로≫라는 중요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올해 민족민주운동의 전략적 투쟁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이 논문에는 올해 운동의 기본목표와 대선방침, 기본타격목표, 민주화운동과 반미자주화운동의 상호관계, 민주화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의 상호관계, 그리고 올해 운동의 총적 좌표를 명확히 밝혀있다.

≪새해 민족민주운동 앞에 나선 기본목표는 모든 합법적

투쟁공간을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민주에 살고 통일에 살려는 이 땅의 전국민은 대선을 친미우익보수세력을 매장하는 정국전환의 역사적 관결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새해 민족민주운동의 기본 타격목표는 친미보수수구세력을 타도매장하는 것이다.≫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민족민주운동은 미군철수투쟁, 반미투쟁과 결부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은 조국통일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야 한다.≫

≪민족민주운동의 모든 투쟁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데로 지향시켜 새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결정적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

전위당은 한민전 대변인의 명의의 1월 8일자 담화문을 이례적으로 발표하였다. 한민전은 자체의 신년서한은 발표하지 않고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며 신년공동사설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새해 이북의 당보, 군보, 청년보 공동사설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돌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는 지금 각계민중들 속에서 커다란 공감과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이북의 신년공동사설에 제시된 조국통일과제를 올해 남북관계개선과 6.15공동선언실천투쟁에서 확고히 거머쥐고 나가야 할 지침으로, 새 세기의 가까운 앞날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려는 온 겨레의 불같은 열망과 의지를 담은 민족공동의 과제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그에 전적인 지지와 그 실행에 총분기해 나설 불타는 결의를 표명한다.≫

≪우리 한민전은 전국민과 함께 6.15공동선언의 기치 드높이 민족자주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벌여 민족의 영원한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이 되는 올해를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뜻깊은 해로 빛내일 것이다.≫

2002년 전위당의 신년메시지는 분명히 있다. 올해 전위당이 우리 운동대오와 민중에게 보내는 신년메시지는 무엇인가.

신년공동사설이 신년메시지이다. 당보, 군보, 청년보의 신년공동사설은 이북만의 신년메시지일 수 없다. 이는 조선노동당의 성격과 위상, 역할, 그리고 그 역사성으로 볼 때 명백하다. 신년공동사설에는 올해 자주통일운동의 방향과 방도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전위당은 한민전 대변인의 답화를 통하여 신년공동사설이 가지는 전국적 성격의 의의를 다시금 확인하였다.

전위당의 신년축하문이 신년메시지이다. 전위당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중앙위 명의로 신년축하문을 올렸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위당중앙위 명의의 신년축하문은 매년 발표되긴 하였다. 그렇지만 올해처럼 신년서한이 발표되지 않은 해에도 신년축하문은 변함 없이 발표된 것이다. 신년축하문의 내용에도 신년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위대한 장군님께 올리는 신년축하문 자체가 중요한 신년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전위당의 다양한 형태의 글들이 신년메시지이다. 전위당은 논설, 대담, 논문, 대변인 담화문 등 다양한 형태의 선전문들을 통하여 신년메시지를 발표하였다. 전위당이 발표한 글들에는 올해 우리 운동대오가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 투쟁방침이 뚜렷하게 밝혀져 있다. 올해 발표된 다양한 형태의 글들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문헌보다 오히려 풍부하고 입체적인 측면이 있다. 신년서한이라는 형식만 없을 뿐 올해의 투쟁방침은 다양한 글들로 정확하게 밝혀져 있는 것이다.

전위당의 신년서한이 없다는 것이 신년메시지이다. 조미공동코뮈니케와 6.15공동선언 이후 조국의 주객관정세는 이전과 판이하게 달라졌다. 지금은 남중심의 반국적 관점을 철저히 극복하고 북과 남을 전일적인 차원에서 조망하는 전국적 관점을 정립하여야 할 때이다. 전국적 관점을 견지할 때에만 주체적인 정세관을 수립하고 과학적인 정치노선, 조직노선, 투쟁노선을 확립할 수 있다. 전국적 관점을 견지하는데서 중핵적인 문제는 바로 북과 남의 혁명역량 간의 조직적 결합의 문제이다. 북과 남의 혁명역량 간의 조직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민족통일전선도 민족민주전선도 강화발전될 수 없다. 북과 남의 혁명역량 간의 조직적 결합은 북의 정치조직과 남의 민족민주세력의 지도핵심역량이 하나의 혁명영도체계로 결합할 때에만 비로소 실현된다. 이는 북과 남의 혁명역량, 특히 그 지도핵심역량을 절대적으로 분리해서 사고하는 반국적 관점을 철저하게 타파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룩될 수 없다. 신년공동사설은 있으나 신년서한은 없다. 신년축하문은 있으나 신년서한은 없다. 전략적 방침은 있으나 신년서한은 없다. 신년서한은 없으나 신년메시지는 있다. 하나의 혁명영도체계, 이것이 바로 신년메시지가 아닌가.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
주체 91(2002)년 1월 25일
서울

≪구국의소리방송편집국≫이 제기한 ≪새롭게 풀어야 할 이론실천적 문제≫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편집국 보도 43호)

올해 초 전위당의 ≪구국의소리방송≫편집국은 그 ≪운동강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지난 한해를 총화하며 새해의 계획을 제시하였다.

≪주체의 대중운동이론과 전략전술, 항일혁명투쟁경험을 배우자≫는 제하의 당문헌에 다음과 같은 지난해 총화가 밝혀져 있다.

≪오늘날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필승의 신념을 안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각계 민중의 대중적 진출과 그 규모가 날이 갈수록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데서 명백히 알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대중운동이 이처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하면서 대중운동단체들과 각계 민중들앞에는 새롭게 풀어야할 수많은 이론실천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대중운동단체들에서와 운동가들 속에서는 대중운동의 실천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심각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 수많은 문제들이 해명됐지만 아직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그릇된 주장과 견해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못하고 이로 인해 대중운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전개해 나가는데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기 대중운동을 벌여나가는데서 나서는 이같은 이론실천적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 건 대중운동의 돌파구를 열고 대중운동전반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전위당은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각계 민중의 대중적 진출과 그 규모가 날이 갈수록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이 땅에서 대중운동이 이처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하면서 대중운동단체들과 각계 민중들앞에는 새롭게 풀어야할 수많은 이론실천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고 밝히고 있다.

전위당은 나아가 ≪현시기 대중운동을 벌여나가는데서 나서는 이같은 이론실천적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 건 대중운동의 돌파구를 열고 대중운동전반을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전위당의 지적대로 6.15공동선언 이후 우리의 대중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하였으며 우리 운동가들에게는 새롭게 풀어야 할 수많은 이론실천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운동가들은 전위당이 과연 어떠한 이론실천적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지적을 하였는지부터 깊이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이론실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과정이기 때문이다.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
주체 91(2002)년 1월 15일
서울

2월 1일부터 새로운 선전투쟁을 시작합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예고(편집국 보도 44호)

≪우리 당의 사업작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투쟁기풍입니다. ... 우리는 어떤 일에서나 목표를 높이 세우고 대담하며 통이 크게 사업을 전개하여 나가며 자만과 답보, 소극과 보수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합니다.≫(**김일성**주석, 조선노동당건설의 역사적 경험)

≪종자를 바로쥐고 작품에 대한 파악이 생긴 다음에는 속도전을 벌려야 질이 높아진다는것은 실천적으로 그 정당성이 확증된 진리이며 그것은 이미 영화부문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습니다.≫(**김정일**장군,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올해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신 90돌이 되는 해이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신 60돌이 되는 참으로 영광스런 해입니다. 그리고 주체혁명무력이 창건되지 70돌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한민전중앙위는 신년축하문에서 ≪올해 태양절을 자주통일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는 대경사≫로 빛내일데 대한 결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주석님의 탄신 90돌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전민족적 축전으로서 ≪아리랑축제≫가 4월 15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전위당의 방침을 따라 2월 1일부터 ≪백두기간≫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사상선전투쟁을 전개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선전투쟁은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선전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종자론과 속도전에 의거하여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전투쟁은 주석님의 탄신 90돌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90일동안 전개될 것입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1(2002)년 1월 28일
서울

곧 피디에프 ≪세기와 더불어≫가 발간됩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예고(편집국 보도 45호)

≪우리가 지난 기간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전진과 혁신을 이룩하여온 것은 우리 당의 계속혁명사상을 구현한 결과입니다.≫(**김일성**주석,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문학예술에서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이다.≫(**김정일**장군, 영화예술론)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신 90돌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신 60돌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피디에프 ≪세기와 더불어≫를 제작하였습니다.

피디에프 ≪세기와 더불어≫는 말그대로 위대한 주석님의 불멸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전권을 피디에프로 편집한 것입니다.

동지들은 피디에프 ≪세기와 더불어≫를 통하여 위대한 주석님의 회고록의 더욱 입체적으로 풍부하게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디에프 ≪세기와 더불어≫는 올해 주석님의 탄신 90돌과 장군님의 탄신 60돌을 빛내이기 위한 우리의 기획사업 중 하나입니다.

피디에프 ≪세기와 더불어≫는 이미 완성되었으며 적절한 시기에 발간할 것입니다.

피디에프 ≪세기와 더불어≫는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선전투쟁과 결합하며 동지들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1(2002)년 1월 28일
서울

통일이가 걸어요

최학순

딸랑방울 흔들며 엄마를 향해
통일이가 걸어요 신나게 걸어요
고개를 까딱이며 이쁘게 웃으며
한발자국 두발자국 씩씩하게 걸어요

통일아 너는 2000년 6월 15일생
평양에서 6월선언 봉화 타올라
봄내 가을내 너나없이 기쁨 넘칠때
이 땅에 고고성 울리며 태어났었지

오늘도 앵두볼 너의 뺨위에 비껴있는 건
사랑으로 흘러간 행복의 그 2박3일
새천년 태양의 미소로 새아침 열어주시고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으로 민중을 일으키시던
장군님을 우러러 감격과 환희 끓어오르던 그 나날

통일아, 그날에 너를 안아올리며
나도 웃고 온 이남이 크게 웃었어
경향이 너나없이 모두 어깨춤을 들썩이며
통일의 청사진 밝게 그려보았어
밝은 웃음 안겨주신 어버이의 사랑속에
누구나 장군님세상에 살게 되었어

네가 크듯 그날부터 모두가 자라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오가는 걸음걸음이
통일의 봄바람 감겨들고
분열의 가슴앓이 저멀리 사라져 버린듯 싶었어

그 나날 너의 맑은 눈동자에 새긴건
하늘같은 아빠소원 목숨같은 겨레소원
반민주 반통일 칼바람을 물리치고
우리 아가 통일을 보란듯이 ****
눈부신 6월선언 끝끝내 지켜갈 맹세

그 열망 그 맹세속에 우리 아가 통일이처럼
우리도 통일의 걸음마 ***수 있어
멀게만 느껴지던 겨레소원이
눈앞에 창창히 다가오고 있어

통일이가 걸어요 떨어져선 살수 없는 엄마품을 향해 걸어요
남에서 북에서 온 겨레도 통일이처럼 어버이품을 찾아 함께 걸어요
6월의 통일봉화 활활 지피여
환희로운 통일소원 눈앞에 꽃펴주는
우리 민족 참다운 자주통일의 길
김정일장군님의 품으로 씩씩하게 발걸음 소리높이

주체 91, 1월 20일

우리 민중속에서 **김정일**장군님을 민족단합의 유일중심, 통일의 위대한 영수로 숭앙하는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의 주최로 15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제3차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범국민행동의 날≫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집회에서는 통일연대의 한상렬상임대표가 발언했습니다.

그는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미국이 최근 한반도정세에 엄중한 정세를 조성하고 있는데 언급하고 각계 민중이 통일연대의 투쟁에 합류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집회에서는 결의문이 낭독됐습니다.

집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합창으로 끝났습니다.

이날 집회장주변에는 지난해 평양에서 있었던 민족통일대축전과 관련한 사진들이 전시돼 있어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앞에서 제28차 반미연대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집회에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개정국민행동과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준비위원회,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 매향리미군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대우자동차노조 소속 노동자 200여명이 참가해 반미열기를 더해주었습니다.

이날 진행된 반미연대집회는 노동자들의 대거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주한미군이 논란을 빚고 있는 아파트건축과는 별도로 서울 용산미군기지 안에 또다시 독신자건물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이부영부총재와 김덕룡의원 등 비주류 3인은 이회창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이회창은 국민과 당원의 정당민주화와 개혁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회창이 국민참여경선과 집단지도체제에 대해서 수용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은 당을 민주화하거나 개혁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써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이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민주화와 정당개혁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서 이는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당내 요구마저 봉쇄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이 국민참여경선제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지지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정치개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자는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재러조선공민중앙협회 채종만회장이 이북의 새해공동사설을 지지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북의 새해공동사설을 지지해 전인도노조대회가 12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의 거대한 활력에 깊은 감동을 표시했습니다.

주체 91, 1월 21일

새해 벽두부터 미국과 군호전집단의 전쟁공조책동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각계에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재야인사 김모씨는 연초부터 한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는 미국과 군호전집단의 전쟁공조책동에 분격을 금할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한반도정세는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재난과 불행을 덮씌운 지난 6.25전쟁전야를 방불케하고 있다. 미국이 연초부터 북을 겨냥한 특수미사일부대를 창설한다 뭐다하는 매우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는 동시에 미의회 하원의장을 비롯한 호전광들을 연이어 파견해 군호전집단과 전쟁모의를 거듭하고 있는 사실이 그를 실증해주고 있다. 이는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미국이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기필코 한반도에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테러와의 전쟁을 한반도에로 확대해 놓고 군호전집단을 돌격대로 내세워 북을 어째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저들의 이같은 책동이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는 격의 무모한 짓임을 직시하고 감히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시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모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군호전집단은 미국의 전쟁확대책동에 공조하면서 동족인 이북을 압살할 전쟁책동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 군호전집단이 새해 벽두부터 하늘과 땅, 바다에서 북침을 가상한 전쟁연습을 매일과 같이 벌이는 한편 신형미사일을 구입하기로 하는 등 무력증강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실은 그들의 전쟁책동이 얼마나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심지어 군호전집단은 연초부터 미국의 호전광들을 연이어 끌어들여 그들과 북침전쟁모의를 하는 등 매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군호전집단이 미국의 전쟁확대전략에 편승해 동족인 이북을 북침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외세와 야합해 6.15공동선언을 뒤엎고 우리 민족의 머리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는 군호전집단의 이같은 책동을 절대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미국의 수족이 돼 동족을 압살할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는 군호전분자들을 국민의 심판대에 내세워야 한다.≫

시외버스와 승용차가 정면 충돌해 일가족 5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20일 ≪네덜란드 유럽-아시아집단≫남새화초온실합영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주체 91, 1월 2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지난 17일 6.15공동선언발표 2돌이 되는 올해를 공동선언실천으로 자주통일운동사에 빛날 자랑찬 승리의 한해로 장식하려는 불같은 의지를 담아 투쟁구호를 제시했습니다.

용산미군기지내 아파트건설을 반대하며 미군기지반환을 요구하는 각계 민중의 투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측이 늦어도 오는 8월까지는 아파트건립공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해왔다고 합니다.

서울용산미군기지 대체부지로 송파지역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송파구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회창은 20일 북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금강산관광사업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느니 뭐니하며 금강산관광사업은 경제적 채산성이 있어야 한다고 떠들었습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남북간의 협력과 통일을 위한 사업인데도 이회창이 경제적 채산성을 운운하며 반대하고 나선 것은 반통일분자, 민족반역자임을 스스로 드러내 보여줄 뿐입니다.

이회창은 연두기자회견이라는데서도 남북관계에서 앞으로 전략적 상호주의,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 검증이라는 세가지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떠들었습니다.

이회창의 이같은 망언은 6.15공동선언에 정면 대치되는 것으로써 각계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통일연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해서 통일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일치하게 요구하고 있는데도 유독 한나라당 이회창만이 전략적 상호주의니, 채산성이니 뭐니하며 6.15공동선언실천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

이회창의 행위는 국민과 겨레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분자, 민족반역자를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위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수 없다. 이회창일당을 하루빨리 제거해버려야 한다.≫

서울 종로에 사는 한 주민은 이회창의 연두기자회견을 신랄히 비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은 새해 벽두부터 마치 대통령이라도 될듯이 허세를 부리며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니 국민적 합의니 뭐니하며 그 무슨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떠들었는데 이는 남북관계를 계속 악화시키겠다는 소리이다.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할 것을 일치하게 주장하고 있는 때에 이회창이 이에 역행하는 망발을 거리낌없이 내뱉는 것을 보니 그가 쓸개빠진 것이 분명하다. 이회창을 그냥 두고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수 없다. 이회창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해버려야 한다.≫

현대아산의 한 관계자는 금강산관광사업이 잘 안되는 것은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분자들의 집요한 방해책동때문이라며 전국민이 이회창반대투쟁에 나서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수계약제와 연봉제철회를 주장하며 집단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장전형부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총재직과 당적이탈을 요구해온 한나라당 이회창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당권과 대권을 분리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 16대 총선당시 특검제상설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회창이 지금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말을 바꾸어가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면서 이같은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나라당내 소장파의원모임인 ≪미래연대≫ 공동대표 ***의원은 당내의 개혁요구를 이회창총재측에서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지각변동이 있을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의원은 20일 회견에서 민주당의 이인제상임고문이 대선후보가 되고 민주당내 개혁파의원들이 신당을 만들 경우 한나라당개혁세력측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있을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그 시기는 7, 8월쯤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이회창의 연두기자회견내용에 대해서도 비난했습니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조선신보≫에 따르면 조총련의 각계층 대표들이 아사히신문이 조총련과 조은을 걸고 드는 모략기사를 또다시 낸 것과 관련해 지난 10일과 11일 아사히신문, 도꾜, 오사카본사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네덜란드 유럽-아시아집단≫ 총재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전인도농민연맹연합서기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높은 정치실력을 가진 정치가로 칭송했습니다.

네팔노동자농민당 위원장은 이북을 자주정치의 대국으로 찬양했습니다.

주체 91, 1월 23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가 22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회의에는 이북 정부, 정당, 단체책임일군들과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단합을 도모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당면대책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부위원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한 해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됐습니다.

이북은 22일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에서 남북공동선언고수이행, 남북관계진전과 통일운동활성화,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요인제거 등을 주장하면서 이 중대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하고 6.15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정하며 5월부터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7월을 거쳐 조국이 광복된 8월까지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으로 설정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각계에서는 북의 이같은 3대 호소와 3대 제의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통일연대의 한 인사는 북의 3대 호소, 3대 제의에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의 호소와 제의는 확고한 자주정신과 열렬한 민족애, 민족주체적 힘에 대한 믿음, 통일에 대한 철석같은 의지를 반영한 애국애족적 발기로 된다. 북에서 주장한 것처럼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하게 이행해야한다. 그러자면 남북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온갖 시도들을 배격해야한다. 또한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분자, 민족반역자들,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을 싹쓸이해야한다. 이런 자들은 민족과 함께 공존할수 없고 나라안에 있을 자리도 없다. 모든 통일운동단체들이 반통일세력들을 청산하고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이행하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경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과 한총련 등 학생단체들도 북의 발기에 적극적인 찬성을 표시하며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북에서 이번에 중대한 발기를 했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을 벌이자는 북의 제의는 진정으로 자주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접수하고 호응해 나설수 있게 하는 발기라고 본다. 7천만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단결해서 조국통일운동을 거족적으로 힘있게 벌인다면 통일을 하루빨리 성취할수 있는 것이다. 통일운동을 외면하고 반대하거나 구속하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우리 노동자들은 통일운동에 앞장서나가겠다.≫

농민운동단체 김모씨는 북의 호소에 적극 호응해 나서겠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면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한다. 특히 분열의 장본인인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전쟁책동과 분열책동을 짓부숴버려야한다. 이와 함께 외세와 공조하면서 민족을 해치려는 호전세력, 반통일세력들을 통일을 원하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제거해야한다. 전쟁의 온상이고 통일의 장애물인 미군을 철수시켜야하며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통일악법들을 철폐시켜야한다. 전민족적인 반미반전투쟁에 분연히 나서고 통일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투쟁한다면 통일은 반드시 이룩될 것이다.≫

9기 한총련 최승환의장은 청년학생들이 10기 한총련을 강화하고 단결된 힘으로 조국통일투쟁에 떨쳐일어날 것을 호소해 18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올해에 들어와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의 전쟁분열책동이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나가는 역사의 거

세찬 발걸음은 절대로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총련은 앞으로만 전진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50일 총력운동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연대투쟁, 한총련의 조직강화를 위한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6.15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새기면서 부시의 한국행각을 반대하고 민족통일결의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한 투쟁 등을 통해 단결하여 투쟁하고 투쟁으로 단결하는 한총련의 고상한 기풍을 남김없이 과시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의 주최로 지난 14일 서울의 기독교연합회관에서 2002년 정세전망 및 민중진영의 대응이라는 의제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수계약제와 연봉제의 철회를 요구해 전국의 교수들이 집단항의농성을 벌였습니다.

대한민국독도향우회와 민족문제연구회 등 20여개 시민단체회원 80여명은 지난 21일 서울 탑공공원앞에서 한일어업협정파기촉구국민결의대회를 갖고 어업협정의 파기와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은 일주일동안 미국을 방문한다며 22일 오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회창이 미국행각기간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하원민주당 원내총무 등 미국의 정계인물들과 만나 한반도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역설한데서 알수 있는 것처럼 그의 이번 미국행각의 목적은 미국상전들과 함께 동족인 이북을 압살하기 위한 흉책을 모의하기 위한데 있는 것입니다.

이회창의 미국행각목적은 또한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미국상전들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권좌를 차지해보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회창의 이번 미국행각은 미국의 대북압살책동을 비롯한 대한반도정책을 순순히 받들겠다는 것을 서약함으로써 미국의 지지밑에 더러운 대권욕을 실현해보려는 추악한 매국노의 행각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외세에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는 댓가로 일신의 부귀영달과 대권욕을 이뤄보려는 이회창과 같은 사대매국노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 노무현 상임고문은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이 ***문제를 비롯해 항상 기득권세력의 편에만 서서 정책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총재의 정책노선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노고문은 지난 20일 KBS뉴스레이다 초대석에 출연해 말로는 안보를 강조하면서 뒤로는 자식에게 병역을 기피시키고 남북화해조치에는 반대로만 일관하는 등 이총재가 냉전수구세력과 특권세력의 대변자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노고문은 이와 함께 최근의 부패상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체계가 낡은데 원인이 있다면서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불후의 고전적저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이집트중동공보센터출판사에서 15일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주체 91, 1월 24일

부평권리선언운동본부 회원인 김철호씨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치를 높이 찬양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16일 미국대통령 부시의 한국행각을 반대해 성명을 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18일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의 사대주의적 망발과 반통일적 입장을 규탄해 성명을 냈습니다.

각계에서 이회창의 미국행각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회창의 방미는 매국행각이라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회창이 워싱턴으로 가서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고위관계자들과 만나 한반도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고 하는데 남북대결만을 고취하고 통일을 반대하는 그가 할 소리란 뻔하다. 그는 미국상전들에게 대북강경정책을 계속 실시하도록 충동질할 것이고 한미공조로 북을 압살하자고 구걸할 것이다. 퍼주기니 상호주의니 뭐니하며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반대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파기하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는 이회창이 미국에 가서 좋은 소리를 하기는 만무하다. 어떻게하든 한반도정세를 격화시켜서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기 위해 호전분자들을 찾아간 것이다.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미국 상전들을 만나 전쟁음모를 꾸미기 위해 워싱턴으로 날아간 것이다. 이회창의 친미사대주의적 행각은 국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이회창은 자신의 반통일민족반역행위가 국민의 배격과 규탄을 받게 되자 미국의 지지를 얻어서 6.15공동선언을 말살하려고 책동하지만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이회창은 매국배족행위를 더 이상 하지말고 국민의 일치한 요구대로 정계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

이회창의 미국행각을 한나라당내에서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이회창이 워싱턴으로 날아간 것은 미국 보수세력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후보로 나서려는데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대선을 앞두고 사분오열될 상황에 처해있다. 대권과 당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반이회창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회창은 대선후보경선에서 낙선될수 있다. 이에 당혹한 이회창은 미당국자들에게 빌붙어 지지해줄 것을 간청하러 간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지금 당내 분위기는 이회창을 가지고서는 대선에서 이길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의 지지를 받아도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회창은 자신의 처지를 알고 스스로 물러나야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국정원이 입안한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며 법개정에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불후의 고전적저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를 슬로바키아공산당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우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이 이북의 새해공동사설을 지지해 14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주체 91, 1월 25일

부평 대우자동차에서 일하는 노동자 최영서씨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한민전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는 한미호전세력들의 전쟁공조책동을 규탄하는 ≪한민전≫ 중앙위원회 성토문발표와 관련해 24일 평양에서 국내외 기자들과 회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평양시내 신문, 통신, 방송기자들과 이북 주재 여러 나라 출판관계자들, 외국 특파기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의 친미사대주의적 행위를 규탄해 18일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에 찾아간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이 상전들과 함께 동족을 모해압살하기 위한 역적행위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각계에서 치솟는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모씨는 이회창이 미국에서 놀아대는 꼴을 보면 그야말로 역정중에 상역적이 분명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을 행각한 이회창은 지금 상전들 앞에서 대북포용정책이니, 상호주의니, 그 무슨 근본**를 보존하는데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수 없다느니 하며 동족인 이북을 압살하기 위한 책동에 여념이 없다. 이회창은 이 땅에서 동족간의 불화의 씨를 뿌리고 대결을 격화시키다못해 이제는 미국에까지 나가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없애보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일개정당의 총재를 자처하는 이회창이 온갖 험담을 내뱉으며 동족을 헐뜯고 민족을 망신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런 자가 총재감투를 쓰고 있는 한나라당이야말로 가긍한 집단이다.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하자는 때에 동족압살을 구걸하고 있는 이회창을 절대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민족의 명부에서 지워버리고 이 땅에서 추방해야한다.≫

외교통상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모씨는 미국에 놀아대는 이회창의 추한 꼴을 보니 역겹기 그지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 찾아간 이회창은 지금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상전들의 비위에 맞는 언행만을 골라해가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급급하고 있다. 이회창의 꼴을 보면 꼭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꼬리를 내젓는 삽살개 한가지다. 미국상전들에게 잘보여 다가오는 대선에서 당선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땅에는 이회창과 같이 비굴하고 너절한 인간추물을 용납할 사람은 한명도 없다. 우리 국민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민족을 해치고 망신시키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이회창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준비위원회는 23일 최근 한나라당의 금강산관광중단촉구 기자회견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민족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논리만을 내세운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각계에서 이북의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에서 채택한 해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정계인사 박모씨는 이북의 호소문은 올해 통일운동의 향방이 훌륭히 제시된 새로운 투쟁의 기치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해내외동포들은 누구나 당 이북의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에서 채택한 호소문을 적극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해 한사람같이 나서야한다. 남북관계를 활성화시키고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면 호소문 첫째 조항에서 지적한 것처럼 자주통일의 기치인 6.15공동선언이 철저히 고수되고 이행돼야 한다. 정말 옳은 말이다. 그것은 6.15남북공동선언이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자주선언, 민족대단결선언, 통일지향선언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남북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거는 이회창과 같은 반민족반통일분자들을 하루속히 제거해야한다.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분자를 그대로 두면 언제가도 공동선언을 제대로 이행할수 없다. 나는 정계의 한사람으로써 앞으로 이북의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에서 채택한 호소문내용을 실천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

서울시가 월드컵기간에 노숙자들을 지방으로 격리시키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노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회 제10차총회가 24일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24일 몽골, 중국, 아시아협회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주체 91, 1월 26일

서울지하철노조가 25일 오전 8시부터 조합원 9300명을 대상으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미국을 행각중인 한나라당 이회창은 25일 백악관에서 체니부통령과 만나 남북관계에서의 한미공조방안,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회창은 이 자리에서 상호주의니 투명성이니 뭐니하면서 미국이 대북강경정책을 계속 실시할 것과 북의 위협이니 뭐니하며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미당국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이회창은 이어 미국무부에서 파웰국무장관과 아미타지부장관을 만났으며 오후에는 미의회 상하원 원내총무들과 상원외교위원장을 만나 한미공조를 유지해줄 것과 자신의 대선출마를 지지해 줄 것을 구걸했습니다.

이회창의 이같은 행위는 남북관계를 대결과 전쟁의 국면으로 몰아가려는 반통일적, 반민족적 대죄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회창은 미상전들에게 아부굴종하며 대권야망을 실현해보려고 갖은 추태를 부려 조소를 받고 있습니다.

노근리대책위원회는 23일 현재 육군대학교관인 류무봉소령이 지난해 5월 미육군지휘참모대학 연수중에 노근리사건의 책임이 미군측에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6.25전쟁초기에 노근리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민간인들에게 무차별적인 살상명령을 반복해 내렸다는 사실이 영국 BBC 방송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조총련중앙상임위원회 조령현부의장이 지난 24일 담화를 발표해 이북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의 3대호소, 3대제의를 지지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염순길위원장은 25일 담화를 발표해 올해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이북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의 3대호소, 3대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페루 리마 인데뻰덴씨아시 명예상장과 금메달이 수여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새해에 즈음해 쿠웨이트 국가수장, ***공화국대통령이 각각 축전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생일에 즈음해 지난 19일과 21일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네팔 전국준비위원회, 따쥐끼스딴공산당, 민주콩고청년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